2018
겨울

생협 평론

33

계간
『생협평론』
2018 겨울
33호

차례

길잡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4
—박종현(편집위원장)

특집

사회적경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10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공동체는 지역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8
—임경수(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아이쿱 모임,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가다 47
—박미정(아이쿱활동연합회 자치활동국장)

청년과 공동체 삶의 가능성 62
—박희정(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디지털 커먼즈의 위상 77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좌담]
느슨한 연대로 만드는 환대의 공간 91

박동광 송건 유한밀 조완석 조금득 장인권

이슈

닻을 올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110
—이상진(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

GSEF 2018 빌바오 포럼 :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122
—곽은경(GSEF 사무총장)

생태적 사고와 문명적 전환을 위한 첫 발걸음 133
—한윤정(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과정사상연구소 연구원)

돌발 논문 **협동조합 회계기준 2**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방향 2 143

—유종오(공인회계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캐나다 CDF의 협동조합 국제개발 155

—조수미(CDF Canada Project Officer, 쿠피협동조합 조합원)

한국 생협,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168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생협 줌 인 zoom in

내 마음속 〈세한도〉 176

—김성광(한겨레 기자)

기획 연재 **유형별 협동조합 비즈니스 첫걸음 3**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 178

—김현하(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책기획부문)

서평

연대와 협동으로 마을의 삶을 바꾸는 실천서 188

: 김신양, 『마을에서 함께 읽는 지역관리기업 이야기』
마르끄 하쯔펠트, 『지역관리기업, 사회관계를 엮다』

—오창호(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나쁜 선배들'이 꿈꾸는 미래 192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로컬의 미래』

—이주희(더이음 운영위원)

협동조합 소식

공간에서 만드는 공동체의 힘 196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생활 속 사회적경제

우리는 동네에서 놀아요 200

—신효진(편집위원회)

정기구독 안내 228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203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219

생협 평론

계간 2018년 겨울 제33호 **펴낸날** 2018년 12월 20일 **펴낸이** 윤유진 **편집위원** 김현대 박범용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편집위원장 박종현 **펴낸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주소** 0731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 **편집간사** 신효진 **디자인편집** 잇다 **인쇄** 아람P&B
ISSN 2093-9876 **등록번호** 구로, 바00038 **등록일** 2016년 4월 5일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도서 반품 및 유통 관련 문의** 도서출판 **알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 | 전화 · 02-324-3800

길잡이

박종현

편집위원장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한 인간은 친구를 필요로 한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들도 다른 이들과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한다.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관심과 애정을 나누며, 유익하고 가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 소속감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그 과정에서 키운 신념과 가치의 실현에 분투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공동체의 몫이다.

그런데 공동체를 일구는 일에는 품이 많이 든다. 타인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베푼 호의를 되돌려 받지 못할 때도 많으며, 공동체가 속박이나 굴레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함께'보다는 '혼자서'를 편하게 느끼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마을과 지역과 일터와 쉼터에 공동체의 기풍을 새롭게 불어넣음으로써 '나홀로 각자도생하는 삶'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에 주목해 '사회적경제와 공동체'를 〈특집〉의 주제로 다뤄보았다.

역사적으로 공동체는 어떻게 전개되어왔고, 오늘날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마을과 지역 안에 공동체를 가꾸는 시도들은 어떤 기대와 염원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고 어떠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 발전과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삶의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디지털 커먼즈와 같은 새로운 공유자원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점검과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

향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룰 것이며,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좋은 삶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공동체 활동이나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5편의 원고를 받았다. 좌담회를 열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해보았다. 소중한 시간과 귀한 의견을 내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호에서는 〈이슈〉와 〈돌발논문〉의 분량이 크게 늘어났다. 독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활동이 유난히 많았고,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의제의 제안도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슈〉에서는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인내자본 역할을 담당할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설립 과정과 의의를 짚어보고, 사회적경제의 유일한 국제 네트워킹 플랫폼인 GSEF가 개최한 2018 빌바오 포럼과 '문명전환과 도시의 실험'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 컨퍼런스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협동조합 활성화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제안, 국제개발 활동에 적극적인 캐나다 협동조합의 사례, 커다란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생협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관한 제언 등을 담은 〈돌발논문〉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

〈기획 연재〉 중인 "유형별 협동조합 비즈니스 첫걸음"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을 다루며 고부가가치 사업 모델로의 전환, 주인의식의 고양, 바람직한 보상 체계의 마련에 관한 유용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평〉에서는 특집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로컬의 미래』와 프랑스의 경험을 심도 깊게 녹여낸 『마을에서 함께 읽는 지역관리기업 이야기』 등 지역과 마을에 천착한 책들을 다뤘다. 제주도 중산간 눈보라 속의

상록활엽수를 화폭처럼 담아낸 〈생협 줌 인〉,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시도를 소개한 〈협동조합 소식〉, 동네 안으로 들어가려는 청년들의 유쾌한 시도들을 소개하는 〈생활 속 사회적경제〉에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정과 협력의 공동체가 꽃을 피우려면 '좋은 시민'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les에 따르면, 좋은 시민이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공론화를 이끄는 도덕적인 인간이다. 이들은 공동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먼저 협력하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응징해,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도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압박하는 존재들이다. 『생협평론』이 우리의 공동체를 가꾸는 데 유용한 지식과 담론의 '공론장'으로 좋은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해본다.

특
집

사회적경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분열과 불안 그리고 불만의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 불평등과 더불어 공동체의 약화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공동체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되며, 공동체의 영어 표현인 'community'는 규범·종교·가치·정체성 등을 공유하는 크고 작은 사회적 단위로 정의된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관심과 애정을 나누며, 유익하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함께 벌이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동체는 개인의 개성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공간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고 '함께'보다는 '혼자서'를 편하게 느끼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에 균열이 생기고 각자도생의 길이 당연해지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거나 새롭게 만들려는 노력이 사회적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마을과 지역, 일터와 쉼터를 연대와 협력의 기풍을 통해 아름답게 가꾸려는 이러한 시도를 살펴보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생협 평론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_____김병권
공동체는 지역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_____임경수
아이쿱 모임,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가다
_____박미정
청년과 공동체 삶의 가능성
_____박희정
디지털 커먼즈의 위상
_____이광석

좌담
느슨한 연대로 만드는 환대의 공간
_____박동광, 송건, 유한밀, 장인권, 조완석, 조금득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아래로부터의 생활 반경에서 성장해오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생활과 노동, 자치와 경제활동 등 자신들의 필요를 커뮤니티를 통해 스스로 조직해내고 이 과정에서 공적 조직들과의 협력적 연결을 더욱 모색해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관계 해체와 고용 불안 해법의 돌파구 한쪽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

* bkkim21kr@naver.com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무대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개혁적 정치철학자이자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이었던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의 주장이다. 당연하지만 좋은 삶을 위해서는 정치 공동체, 즉 국가를 필요로 하고 덧붙여 민족이라는 공동체도 요구된다. 또한 좋은 삶을 위한 경제 무대로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한다고 알려진 시장Market이 필요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선호한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교제 자체를 위해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며 온갖 종류의 집단을 조직하고 재편하는" 제3의 무대, 시민사회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왈쩌의 얘기다. 그렇다면 정치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 그리고 경제 공동체와 대비되는 시민사회라는 범주에 포괄된 다양한 공동체들은 어떻게 정의될까? 서로 다른 세 학자의 주장을 보면 일련의 공통 맥락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민사회는 강제되지 않은 인간 결합의 공간과 이 공간을 채우는—가족, 믿음, 이데올로기를 위해 형성된—관계의 네트워크들의 집합을 부르는 말이다. (마이클 왈쩌, 2008)

> 시민사회는 경제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으로서, 무엇보다 친밀한 영역(특히 가족), 결사체(특히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 사회운동, 공적 의사소통의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근대 시민사회는 자기 구성과 자기 동원의 형식을 통해서 창조된다. (코헨과 아라토, 1992)

> 사회가 집합적 행위를 가장 광범위한 자원에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국가가 강제력으로 규칙 및 법규를 실행하는 방법, 시장에서 내려진 개별적 결정들의 비의도적인 결과들을 수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발적 행위, 토론, 합의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통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에드워즈, 2004)

국가나 시장과 구별되는 '시민사회'는, 주위의 친밀한 관계를 비롯한 자발적 결사체들, 그리고 사회운동이나 공적 의사소통을 위한 단체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결합하는 다양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란 때로는 시민사회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기고 하고 때로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모임이나 결사체 하나하나를 특정해서 부를 때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 '커뮤니티'는 통상적으로 지역 기반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동체라는 우리말 어감이 내 선택과 무관하게 외적으로 주어지는 강제적 귀속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요즘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체 단위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커뮤니티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시민사회나 공동체, 결사체처럼 조직의 실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들이 맺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공동체에 접근할 수도 있다. 특히 관계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 청년들의 은둔생활이나 중년 이상 1인가구의 고독사 등 넓은 의미의 일상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연결, 관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는 최근의 사회 현실에서 공동체라는 개념보다는 '관계의 존재'라는 접근법이 문제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사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상품 재화나 서비스 재화와 구분되는 관계재relational goods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관계재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에서 획득(생산)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일 때만 증가(소비)될 수 있는, 그렇게 개인 혼자서는 그 생산과 소비가 불가능한 재화"(김균, 2013)로서, 행복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많다. 또한 사회학에서는 일찍이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2000)』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이 널리 확산시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결connections과, 여기에 기반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성, 신뢰 규범"(퍼트넘, 2000)으로 정의되는데, 사회적 자본은 교육, 안전, 건강, 경제,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행복과도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와 강력한 조직력을 갖는 결사체나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관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활 반경에서 발견되는 작은 모임이나 커뮤니티들, 그리고 이것들이 연결되어 체계를 갖춘 단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별적 단위들인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다룰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나 커뮤니티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의 결과물이므로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왔지만, 그 구체적인 특징이나 외형은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면서 변화하고 진화해왔다. 특히 시민 공동체는 한편에서는 국가나 공공 조직,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이나 경제 조직과의 대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모습을 변화해내면서 시민들의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심지어 우리 역사에서 그것은 '자발성'이라는 공동체의 핵심적 특질이 거세된 채 권위적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관변'으로 조직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시민들은 자발적이고 강력한 '저항 단체'를 만들어 국가와 맞서기도 했다. 또한 커뮤니티는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와 교류하면서 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 지대추구rent seeking에 대항하는 경제 정의와 경제민주화 단체로서 조직되기도 했다.

20세기형 복지국가가 한계에 봉착하고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체제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부활과 역할이 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이지만 막상 커뮤니티는 위축되어 있고 '무연사회無緣社會'의 공포가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지난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완수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근대국가가 서구를 중심으로 막 성장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약 200년 동안 공동체와 커뮤니티는 어떤 역사적 변화와 굴곡을 겪으면서 진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은 어떤 역할의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방향을 유추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지금 왜 새로운 차원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한지도 살펴보려 한다.

1. 공동체를 소멸시키며 성장한 자본주의

18세기 말 19세기 초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오랫동안 농촌에서는 봉건적 '촌락공동체'가 농노나 농민들의 자조적인 경제·사회 생활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장인 및 견습공 단위로 이루어진 생산자들과 상인들로 구성된 동업자 조합인 '길드 공동체'가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더라도 동양의 봉건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동일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태동된 자본주의적 생산은 농촌과 도시의 오랜 공동체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면서 자리를 잡아나간다. 농촌에서는 전통적인 공유토지에서 농민들을 내쫓아 노동자 풀Pool을 만들게 했던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이 농촌공동체 붕괴를 재촉했고, 도시에서는 장인들의 소규모 생산을 대체하는 기업적 생산에 토대한 자유무역 체제가 전통적인 길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 결과 봉건적 공동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노동자와 기업가들은 개인으로서 각각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유계약' 거래를 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사회를 만들게 된다. 즉, 자본주의가 들어서자 "공동체는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전망을 선택하는 데 장애였고, 족쇄로 여겨졌을 뿐"이며, 공동체를 대신한 "이상적 형태로서의 시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절해주는 기제"가 되었다.(최정규, 2017) 해체된 농촌공동체와 도시 공동체에서 풀려난 개인들은 자유로운 직

업 선택과 거주 선택, 자유로운 기업 결성에 의해 경제생활과 개인생활을 충족하면 될 뿐 개인을 속박하는 다른 사회적 조직이 그다지 필요치 않았다. 심지어 국가마저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국가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이런 경향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 대신 시장에서의 가격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간관계만이 필요하며, 혹시라도 대규모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직 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으로만 제한될 것 같았던 그 주장은 현실에서 잘 작동했을까? 과거에 공동체가 담당했던 기능들을 개인이 시장에서 해결하게 되면서 공동체는 오직 과거의 향수로만 남게 됐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원자화된 개인들이 오직 시장에서 소비자이자 노동력 공급자로서 거래 관계로 만나는 그런 사회는 19세기 중반부터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 빈곤층이 생활과 삶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시장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간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시장은 오직 지불 능력이 있는 시민들에게만 유효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논리적으로는 공동체를 부인했으나 현실에서는 다시 공동체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시민들은 시장 밖에서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결사체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1800년대 초부터 모습을 갖춘 노동조합, 1844년에 최초로 설립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 1850년 독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을 필두로 다양하게 출현했던 서구의 공제조합과 상호부조 단체들이 그것이다. '시장으로 가득 찬 세상'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좋은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자 시민들이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자구적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역사적 경험은 원자화된 개인이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경제·사회적인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고, 그 결과 19세기 말부터 국가도, 시장도, 공동체도 새로

운 모색과 진화를 준비하게 된다.

2. 20세기 복지국가와 거대 조직의 시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자본주의가 결코 개인들의 시장거래만으로 작동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것은 시장경제 밖에서가 아니라 시장경제 안에서, 즉 기업의 진화 과정에서였다.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활동을 시장 및 가격 기제가 조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그럭저럭 담당했다. 한마디로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전체 경제활동의 조정자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의 시장경제는 기껏해야 전국에 흩어져 있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가족기업이 지역에 생활하는 주민을 계절노동자로 활용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방식이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중매인과 경매도매인이 분산된 소규모 제조업자들에게 원료를 조달하는 거래를 체결하는 한편, 생산된 완제품을 내륙 곳곳에서 항구로 유통시키는 계약을 맺었고, 다시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들과 거래함으로써 이들이 국내·국제적 영업과 판매를 담당했다. 그리고 거래의 맨 끝에는 도매상과 소매상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거래 연쇄 과정의 마디마다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이 연결을 담당해주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석탄, 석유, 전기 동력이 강력해지고 철도 등 유통망이 발달하자 서구 기업들은 기존의 원료 조달, 유통, 영업, 금융 등 시장거래에 의존하던 영역을 기업 안으로 내부화internalize한다. 그 결과 단일 기업에서 자본과 원료 조달부터 생산, 마케팅, 유통, 심지어 도소매까지 경영 지휘 체계로 모두 총괄해내면서 기업의 몸집은 커져갔다. 나중에는 거듭되는 인수 합병을 통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은 수만, 수십만의 직원을 전 세계에 배치하고 고도로 분화된 경영 조직을 거느

린 막강한 군대 조직처럼 변화되었다. 그 결과 "경영이라는 보이는 손이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대체해버린다. (알프레드 챈들러,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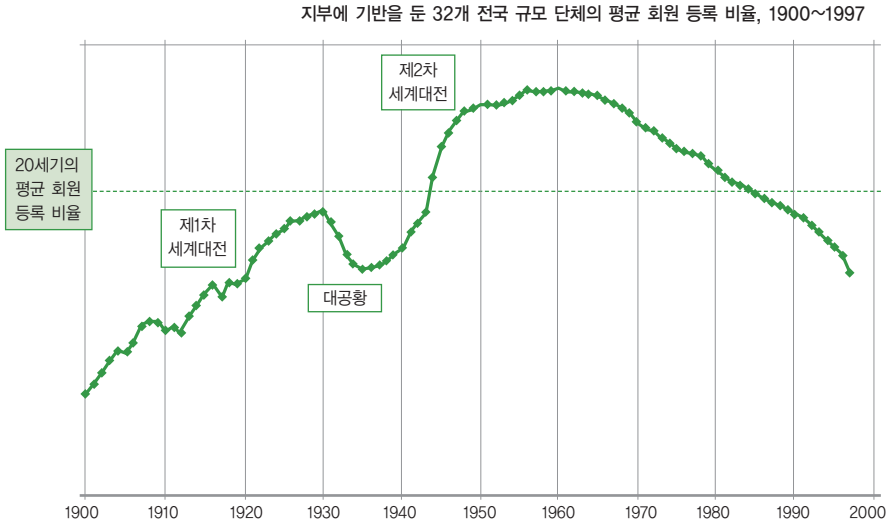
한편, 경제활동 영역에서 20세기를 거대기업시대로 장식할 동안 '작은 국가'도 몸집을 키울 준비를 한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독일 비스마르크 정부가 사회복지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20세기 초반에서 1929년 대공황 전후 시기까지 주요 선진 국가들은 한편에서는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실업과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한편에서는 부상하는 대기업 시스템을 뒷받침할 포괄적인 교육과 보건, 교통과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등 대규모 산업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큰 국가, 복지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과 농민단체 등 시민의 자주적 조직들도 기업과 국가의 대규모화에 비례하여 전국적인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19세기의 크고 작은 공제조합이나 상호부조 단체들을 대체해나가기 시작한다.

이처럼 기업과 국가, 시민사회 모두에 걸쳐서 거대 조직으로 대표되었던 시기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알려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197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대체로 자동차, 석유, 전기, 가전, 화학 등에서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했으며, 각 기업들은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대 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여기에 상응해 노동조합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수십만, 수백만 규모의 단체로 성장했고, 자발적인 결사체들도 1956년 기준으로 회원을 가진 200개 단체를 표본 추출했을 때 회원의 수가 평균 11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했다. (퍼트넘, 2000) 국가 역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재정 운영 규모를 늘리고 대규모 공적 교육, 연구, 보건기관이나 사회보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20세기는 큰 조직의 시대였다. 특히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시대였고, 아울러 자발적 결사체와 커뮤니티들도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큰 조직들의 영향이 강했던 시기였다.

3. 신자유주의와 '관계 결핍'의 시대

"사회 같은 것은 없다. 개별적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가족이 있을 뿐이다. There's no such thing as society. There are individual men and women and there are families."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열었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1987년에 했던 인터뷰의 한 구절이다. 1980년 영국과 미국에서 등장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는, 20세기 복지국가가 책임졌던 국가의 경제적 역할은 물론이고 공적인 교육과 보건조차도 '작은 정부, 민영화'라는 이름 아래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했던 사조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담당했던 다양한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적 지원들 역시 대폭 축소하면서 대처의 언명처럼 아예 '사회'의 존재를 허구라고 치부하기에 이른다. 자연스럽게 1980년대부터 사회단체와 공동체의 활

〈그림1〉 미국의 단체 회원 등록 비율 변화 추이(퍼트넘, 2000)



동과 그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회는 개인화된다.

신자유주의의 부상으로 국가, 시민사회에 대한 시장의 일방적 우위 체제로 운동장이 기울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시장이 '효율성'에 치우친 나머지 소홀히 해온 '형평성'을 국가가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거의 한 세기 만에 가장 심한 불평등이 전 세계에 만연하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맡아왔던 교육, 보건, 복지, 주거 등 사회 안전망과 상호부조 영역을 민영화라는 이름 아래 시장에 편입시킴으로써, 시장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빈곤층, 노숙자, 채무자, 학교 중퇴자 등 새로운 사회 이슈가 급증하게 된다. 더욱이 대규모 조직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평생 직장을 보장하고 여기에 기업 복지를 탑재했던 대기업들도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외주화, 하청화, 체인화 등으로 고용을 쪼개는 동시에 사회복지 부담을 털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의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됐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구조 변동이 겹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한다. 우리 사회는 2015년 이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2인 가구 비중(26%)까지 합하면 전체 가구 유형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 되었다. 인류가 집단생활을 해온 20만 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1인 가구', '1인 생활', '싱글턴singleton' 등과 같이 혼자 살기에 도전한 기간은 서구에서 길어야 50년, 우리는 채 10년 안팎이다. 더욱이 이런 현상이 "여성의 지위 상승, 통신 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 연장이라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네 가지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 개인이 활약하기에 좋은 여건을 창출"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실업이나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었다.(에릭 클라이넨버그, 2012) 이로 인해 최근 청년들의 외톨이 은둔 생활, 중년 이상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 무연사회에 대한 우려 증대 등이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

회문제에 시장은 사실상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시장으로 가득 찬 세상'을 고집했던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하지만 아직 국가와 시민 공동체의 귀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 재정 균형과 긴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작은 정부라는 족쇄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다만 10년째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경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시민사회를 다시 호명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사회' 자체를 부인했던 대처 수상의 바로 그 영국 보수당이 2010년 총선에서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핵심 선거 구호로 내세우면서 집권을 하게 된 점이 이를 극명하게 상징해주지 않을까 싶다. 사실 신자유주의로 인한 폐해를 만회하고자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서구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이 탄생하거나 사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들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자구책들이 모색되고 있었다. 영국의 보수당 역시 일각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개인만으로 이루어진 자유시장 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빅 소사이어티'라는 어젠다를 개발해왔던 것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30년 만에 자신들의 손으로 매장했던 '사회'를 스스로 무덤에서 꺼내 위기에 빠진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다. 국가는 그대로 긴축의 재갈을 물려둔 채로 아무런 재정 지원도 없이 시장의 실패가 남긴 상처를 시민 공동체가 자구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4. 새로운 커뮤니티 모델의 진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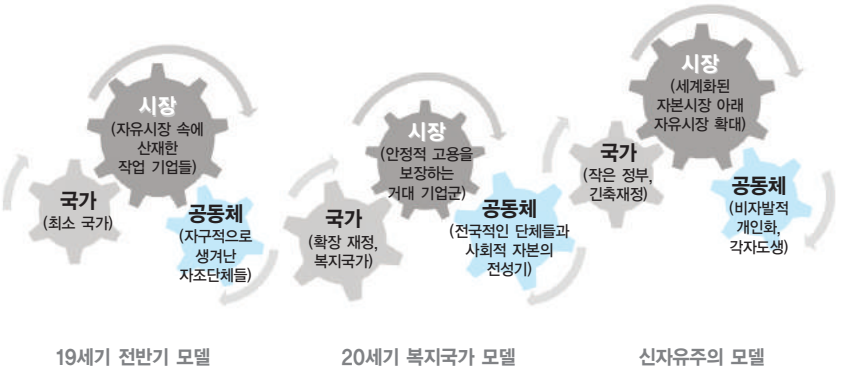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 약 200여 년 동안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 공동체가 서로 얽혀서 어떻게 전체로서의 사회 시스템을 진화시켜왔는지 간단히 스케치해보았다. 이 기간 동안 공동체의 역할과 형태의 변동을 세 시기

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자유방임주의 시기에는 기존 공동체를 해체하고 들어선 시장 기제 안에서 원자화된 개인이 자유 거래와 계약을 통해 무수히 일시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시기다. 이 시기는 시장의 공급 주체인 기업마저도 지금에 비하면 크지 않았고 국가의 역할도 제한되었다. 하지만 좋은 삶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시장의 한계는 금방 드러났고, 그 결과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공제 조직과 상호부조 모임 등 협동 조직들이 다양하게 출현하면서 실업과 빈곤, 금융과 생활상의 곤란에 자구적인 공동체 노력이 일어난다.

둘째 시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상당수 시장거래 영역을 기업 조직으로 내부화하면서 보이지 않는 시장 기제를 '보이는 기업 명령 체계'로 전환했던 거대 기업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또한 시장 실패가 명확해지면서 국가가 한편으로는 실업과 빈곤, 건강 등 사회복지를 책임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공장 시스템 지원을 위해 교육과 사회간접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국가의 역할과 규모를 더욱 키워나간 시기다. 국가와 시장의 조직이 대규모화되는 것과 함께 시민 공동체 역시 노동조합을 필두로 전국적 조직화 경향을 띠게 되면서 1950~1970년대까지 거대 공동체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된다.

세 번째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시장 기능을 맹신하는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 큰 시장', '감세와 민영화'를 내세우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기세가 꺾일 때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시기다. 이 시기는 복지국가가 전방위적으로 공격받으면서 조세 규모 축소로 인해 재정 능력이 취약해지는 한편, 공동체 활동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자본 역시 현저히 감소하면서 공동체와 지역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던 시기다. 동시에 기존의 수십만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던 대기업 모델도 쇠퇴하고 외주화, 하청화, 체인화를 통해 정규 고용은 줄고 복지 혜택도 축소된 결과, 복지를 스스로 책임지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 여기에 더하여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동이 비자발

〈그림2〉 역사적으로 진화해온 공동체의 세 단계와 국가, 시장 기능 변화



적인 개인화를 촉진하면서 시민들의 관계망은 더욱 허약해지고 관계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부각된다.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시민들에게 좋은 삶을 약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진 지금,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와 시장, 특히 공동체 모델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일부에서는 1950~1960년대 경제 성장과, 평등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다 함께 번영했던 복지국가의 시기로 되돌아갈 것을 희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절과 비교해 지금은 소수자의 정체성뿐 아니라 개인적 다양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국가의 일률적 복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팽창하던 때와 달리,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고 있는 현재 시점은 재정 팽창을 통한 국가복지 확대에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이었던 대기업의 안정적 고용 보장 체제가 상당히 허물어져버린 지금, 국가복지가 기업복지와 결합되어 시민의 좋은 삶을 책임지는 모델을 재현하기는 여러모로 쉽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영국 보수당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처럼, 긴축 재정을 핑

계로 작은 정부를 그대로 놔둔 채, 시장의 실패를 오로지 '시민 공동체'로 채워 넣으려는 시도 역시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거시적인 경제 조정이나 자원의 재분배 그리고 시장의 규제는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며, 또한 시민 공동체와 커뮤니티의 발전은 오직 국가의 강력한 뒷받침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역할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 신자유주의는 20세기 복지국가와 거대 조직들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국가와 커뮤니티가 협력하는 미래 전망

결론부터 말한다면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모델은 '위로부터의 공적 시스템과 아래로부터의 커뮤니티가 협력'하는 방식일 개연성이 높다. 왜 그럴까? 우선 앞서 확인한 것처럼, 갈수록 글로벌화 되어가는 경제 시스템에서 시장 기제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적 불균형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국제적 조정 장치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거시적 경제 조율과 자원 배분 기능, 특히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재분배 기능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강요해온 '작은 정부'는 철회되어야 하고, 정부 크기를 문제 삼기 이전에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위로부터의 공적 시스템'이 강력히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영국 보수당의 빅 소사이어티처럼 강한 국가 없는 강한 공동체란 기업 실패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공적 시스템을 중앙집중식으로 구축하는 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의 기술, 경제적 경향이 분산화를 향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이 시장거래를 대규모로

내부화하여 과거처럼 거대한 노동자 집단을 조직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기업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자본의 대규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과 노동의 외주화, 하청화, 체인화를 통해 외부화externalize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책임지는 직원'을 최소화하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엔비와 같은 플랫폼 기업화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대기업이 국가와 공조하여 강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유의해 관찰해야 할 또 다른 추세가 있다. 기존 제조업이나 금융업, 서비스업들이 계속 글로벌화·자동화되면서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람들간의 관계와 관련된 돌봄, 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는 지역화·관계친화적이 되면서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일자리가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 밀착형으로 지역화될 개연성이 높다. 여기에 덧붙여 주목해야 할 것은 태생이 분산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의 증가가 산업의 기반이면서 가장 중앙집중적 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의 지역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첨단 통신 발전의 귀결인 초연결사회가 재택근무 등 원격의 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분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중앙 집중화를 대신해 경제, 복지, 그리고 생활공간의 분산화 경향이 커진다는 사실은 공적 서비스를 과거처럼 중앙집중식 전달체계로 조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덧붙여, 대규모 기업 조직의 분할과 그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개인화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자발적인 1인 가구화, 프리랜서 노동이나 임시직 일자리 등 노동과 일의 개인화와 연결되면서 전반적인 사회관계의 단절이나 관계의 부족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가족을 대신할 친밀한 관계, 직장 동료를 대신할 사회적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 초연결사회에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역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최고의 복지는 '공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이

어주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공적 조직은 성격상 시민들의 관계까지 보살펴주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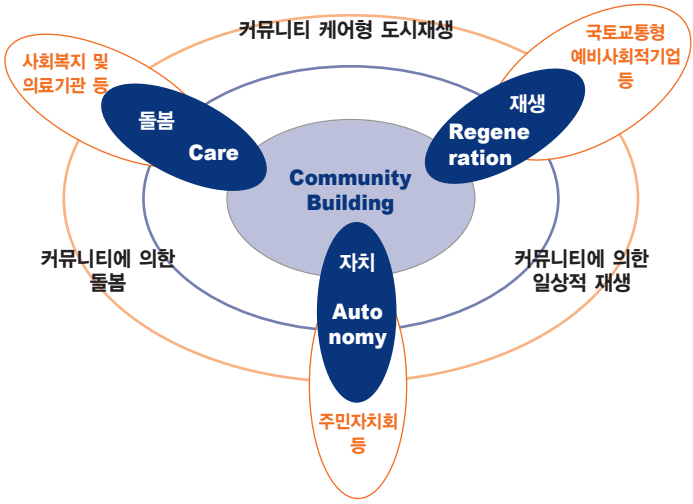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사회·경제 전반의 분산화, 지역화 경향과 함께 제기된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은 생활 반경 안의 다양한 관계와 커뮤니티를 성장시킴으로써 해소하고, 이를 위로부터의 공적 조직이 지원하고 협력하는 모델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커뮤니티가 싹터 나갈 토양이다. 우선 아래로부터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핍에서 커뮤니티가 시작'될 것이라는 다음의 주장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커뮤니티가 너무 인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도시의 코하우징 커뮤니티, 대학교 근처의 학생주택협동조합, 그리고 전원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귀농 커뮤니티들이 모두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비판 속에서도 굳건한 커뮤니티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결핍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 왜 함께 모여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왜 관계 맺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결핍에서 찾는다. 커뮤니티는 나에게 부족하고 당신에게 부족하다는 서로의 결핍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김정현·배수용, 2018)

반면 최근, 공적인 정부의 사회정책들이 커뮤니티와 결합하려는 주목할 만한 현상은 아래로부터의 커뮤니티 성장이 있을 때 이를 공적 조직들이 위로부터 어떻게 결합해 들어오려 하는지를 보여준다. 커뮤니티 기반 케어,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 밀착형 일자리, 커뮤니티 기반의 에너지 대안, 커뮤니티 기반의 생활 자치(주민자치회),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공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양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생활권에 닿아 있는 지점에서 지역의 커뮤니티와 연결을 시도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하고 섬세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계의 필요에 대처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의 복지가 물질적인 시설이나 상품보다 '관계'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현대의 일자리가 관계 밀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생겨나는 경향이 있는 한, 그리고 현대의 정치가 점점 더 생활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치를 고무해주는 한, 이런 경향은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림2〉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모형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나 공동체, 커뮤니티는 사실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또는 시장이나 기업에 대해서 주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미래에도 이런 역할은 계속되겠지만, 앞으로는 특히 아래로부터의 생활 반경에서 성장해오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생활과 노동, 자치와 경제활동 등 자신들의 필요를 커뮤니티를 통해 스스로 조직해내고 이 과정에서 공적 조직들과의 협력적 연결을 더욱 모색해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관계 해체와 고용 불안 해법의 돌파구 한쪽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 최정규 교수는 시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다시금 공동체가 희망이 될 수 있다

는 기대를 다음과 같이 압축했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는 구절이다.

>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확산 속에서 낡은 족쇄로 여겨지기도 했고, 그래서 벗어던져야 할 과거의 잔재로 간주되기도 했던 공동체가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키워드로 재조명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잠재력의 원천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최정규, 2017)

참고자료

· 김균(2013). 「이스털린의 역설과 관계재」. 『사회경제평론』 제42호.

· 김정현 · 배수용(2018). 『유럽 커뮤니티 탐방기』. 착한책가게.

·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 2000).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정승현 옮김(2009). 페이퍼로드.

· 마이클 에드워즈(Michael Edwards, 2004). 『시민사회*Civil Society*』. 서유경 옮김(2005). 동아시아.

·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 2007). 『정치철학 에세이*Thinking Politically: Essays in Political Theory*』. 최홍주 옮김(2008). 모티브북.

· 보건복지부(2018). 「"재가 ·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본격 추진」. 2018. 3.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8).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 · 돌봄 · 재생'을 위한 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2018. 9. 보도자료.

· 알프레드 챈들러(Alfred D. Chandler, Jr., 1977). 『보이는 손 1, 2*The Visible Hand*』. 김두얼, 신해경, 임효정 옮김(2014).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에릭 클라이넨버그(Eric Klinenberg, 2012).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Going Solo :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안진이 옮김(2013). 더퀘스트.

· 주성수(2018).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 한양대학교출판부.

· 최정규(2017). 「시장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박명구 · 이재열 엮음(2017).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한울.

· 진 코헨 · 앤드루 아라토(Jean L. Cohen · Andrew Arato, 1992). 『시민사회와 정치이론 1,2*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박형신 · 이혜경 역(2013). 한길사.

임경수
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공동체는 지역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한다.
그걸 찾는 유일한 방법은
본능에 기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본능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다.
팍팍한 대도시의 빌딩 숲이 아니다.
공동체가 살아 있는 동네와 마을,
지역사회다."

가짜 결혼을 하고, 일부러 강아지를 분양받아 키우고, 남이 지어놓은 농사로 수확만 해서 세끼 밥을 해 먹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TV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이다. 처음에는 이런 방송을 왜 만드는지, 왜 재미있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을 텐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한 문화평론가의 칼럼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일상이 판타지인 시대가 되었다!' 일상적이던 일들이 이제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환상이 되어 잘생긴 연예인들이 그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N포 세대에게 세끼 밥을 해 먹는 일은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 할 수 없는 환상이 되었다는 씁쓸한 내용이었다.

왜 청년들은 일상을 포기한 것일까. 다니엘 튜더Daniel Tudor는 한일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옥스퍼드 대학생으로 한국에 있었다. 한국에 매료된 그는 세계적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되어 2010년 한국특파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기자의 눈으로 본 한국은 월드컵에서 질서정연하게 열광하던 그때의 한국이 아니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Korea : The Impossible Country*(2012)』라는 그의 책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꼬집고 있다. 그나마 경쟁이 공정하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에서 출발한 사람은 중간에서 출발한 사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고, 좋은 대학에 갔다 해도 좋은 직장에 갈 수 없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해서 평생 일할 수 없고, 평생 일한다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사다리가 걷어차인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은 집과 학교,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가고 있다. '좋은 대학

에 가야 한다'는 것이 단 하나의 이유다.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그 이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말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들만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원에 보내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할 때 전셋집이라도 얻어주기 위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아래쪽에서 출발시키지 않으려고 부모들도 함께 애를 쓴다.

두 세대가 같이 쳇바퀴를 돌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다. 돌고 도는 쳇바퀴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은 그의 책 『불안*Status Anxiety*(2004)』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느낌, 그것이 불안의 원천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불안을 느낄 것이다. 일상이 환상이 되어 있는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에 사다리도 없는 사회에서 불안하지만 쳇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최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것을 포기하고 일상을 찾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로 들어오고 있다. 은퇴한 세대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치킨집을 창업하거나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겠다며 이미 지역사회에 들어와 있다. 지역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공동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역사회의 위기

여러 작은 도시에서 살았다. 춘천에서의 일이다. 큰아이가 자전거를 탈 나이가 되어 자전거를 사야 하는데 동네 자전거 가게보다 대형 마트의 자전거가 더 쌌다. 하지만 손님이 북적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많은 날을 허공만 쳐다보는 주인 할아버지 모습이 눈에 밟혀 비싸지만 동네 가게에서 자

전거를 샀다. 그 자전거와 함께 충남 서천으로 이사했다. 큰아이의 통학 수단이었던 자전거의 타이어 코크가 빠져 동네 자전거 가게에 수리를 하러 갔다. 수리하는 아저씨는 내내 투덜거렸다. 가게에 자전거를 사러 오는 이는 아무도 없고 돈이 되지 않는 이런 수리만 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서천과 군산의 대형 마트는 자동차로 불과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싼 가격에 대형 마트에서 자전거를 사지만 그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 군산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다. 지역에서 자전거를 팔고 고치던 누구의 아들이고 아버지였던 지역 주민의 생계는 그렇게 위태로워졌다.

녹차밭이 많은 남도의 한 마을에서 마을 발전 계획을 만들던 때의 일이다. 녹차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인터뷰하다가 물어보았다. 첫 번째 질문, 술은 주로 어디에서 마시나요? 인근 큰 도시의 번화가. 가까운 읍내에는 좋은 술집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두 번째 질문, 농사짓지 않는 농산물은 어디에서 사나요? 인근 도시의 대형 마트. 마지막 질문,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인근 도시의 아파트. 큰돈만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농촌 경제가 침체되어 구매할 만한 물건과 서비스를 농촌에서 얻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도 도시에서 소비를 한다. 더 불편해지면 아예 도시로 이사한다. 이렇게 농촌 인구 감소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농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다. 또한 하루 평균 3억 3,800만 원, 연간 1,234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성업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는 한복대여점이다. 2017년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가게가 있는데 대여점 사장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수요가 충분해서 추가적인 창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 한복대여점의 한복은 어디서 만드는 것일까. 대여용 한복은 시간당 1만 원 정도의 요금으로 빌려주고 20~30회 정도 대여하면 쓸 수 없어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 광장시장에서 만든 한복을 사 온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한복

을 만드는 할머니들에게 이 대여용 한복을 만들 수 없겠느냐고 물어봤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광장시장에서 사 온 한복은 고무줄이 들어간 모양만 한복인 국적 없는 옷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관광객이 전주에서 쓴 돈은 외부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지켜왔던 지역의 자존심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위기가 앞으로도 완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역의 위기를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더 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 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침체가 지방과 도시를 연쇄적으로 붕괴시킬 것을 경고한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보고서, 『지방 소멸地方消滅(2014)』의 주요한 내용은 우리에게도 예측 가능한 미래이다. 인구소멸지수로 볼 때 이미 84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건강한 인구구조에 의해 적절한 인구 규모가 유지되지 않는 지역사회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잠재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산업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산업을 지역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육성되었다. 이렇게 이식된 산업은 지역 산업구조를 파편화했고, 지역 경제는 국가 경제에 종속되었다. 그래서 대외 경제의 상황에 따라, 국내 경기의 부침에 따라 지역 경제는 춤을 춘다.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 지역의 산업구조는 국가 전체의 산업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외국 자본이 소유한 자동차 공장의 철수는 전북 지역 중소 도시의 경제를 곧바로 위기로 몰아넣었다. 건강한 생태계를 가지지 못한 지역 경제는 그렇게 취약하다.

식량, 물, 에너지와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는 기반을 라이프라인Life Line이라 한다. 지역은 이러한 라이프라인을 도시에 공급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라이프라인은 중앙에 연결하고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큰 재난에 의해 중앙에서 공급되는 라이프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사회는 이에 대응할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될 이 기술 진보는 대응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일자리 감소를 촉진할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대응할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인구 이탈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안의 실마리

경제적이라는 말을 '화폐적'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실상은 들어간 돈에 비해 산출되는 돈이 더 많은 경우에 적용하는 말이다. 화폐로 계산되지 않는 비용과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더 많은 화폐가 생겼을 때 쓰는 용어이다. 그래서 나는 경제성장을 '화폐적 발전'이라 고쳐서 부른다. 경제성장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화폐의 유통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즉, 경쟁력 있는 휴대폰 수출로 돈을 벌어서 경쟁력 없는 농산물을 수입하여 사 먹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적 발전, 다른 말로 경제성장은 그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구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21세기 자본론*Le Capital au XXIe siècle*(2013)』의 저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선진국의 과거 300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6%였고 이 절반은 인구증가 덕분이었다고 분석한다. 현재의 인구 감소 현상을 고려하면 3~4%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150년간 일본

의 경제성장은 인구 성장과 그 추이를 같이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연동되어 있다. 피케티는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율 1~2% 유지는 어렵다고 예측한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을 만들고 지원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을 만들 경우, 그 기업은 돈을 벌지 모르나 그만큼의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드릭 로르동Frédéric Lordon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세계적 석학 30명의 논문을 모은 『르몽드 인문학』의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라는 글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며 결국 기업의 수주 상황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수주 상황을 결정짓는 것은 경기, 즉 돈의 흐름이라 불리는 지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된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이익은 한 국가의 이익, 혹은 지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일갈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자원들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생태학자 최재천은 『상상 오디세이』라는 책에서 식량Food, 에너지Energy 그리고 물Water이 앞으로 부족해질 자원이라고 말한다. 그는 흥미롭게도 이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모으면 'FEW(거의 없다)'가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FEW가 few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의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자원의 한계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국가의 경제성장, 즉 화폐적 발전은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에서 중앙으로 이동시켰다. 부모들은 토지를 팔아 자식을 교육했고, 그들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그렇게 경제는 성장했고 일자리가 만들어져 가난에서 벗어났다. 이 기제가 작동하는 동안은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노동을 통해 화폐를 늘릴 수 있었다. 그렇게 화폐적

발전 모델과 화폐적 직업 모델은 맞물리면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시적인 균열은 화폐적 직업 모델의 붕괴다. 고학력 청년들이 중소 도시에서 작은 식당과 카페를 창업하거나 농촌으로 귀농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대학을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전북 완주의 작은 학교인 고산고등학교는 2018년 대학 진학 이외에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되었다. 고산면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화폐적 발전 모델이 동작하지 않자 화폐적 직업 모델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안은 현장에 있기 마련이다. 농촌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바로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의 모색이다. 홍동면 일대는 1958년 개교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설립을 계기로 주민을 중심으로 생협 활동, 문화 활동, 교육환경 조성 등 지역공동체 운동이 활발한 농촌을 만들어왔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1970년대 유기농업을 도입하여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농촌 지도자와 농촌 지역 일꾼을 양성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했다. 많은 풀무학교 졸업생이 지역에 남았다. 그렇데 지역에 축적된 인적 자원과 지역의 잠재력이 신협, 생협, 주민 주도형 어린이집, 여성 농업인센터 등 다양한 풀뿌리 농촌 자치 조직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풀뿌리 조직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가 늘고 더 다양해지면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다양한 풀뿌리 조직과 이들 사이의 느슨한 교류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무정형의 지역공동체가 지역 주민의 삶을 지속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져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선순환적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또 다른 움직임은 완주에서 일어났다. 완주군은 2008년부터 5년간 '약속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로컬푸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을 지원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여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통합했으며 마을회사육성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도농순환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완주군은 마을들을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400여 마을 중 100여 마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6차 산업에 진입한 마을은 월 매출 수천만 원과 상시고용 인원을 가진 회사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전 준비와 창업의 2단계 지원을 통해 수십 개의 공동체 사업 창업을 지원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단의 창업이 일어났다. 로컬푸드 육성 정책에 따라 전주, 완주에 8개의 직매장, 3개의 농가레스토랑, 3개의 농민거점가공센터 등을 조성하고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복지 농장인 두레농장, 다품종 소량 생산의 소농을 연계하여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작은 규모의 농사도 가능한 지역, 다양한 농산물의 가공이 가능한 지역, 농업 이외에도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을 바꾸어가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는 많은 도시민들이 이주하고 있고 또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의 대안적 움직임이 도시에서는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과 강북구 우이동, 수유동, 인수동 지역 일대의 삼각산 재미난마을에서, 농촌의 경우에는 남원 산내면 실상사 지역, 옥천군 안남면에서 일어났다. 또한 지방정부도 이러한 방식의 주민 활동을 지원하면서 서울시와 광주, 전북 진안 등에서 의미 있는 사례들을 만들고 있다.

대안의 모색과 그 수단들

위기의 지역사회는 대안적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원래 지역개발은 '각 지역이 갖는 발전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은 국토의 생산성을 극대화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토공간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개발도상 단계에서는 성장거점개발 방식을, 선진국에서는 균형발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개발은 물리적 시설, 즉 인프라 구축을 중요하게 여겼다. 도로, 항만, 철도, 통신 등 물리적 하부구조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을 성장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인력도 자본도 없었던 지역은 중앙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역개발을 이루었다. 인프라 확충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는 세계 경제의 부침, 개발도상국의 성장 등으로 산업의 이탈과 도시의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존 지역개발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라는 것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 대학, 기업, 시민단체, 연구소, 언론 등 다양한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이 연구 개발, 신제품 생산, 제도 개혁,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동적으로 협력하고 학습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역개발의 개념이 물리적 기반 중심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으로 확장된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무형적이며 비가시적인 지역사회의 규범,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을 의미하는데 지역혁신체계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또 다른 관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와 연관 되어 있다. 새로운 관점은 물리적 기반에 중심을 둔 전통적인 지역개발이든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역개발이든 시장경제 체계에서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경제는 무한히 성장할 수 없고, 기존의 지역개발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부추기면서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는 성찰에서 시작한다. 즉 기존의 지역개발이 국가의 성장을 도모했을지 모르지만 지역이 성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지역 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이 사회적경제를 만나면서 지역은 기존 지역개발의 가치와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에서 구축하려고 했던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경제에 활용하여 외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내부의 역량을 바탕으로, 역외 경제에 연결하려는 시도보다 지역 내부의 소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대한 관심보다 지역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의 첫 번째는 '마을만들기'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긴 어렵다. 일본의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여 마을만들기 운동을 촉발한 김찬호는 일본의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마을만들기)에 대해 "지역 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소개한 엔도 야스히로延藤安弘의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まちづくり読本：こんな町に住みたいナ(1990)』라는 책을 번역·출간했는데, 마침 민주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분화·확대하던 시민운동과 맞물리면서 이 책을 읽은 많은 시민활동가들이 마을과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도시에서 이루어진 마을만들기 운동은 서울 인사동에서 엿볼 수 있다. 인사동은 전통문화라는 지역 정체성과 장소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것이 북촌 한옥마을로 이어졌고 여러 도시에서 차 없는 골목 만들기, 쌈지 공원 만들기, 어린이 통학로 확보 운동 등으로 번져나갔다. 이후 대구 삼덕동과 홍대 거리문화운동 등의 특별한 사례를 만들었으며,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2010년 이후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었다.

농촌에서 펼쳐진 마을만들기 운동은 도시와 달리 정부의 정책지원과 시민운동 영역의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농촌의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비즈니

스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의 지원, 사업적 차원에서의 전문가 참여, 마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일부 농촌마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소위 스타 마을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정부 지원에 의한 농촌 마을만들기는 새마을운동 이후 마을 단위 주민 활동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경제적 관점 중심의 정책적 지원은 빠른 사업적 추진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마을공동체 정신을 훼손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두 번째 수단은 사회적경제이다.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자 참여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예산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정부는 단순히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적절한 수익을 만들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선진국 사례에 주목했다. 그 결과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했다.

시장경제의 방식대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일자리 정책을 시작한 정부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확대했고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와 같은 유사한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드는 등 새로운 개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러한 정책과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이 영역의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쟁과 선택, 집중이라는 시장경제 방식으로 조직된 일반기업과는 다른 원리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고,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는 경우도 왕왕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새로운 경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희

망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사회적경제이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한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시장경제가 이익 창출을 위해 사회에서 이탈되었지만, 호혜적이고 상호부조적인 인류의 전통적 경제가 가진 지혜를 살려 지역 중심으로 구현한다면 경제를 재사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 주체가 모여 연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즉 평등, 호혜, 나눔, 배려가 작동하는 사회적경제 혹은 협동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는 새로운 정부의 '사회적 가치' 지향에 따라 사회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공공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난제를 시민의 참여,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사회혁신추진단을 만들고 정부 및 정책 혁신, 시민소통공간 조성사업, 읍면동 혁신사업, 리빙랩Living Lab[1]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 시장과 공공의 실패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회혁신사업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재생,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지역 중심 정책들을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목적이든, 수단이든 어딘가에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과연 공동체는 만능 키가 될 수 있을까. 공동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대안

공동체라는 말은 흔히 쓰이지만 정의하기 무척 까다로운 말이기도 하다.

1 '살아 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을 가진 리빙랩은 특정 공간을 설정하여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방식이다.

가족도 공동체라 하고 지구도 공동체라 한다. 누군가는 가족보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을 지칭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른 이의 배려와 희생을 바랄 때 이 말을 쓰기도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공동체를 정의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혈연과 지역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가장 전통적이며 과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일제식민통치, 한국전쟁,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그 중요성은 감소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동체 혹은 공동체의 가치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리처럼 전통적인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생태마을운동 혹은 공동체운동이라고 부른다. 영국 북부의 핀드혼Findhorn, 호주 중부의 크리스탈 워터즈Crystal Waters, 미국의 이타카Ithaca 등 잘 알려진 사례가 있다. 30대 중반에 이와 같은 유럽의 생태마을 혹은 공동체마을을 탐방한 적이 있다. 방문한 곳마다 같은 질문을 했다. '공동체가 잘 운영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 곳의 답을 모아보니 '첫째, 공동으로 가진 것이 있을 것, 둘째, 공동으로 가진 것과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성원이 모두 함께 인지하고 있을 것, 셋째,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할 때보다 더 큰 효과가 날 것, 넷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 조건이라면 공동체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해진다. 가족, 마을, 회사에서 국가까지.

많은 공동체에서 4가지 기본 조건 이외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바로 글루Glue이다. 접착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루는 구성원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묶어내는 풀과 같은 역할을 의미한다. 아무리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는 잘 운영되지 않으며, 어떤 공동체도 완벽하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데 글루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일본

후지산 자락의 '코노하나 패밀리木の花ファミリー'라는 공동체의 글루는 합창이었으며, 미국의 '댄싱래빗Dancing Rabbit'이라는 공동체는 춤이 그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공동체운동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유지된 경우는 종교 공동체인데, 이는 종교가 글루로서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가와 어떠한 글루를 가지고 있느냐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스펙트럼을 받아들이면 주변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우리가 만들려고 했고 하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모두 공동체 혹은 공동체 활동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 운동을 해왔지만 정작 마을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과 직면해야 했다. 마을이라는 지역적이고 특별한 공간은 도시의 경우 아파트라는 무의미한 공간이 되었고, 농촌마을에서는 인구의 감소로 낙후된 채 버려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해체는 자신이 사는 곳을 아파트 건설회사 브랜드로 부르거나 마을 이름보다는 지역 이름으로 부르는 등 정서적인 해체를 일으켰다. 이는 마을을 매개로 이어져 있던 인간적인 고리마저 단절시켰고, 생활의 기반이었던 마을은 그저 잠만 자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마을의 해체가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든 농촌이든 마을 내부에는 그 정도는 달랐지만 순환적인 경제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마을에서 한 개인의 소득은 일정 부분 마을 주민의 소득으로 돌아갔고, 그것이 다시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순환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로 들어온 돈과 마을에서 창출된 가치가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된다. 마을의 경제구조가 해체되고 소비경향이 바뀌면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던 소규모 사업은 다른 마을, 더 나아가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고 심지어 거대 자본이 경영하는 대형 유통매장과 경쟁하게 됐다. 실제로 중소 도시의 상점들은 끊임없이 업종

을 바꾸면서 작은 점포로 분화하고 있고, 농촌 작은 읍내의 소규모 상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어느 누구든 거대 자본과 경쟁해야 하지만, 거대 자본이 마련한 소비시장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다시 마을을 해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거대 자본의 커다랗고 두려운 힘은 '세계화'로 미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만들기는 '외형적 만들기'가 아니라 '내용적 만들기'라는 개념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은 마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전에 마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마을 주민들의 자치, 문화, 경제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경계였다. 물질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을은 삶을 꾸려가기 위한 가장 작고 효율적인 공간 범위였다. 하지만 물질과 에너지의 자유로운 유입과 유출이 허락되고 정보가 손쉽게 이동하는 현대에서는 그런 외연적 범위가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마을만들기의 대상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실천적이고 자발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즉, 마을만들기는 그 공간적 범위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는 풀뿌리 자치운동이고, 다양성을 담보하는 주민참여 문화운동이며, 계층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 운동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기존의 마을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공동체운동으로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이 지점은 결국, '세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적 지역화'라는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 : Learning from Ladakh*(1992)』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Helena Norberg Hodge의 주장과 맞닿게 된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운동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간극을 넓히고 사회적경제와 만나게 됐으며, 공공도 시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지역공동체'라 한다면, 지역공동체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만들어낸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 사업이 씨줄과 날줄처럼 느슨하게 연결되어 명확하지는 않아도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 무정형으로 움직이는 지역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공동체가 불확실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청년들이 완주군의 중간지원 조직에서 일하는 나를 찾아왔다. 그런 청년들에게 농사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것이고 누구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농촌에서 농사와 관련된 일을 찾아내면 평생 일할 수 있다는 말로 희망을 주고자 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난, 사회에서 잉여로 불리던 그들은 내 눈길을 피할 만큼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사를 짓고 로봇이 농부를 대체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는, 이제 농촌을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야 할지, 나는 나이가 더 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도통 혼란에 빠져 몇 달을 우울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짓기 강좌를 하는 친구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강좌를 수강한 사람 중에 단 2%만이 스스로 집을 지었다고 했다. 집을 짓지 않더라도 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이유를 그는 '건축 본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짓고 만들었던 경험이 유전자 속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맞다! 우리에게는 본능이 있다. 경작 본능, 목축 본능, 요리 본능, 공작 본능, 가무 본능…. 본능으로 하는 일은 아마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나의 요리 본능이었다. 가끔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삼겹살을 접대할 때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아내를 돕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다가 시도한 일이 고기를 그냥 굽는 게 아니라 미리 양념에 재어놓

았다가 굽는 방법이었다. 가족들이 좋아했다. 시금치나물과 콩나물무침을 만들고 미역국과 소고깃국을 끓이고 파스타에도 도전했다. 먹방 프로그램을 보고 유튜브 요리 방송을 구독했다. 내친 김에 아내에게 요구했다. '부엌 관리권을 나에게 넘겨라!'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3~4일 식단을 고민하면서 장을 본다. 아침 준비가 가장 까다롭다. 아이들이 움직이는 시간에 맞추어 빠르게 부담스럽지 않은 메뉴로 상을 차려야 한다. 가족들이 출근과 등교를 하면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한 후 내 출근 준비를 시작한다. 저녁식사 준비에서 해방된 아내는 운동을 시작해 점점 날씬해졌지만 스스로 만든 음식을 버리기 아까워 내 허리 사이즈는 늘었다. 하지만 요리가 즐겁다.

최근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고산미소시장에서 열리는 벼룩장터에 나가 '한잔상담소'를 운영한다. 나는 요리를 하고 친구들이 술을 가지고 와 수다를 떨며 한잔씩 기울인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박스 종이로 만든 간판을 보고 상담을 청하기도 한다. 상담의 주요 내용은 농촌에서 집짓기, 귀농하는 방법, 아이들 교육과 진학 문제 등이다. 상담에 만족하면 조그만 돈 통에 알아서 돈을 넣고 가면 된다. 나는 그 돈을 모아 재료비를 제하고, 우리 동네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에 기부한다. 이렇게 집 안팎에서 요리를 하면서 꿈을 꾼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조그만 동네에서 심야식당을 하자.'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맛있는 요리와 한 잔 술을 기울이며 훈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행복한 상상이지만 불안하기도 하다.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귀농인이 마당에서 딴 모과로 청을 만들어 귀농인들의 소셜네트워크에서 판매를 했다. 1kg에 5,000원이었는데 이 모과청을 받은 사람들이 가격에 비해 양이 너무 많다며 걱정을 하더니, 급기야 소비자들이 5,000원만 받아도 된다는 만든 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가격을 담합하여 3,000원을 올렸다.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다. 내

가 만든 식당은 적어도 우리 동네에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믿는다.

노동만이 일이 아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도, 가치 있는 일도 일이다. 사람이 태어나 돈을 버는 노동만 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 진짜 직업은 언제 가졌던 직업을 말하는 것일까? 청년 시절에 가졌던 직업이 아닐 수 있다. 젊은 시절 가졌던 직업은 이후에 가질 진짜 직업,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본능을 펼치기 위한 사전 과정이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한다. 그걸 찾는 유일한 방법은 본능에 기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본능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다. 팍팍한 대도시의 빌딩 숲이 아니다. 공동체가 살아 있는 동네와 마을, 지역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와 마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를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본능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농촌에 농민만 살았던 적도 없었고, 농민이 농사만 지었던 적도 없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마을과 동네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주고받으며 의지하며 살았다. 이제 마을과 동네의 공간적 경계는 무너졌지만 적절한 사회적 경계 내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경험이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 셈이다. 그 상상이 이미 여러 지역을 지역공동체로 만들고 있다. 지역공동체는 오래되었고 친숙하지만 대안적인 우리의 미래이다.

박미정
아이쿱활동연합회
자치활동국장

아이쿱 모임,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가다

> 아이쿱 모임은
>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다.
> 아이쿱 모임을 통해
> 내가 속한 지역을 들여다보고
> 관심을 가지며,
>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을
> 찾아 동참했다.
> 아이쿱 모임 안에서 학습하고
> 토론하며 민주 시민으로
> 함께 성장했다.

1. 아이쿱생협의 중심, 조합원

1997년 6개의 작은 조합이 함께 시작한 아이쿱생협. 서로 협동하면서 앞을 보고 달려온 시간이 20년이다. 20년 전 변방에 위치했던 6개의 생협은 2018년 현재 28만 조합원과 100개 가까운 조합 시대를 맞이하며 한국 사회에서 생협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나'들이 함께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혁신하는 협동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이쿱iCOOP'의 이름처럼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함께 행복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고, 그 꿈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2016년 4월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회는 2018년 3월, 아이쿱 2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아이쿱사명선언문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다양한 논의 속에 아이쿱의 향후 20년을 향한 '아이쿱사명선언문'이 채택됐다. '함께 만드는 미래 아이쿱'이라는 사명은 생활의 안심, 사람중심경제, 더 나은 미래라는 3가지 비전과 비전에 따른 각각의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는 아이쿱의 미래 속에 올해 아이쿱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모임' 세이프넷SAPENet, Sustainable Society and People-centered Economy Network을 제안했다.

아이쿱생협은 다양한 시도, 큰 변화를 겪으며 현재 지점에 이르렀고 그 중심에는 조합원이 있다. '조합원 중심주의'는 아이쿱의 사업과 활동 두 축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 키워드다.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를 실천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한걸음 더', '대의원 놀이터', '협동학교', '이사코스' 등 체계적인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며 성장하고 있다.

2. 아이쿱의 모임

현재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한창이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 '모임'이다. 아이쿱은 독서, 문화, 예술, 학습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원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모임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기본은 구성원이고, 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려면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광명나래아이쿱생협 소모임 따정(따뜻한 정치)에서 기획하여 진행한 생협학교 '헌법아 놀자'

빛고을아이쿱생협 온라인 모임 필사꿈잼 주관 〈마녀체력〉 이영미 작가와의 만남

맥락에서 볼 때 아이쿱의 다양한 모임들은 아이쿱의 활발한 활동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쿱 모임은 '생협 활동의 꽃'이라고 불린다. 아이쿱의 다양한 모임은 마을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합원이 늘어나고 다양한 요구가 생기면서 소모임과 동아리로, 즉 구성원들의 취미와 배움을 위한 모임으로 확장되고 증가했다. 아이쿱에서 모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지난 2014년 〈전국 모임 토론회〉에서는 아이쿱에서 모임이 갖는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 조직 활동의 기초단위

- 지역생협의 다른 많은 활동 속에서도 아이쿱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2) 조합원과 소통하는 자리

- 지역생협의 사업과 활동을 알리고,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 지지를 얻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인 소통이 시작되는 곳이다.

3)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합의 활동 리더십을 발굴하는 공간

- 자원활동가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곳, 조합원 자치활동을 시작하는 만남의 장이다.

4) 학습하고 토론하는 만남의 공간

- 생협과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조합원 토론의 장이다.
- 식품안전, 농업, 교육, 사회, 의료, 복지, 여가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평생교육 학습의 장이다.

5)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장

- 지역 연대활동, 사회 공공성 활동, 기부, 벼룩시장, 나눔, 지역 축제, 공연 참여,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하는 활동이다.

6)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가는 장

- 일상생활 영역에서 조합원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제로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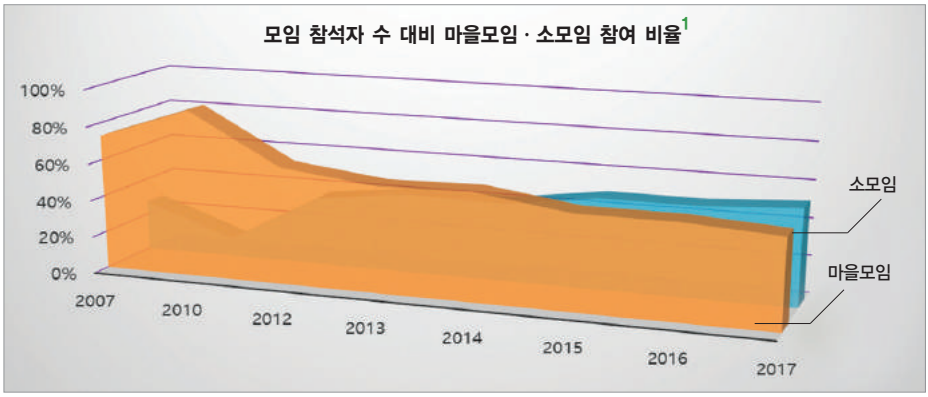
아이쿱 모임의 진행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진행된 조합원 활동과 모임이 2002년 '마을모임'으로 공론화된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동네 모임인 마을모임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지역조합과 조합원의 연결 역할을 했다. 당시 마을모임은 개별 조합의 주요한 조직사업으로 진행됐으며, 각 조직별 마을모임의 현황과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2005년 지역생협의 마을모임 및 마을모임을 이끄는 마을지기 활동 지원을 목표로 생협연합회 마을모임위원회가 구성된다. 여기서 마을지기는 마을모임에서 지역조합의 소식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모임에서 나오는 조합원의 의견(물품민원, 건의사항 등)을 지역생협에 전달하며 '소통의 장' 한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마을모임의 내용과 방향을 잡아가며 조합원들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생협을 이야기하는 중심 주체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2005년 이후 마을모임을 돕는 가이드북 제작, 마을지기 교육 지원, 마을모임 보고서 형식 마련 등 조합 활동을 정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체계화된다. 마을모임 안건지가 제공되고, 타 조합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면서 마을모임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후 2007년 전국마을모임위원회가 신설되어 회의가 정례화되었다. 이를 통해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마을모임에 관한 교육과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다. 2012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상반기 활동 평가 이후부터는 의제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위원회 체제가 팀 체제로 개편된다. 이때부터 마을모임 상임위원회는 사라지게 된다. 2014년 권역지원활동팀에서 아이쿱 기초조직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활동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을 시도하면서 각 지역생협의 다양한 모임 사례가 취합되어 정보가 공유되고, 토론회 개최 등으로 확산된다. 2015년 이후에는 모임 리더 중심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다음의 표는 개괄적으로 살펴본 지난 10년여의 아이쿱 모임 참여 현황이다. 매년 조합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모임의 참여자 수는 정체되어 있고, 마을모임보다 소모임 참여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아이쿱모임과 참가자 현황

	모임 수			참가자 수			조합비 조합원 수	조합비 조합원 수 대비 모임 참석율	모임 참석자 수 대비 마을모임/소모임 참여 비율
	마을 모임	소모임	합계	마을 모임	소모임	합계			
2007년	255	82	337	1,418	514	1,932	22,350	8.6%	73%/27%
2010년	681	195	876	4,708	2.131	5,216	85,116	6.1%	90%/10%
2012년	1,009	525	1,534	5,019	2.931	7,940	129,850	6.1%	63%/37%
2013년	1,073	768	1,841	5,956	4,222	10,178	156,666	6.5%	57%/43%
2014년	1,028	714	1,743	5,373	3,880	9,253	175,183	5.3%	58%/42%
2015년	1,067	839	1,906	5,519	5,212	10,731	194,652	5.5%	51%/49%
2016년	1,069	913	1,981	5,423	5,267	10,691	212,216	5.0%	51%/49%
2017년	945	912	1,857	4,836	5,267	10,103	228,221	4.4%	48%/52%



1 앞서 확인했듯이 지역조합에서 운영하는 모임은 안건지를 통해 조합과 소통하고 물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모임과 조합원들의 취미 활동에 기반한 소모임(동아리로 이를 지칭하는 조합도 있었으며, 소모임과 동아리를 함께 사용)이 있다. 올해부터는 마을모임과 소모임으로 구분 짓기보다 '아이쿱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합원 활동 참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모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조합원 참여 활동 지표를 마을모임, 소모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다.

3. 모임 활성화를 위한 토론

아이쿱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아이쿱에서는 2014년 11월 〈아이쿱 모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해 아이쿱 모임의 역사와 의미, 현황을 공유했고, 여러 지역조합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모임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의식도 짚어보았다.

당시 토론회에서 '아이쿱 모임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나눈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발적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아이쿱 모임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시도하자.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 파악이 중요하다. 누가 고민하고 있는가?
— 활동가로 참여, 성장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모임)지기의 정체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모임의 친목 경향성, 소모임의 문화강좌 중심의 경향성,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그리고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행복한 자치 활동
—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안에서 아이쿱 모임의 새로운 활동과 변화 도모
— 아이쿱 모임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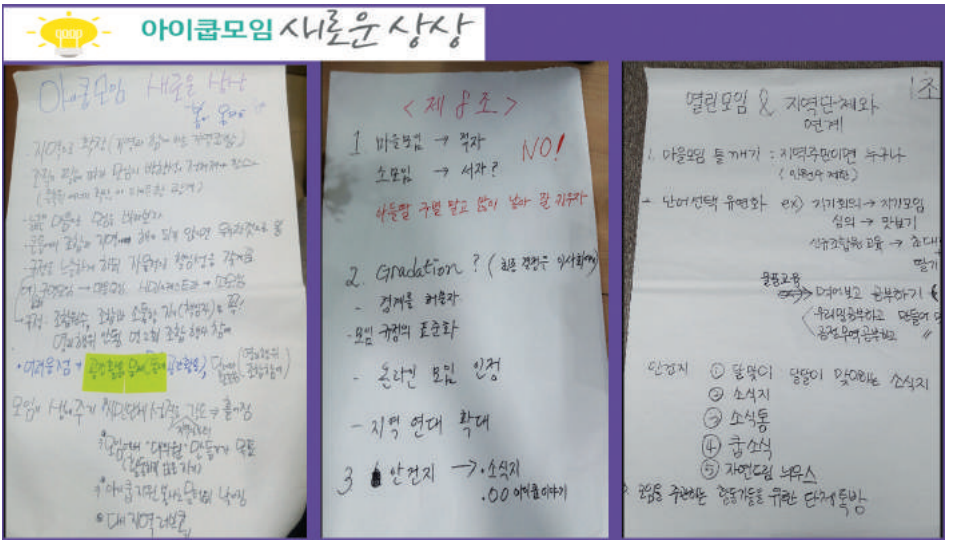
지금도 여전히 더 많은 조합원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 조합원과의 소통에 있어 첫 단추가 되는 마을모임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적인 모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는 모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2014년 토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모임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더불어 모임지기의 정체성과 역할 강화 등 모임지기가 활동가로써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담겨져 있다. 또한 모임 활동 안에서 아이쿱의 정책, 조합 활동의 내용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노력도 볼 수 있다. 즐겁게 모임을 하는 동시에 조합에서 조합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전히 그 방법을 모색 중이다. 물론 조합원의 눈높이로!

아이쿱에서 모임은 지역조합에 따라 마을모임, 동아리, 소모임 등 그 명칭과 의미가 서로 다양하다. 또한 모임 지원금, 아자 스토리(안건지) 진행 여부, 조직의 정책 소통 방식 등도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마을모임은 아이쿱의 정책 및 조합 활동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참여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 참여 정도가 높았으며, 소모임은 구성원의 취미생활에 기반한 활동으로 마을모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참여 조합원들이 조합 활동에 관심이 적다는 생각이 있었다. 실제 초기의 마을모임과 동아리는 앞서 설명한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해가 지날수록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마을모임에서도 안건지를 공유하는 것 외에 구성원들 상호간에 꾸준히 독서 토론을 하거나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편, 소모임을 통한 활동가 배출이 더 많은 조합도 더러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생협들이 아이쿱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고 제안했다. 마을모임이나 소모임에 어떤 틀을 두어 단순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아이쿱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을 상상해보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전국의 핵심 활동가들이 모여 〈모임, 새롭게 상상하자〉라는 주제로 3개 광역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향후 아이쿱 모임의 방향을 정리했다.



1. 열린 모임으로
2. 커뮤니티에 관여(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임으로
3. 마을모임, 소모임의 경계를 허물고 아이쿱 모임으로
4. 물품,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녹여내는 모임으로
5. 아이쿱의 가치를 확산하는 모임으로

조별 토론 중에 '마을모임과 소모임은 봉건사회의 적자와 서자가 아니다.' '차별 말고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키우자.' 같은 비유들이 나왔다. 조합원의 관심사나 취미 활동과 같이 개인의 취향에 바탕한 소모임은 조합의 소식과 물품에 관한 이야기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마을모임에 비해 가볍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모임의 경중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모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담긴 말에 참석자들이 함께 웃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모임과 소모임의 기준 자체가 애매해졌다. 마을모임 안에서 독서토론이 진행되기도 하고, 소모임에서도 조합의 소식과 물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합 안의 소통을 어떻게 더 적

극적으로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기도 한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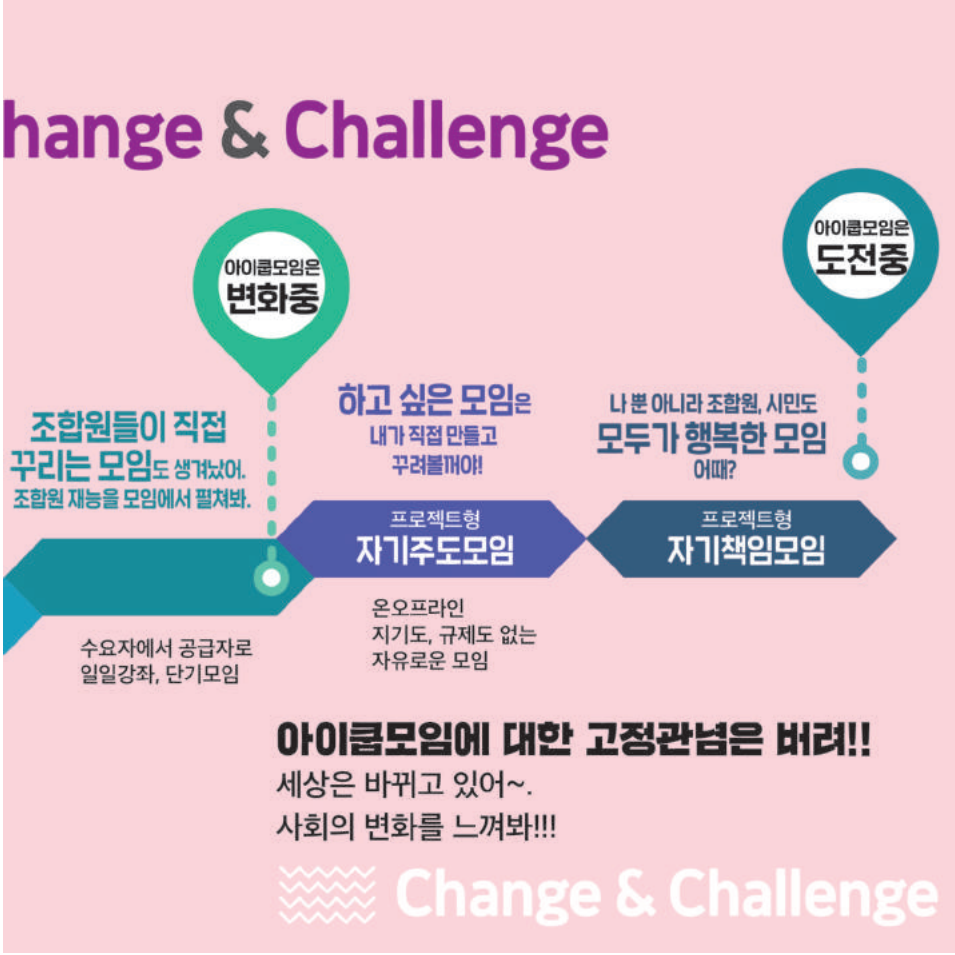
4. 새로운 모임에 대한 상상

광역별 토론회 이후 지역조합에서는 지기와 함께하는 모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모임을 지원하고 리드하는 지기가 주체가 되어 모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변화된 내용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지기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모임이 활기를 띄고 재미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토론회가 진행됐다.

위 사진은 지기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온 모임의 내용들이다. 이중 실제로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임들이 상당하다. 전국에 98개의 지역조합이 있다 보니 조합의 상황에 따라 활동이나 모임의 편차가 존재한다. 앞서 모임의 방향과 내용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조합

들이 그 사례를 공유하면, 다른 조합들이 이를 각자의 조합에 적용해보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임들이 새로운 동력이 된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모임 중에는 온라인 필사 모임도 있었다. 어떤 조합에서 시험 삼아 모집했는데 조합원들의 반응이 뜨거워 여러 개의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조합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임 만들기에 도전하



고 있다. 필자의 경우 작년 온라인 글쓰기 카페를 통해 유료로 한 달 동안 필사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혼자서는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니 강제성을 가지려 참여한 것이다. 만약 필자가 속한 조합 안에 신문의 사설을 읽고 간단히 글을 쓰는 모임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아니면 직접 모임을 만들었다면? 온라인 모임이지만 면대면 모임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관심도 높다. 온라인에서

맺은 인연으로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하니 조합원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3개월, 6개월 단위의 단기 모임 혹은 매번 바뀌는 모임도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말 그대로 열린 모임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한 번 모임에 참여한 뒤에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 없는 모임을 가져가게 된 것이다. 참여한 뒤 점차 관심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생협 활동이 시작되고 마을모임이 자리 잡은 이후 지역마다 동아리가 활성화되었다. 점점 조합원의 참여가 높아질수록 이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지원 및 소통도 활발해졌다. 현재 모임은 변화와 도전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98개 지역조합은 각각 모임의 수는 물론 활동가 현황과 그 역량이 모두 다르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활동하고 있다. 이제 막 지역 안의 나눔활동, 생활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조합이 있는 반면 이미 그 단계를 거쳐 좀 더 안정적으로 모임을 꾸려가는 조합들도 있다. 안정기에 접어든 조합들은 모임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자기주도 모임이나 일종의 프로젝트형 모임을 구성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고 조합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흐름이 변하고 조합원의 라이프스타일도 달라지고 있다.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쿱 모임도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아이쿱 모임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현재진행형이다.

5. 마무리하며

아이쿱 모임은 아이쿱생협이 현재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자 기반이다. 아이쿱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모임이기에 캠페인 등 사

회 참여 활동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이쿱의 정책이나 조합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내고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협동조합의 주인으로 서게 되었다. 아이쿱 모임은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다. 아이쿱 모임을 통해 내가 속한 지역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며,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동참했다. 아이쿱 모임 안에서 학습하고 토론하며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민주주의이다. 아이쿱생협의 모임 역시 구성원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가려 한다.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발걸음이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박희정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과 공동체 삶의 가능성

"각자 다른 문화를 체득하고
향유하고 있는 다양한 세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함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열린 태도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상상해보았으면 좋겠다.
그 가능성은 청년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효능감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난다. 쌍문동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관계 그리고 사라진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졌다. 낭만적 감수성이 다소 더해졌지만 2018년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드라마의 장면들 중 서로 준비한 반찬으로 한 끼 밥을 나누는 모습이나 길을 걷다가 10보 20보마다 눈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회상하게 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생경하게 느껴진 장면이었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고 지금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18년 한국 사회는 식민지와 전쟁, 독재를 경험했던 세대와 유튜브 개인방송으로 소통을 하는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공동체 문화가 현재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다. 혼밥과 혼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SNS 소통이 익숙한 지금의 청년들에게 공동체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이미지일까.

요즘 청년

요즘 청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삶을 이해해야만 함께할 수 있는 삶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청년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사회에 진입하여 경제 성장에 한몫을 감당하며 자기 자산을 축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나갔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열정과 패기, 도전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던 청년에게 새로운 단어가 붙었다. 바로 실업이다. 당시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루 만에 직장을 잃은 우리 아버지들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꽁꽁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갈 곳을 잃고 기약 없이 취업에 매진하는 청년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후 청년 세대를 명명하는 용어들은 '88만원 세대'에서 '3포세대'로, 다시 'N포세대'[1] 등으로 진화하며 시간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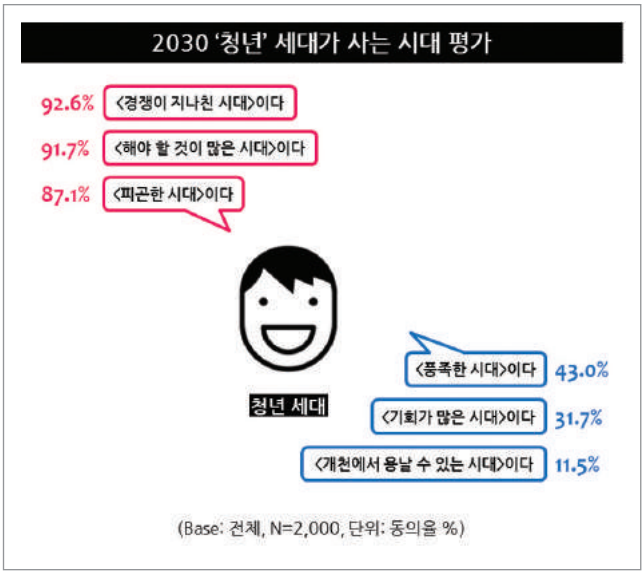
날수록 좌절감이 느껴지는 말로 바뀌어갔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만 19~5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와 베이비부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2]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청년 10명 중 9명 정도가 현 시대를 '경쟁이 지나치고'(92.6%), '해야 할 것이 많으며'(91.7%), '피곤한 시대'(87.1%)라고 평했다. 어릴 때부터 '인in 서울' 4년제 대학만을 강요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버텨온 청년들에게 졸업 후에는 또 다른 경쟁의 문이 열린다. 명목 실업률은 2017년 4월 기준 11.2%에 달하고 체감 실업률은 20%에 가깝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기별 공채 시즌에 맞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다. 토익점수, 자격증, 공모전, 어학연수, 인턴십, 봉사활동, 심지어 창업 경험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들은 '남들 다 하는 만큼'은 기본으로 채워놔야 서류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에 하루하루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력서를 20개, 많게는 50개씩 쓰다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을 때가 많다. 이런 청년들에게 지금의 사회는 '풍족한 시대'(43%), '기회가 많은 시대'(31.7%),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시대'(11.5%)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는 물고 나와야 변변찮은 일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돈 있는 사람들만 쉽게 살아갈 수

1 '88만원 세대'는 2007년 전후 저임금노동과 비정규노동으로 착취당하는 한국의 20~30대를 지칭하던 용어로 2007년에 출간된 우석훈과 박권일의 책 『88만원 세대』에서 처음 쓰였다. '3포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전통적 가족 구성에 필요한 세 가지를 포기하거나 미룬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다. 'N포세대'는 3포세대를 넘어 주거, 인간관계, 꿈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화에 내몰린 청년층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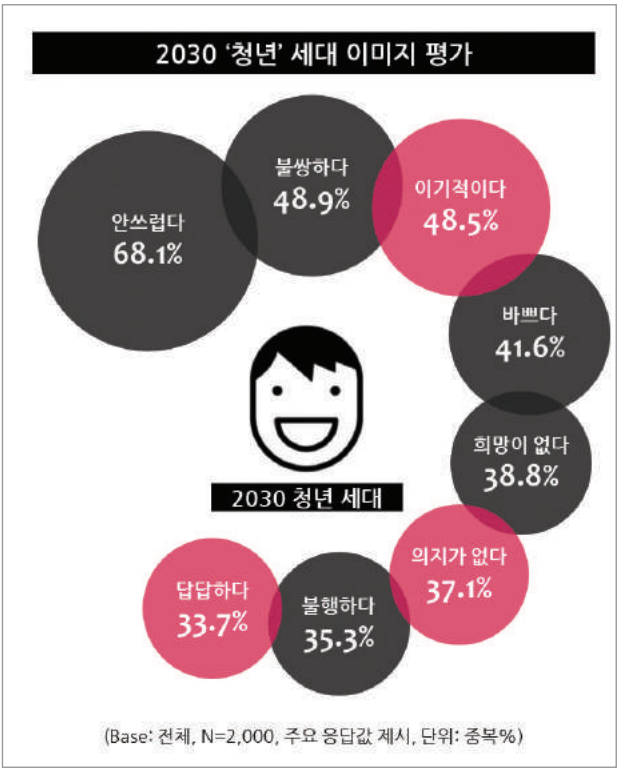
2 출처 :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컨텐츠사업부 트렌드모니터 (2015).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325&code=0404&trendType=CKOREA

있다'(85.7%)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이 좌우된다는 인식은 청년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준다.



그렇다면 요즘 청년들에 대한 다른 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청년 세대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는 안쓰럽다(68.1%)는 것이었다. 하지만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은 '이기적이다(48.5%)', '의지가 없다(37.1%)', '답답하다(33.7%)'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다. 또한 트렌드모니터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연령층일수록 청년 세대가 이기적이고 의지가 없다는 등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런 청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어느 세대든 각자 삶에서 큰 시련과 고충을 안고 살았고, 또 살고 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지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한 베이비부머세대(50·60대)에게, 취업이 어려워 좌절하는 청년 세대가 쉽게 포기하거나 의지가 없는 세대로 생각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어려운 사회 상황 속에서도 대기업에 취직했다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어느 지인의 자랑을 듣고 있자면 내 자식은 의지가 없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다. (사실 청년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인식에 하나하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만 맥락 상 넘어가기로 한다) 문제는 지금 사회 상황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좌절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네 의지가 약해서', '네가 노력을 덜해서'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은 '꼰대'일 뿐이고, 그들이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릴 뿐이다. 자신들이 하는 조언을 '잔소리'로 듣고 무시하는 청년을 보는 50·60대는 청년들이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어' 보인다.

공동체와 커뮤니티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이토록 큰 상황에서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해가 쌓인 상태에서 서로는 교류를 멀리한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인식 차이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생 청년들에게 이웃의 존재는 낯설다. 또래 집단이 모여 있는 학교 외 다양한 세대가 함께 만나는 공동체 경험이 거의 없다. 게다가 3~4인 가족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1~2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주거 형태 또한 늘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많지 않고,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를 한다. 2년 후에는 헤어질 사이인데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우리 집이 이사를 가지 않고 머물러도 옆집은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주거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청년 세대의 주거 환경은 더욱 취약해진다. 3평 남짓한 고시원,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 외진 위치와 취약한 방범, 소음에 노출된 거주지 등 청년들이 경험하는 주거 형태는 이웃과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조금이라도 이질감이 덜하도록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커뮤니티가 아닐까 한다. 공동체를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는 공동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집단적이고 강한 연결망이나 소속감이 아닌 비슷한 관심사와 취미, 취향으로 묶일 수 있는 소모임 같은 작은 형태를 의미한다. 삶의 기본적인 여러 조건들뿐 아니라 인간관계마저 불확실한 미래로 미뤄둔 청년들에게 강한 연결망은 너무 부담스럽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동체라고 하여 바로 엮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모임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의 커뮤니티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년들 스스로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만들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은 피곤한' 청년들에게 커뮤니티가 필요할까? 욕구할까? 지극히 개인적 의견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 커뮤니티는 필요하다. 청년들이 공동체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감각을 온라인으로 배운 것은 아닐까. 랜선 너머의 소속감, 공동체 감각은 있지만 실제 오프라인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드물어 낯설 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땐 혼밥, 혼술을 하면서도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공유한다. 댓글을 통해 SNS 친구들과 소통한다. 오프라인을 통해 채우지 못한 것을 SNS로 적극 자기 어필하고 랜선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티 욕구의 단초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누군가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기를 바란다. 사회의 관계 안에서 나를 규정하고 역할을 찾으며 자기를 찾는다.

지금 청년 세대는 나로써 존재하고 싶고 또 나로써 존중받고 싶다. 개별의 자기주체성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 존재의 인정이 집단 내 소속에 대한 거부는 아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사고가 아니다. 온전히 나를 인정받으면서도 혼자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어한다. 누군가에겐 말장난 같은 모순으로 보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크게 공감하는 부분일 수 있다. 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가 바쁠 땐 이웃의 손에 돌봐지고 배고프면 옆집 친구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던 시대를 살던 세대와, 온전히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필요한 소통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해온 세대가 같은 인식을 가질 수는 없다. 이는 살아온 시대의 사회·문화적 경험치를 그대로 흡수한 각 세대별 문화적 차이가 아닐까.

'어슬렁반상회'에서 만난 청년들

어슬렁반상회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소모임 지원사업의 이름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슬렁반상회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언급하고 어슬렁반상회에서 만난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청년 세대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미취업 기간이 늘고 있다. 일자리의 수는 정해져 있고, 당해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점점 늘고 해가 바뀌면 또 다시 취업해야 할 청년들이 생겨난다. 일자리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은 계속 늘고 있다. 더불어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교육제도를 벗어나 취업 이후 4대보험 등이 보장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진입하기 전,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은 어떠한 사회제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인의 부담이 늘 뿐 아니라, 집안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취업 준비 상황에도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청년의 사회 진입 과정을 돕기 위해 생겨난 것이 서울시 청년수당이다. 만 19~29세 청년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하루 3시간의 자기 시간을 주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3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진로를 결정하거나 구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어슬렁반상회다. 어슬렁반상회는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관심사별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많은 청년들이 어슬렁반상회 모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났으며,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함께한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다.

처음에는 취업이나 창업, 진로 모색 등 사회 진입을 위한 활동으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슬렁반상회가 호응이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나 역시 당시에는 청년들에게 관계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

었다. 하지만 어슬렁반상회를 시작한 지 3년 차, 청년들은 모임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어슬렁반상회는 10명 내외 소규모 멤버가 5~8회 정기적으로 만나는 주제모임, 20명 내외가 하루 특별한 모임으로 만나는 동네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네모임에 참여했던 청년수당 참여자는 3시간의 만남을 가진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제가 바라던 건 특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몇 시간 온전히 집중해서 다른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매일 책이랑 동영상 강의랑 씨름하다가 사람들하고 만나 대화하니까 살 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동네 또래 청년들과 같이 밥을 만들어 먹으며 사는 이야기, 요즘 고민 등을 나눴을 뿐인데 그 3시간이 정말 행복했다는 것이다. 소소하지만 혼자가 아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한 자리를 여건이 된다면 마다할 청년은 없을 것이다. 단지 아직 일도 못 구했는데, 내 몫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고 용돈을 주는 가족에게 눈치가 보여서 커뮤니티를 멀리할 뿐이다.

어슬렁반상회 '소소한 드로잉'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커뮤니티 모임이 청년들에게 남긴 것

특별할 것도 없는 어슬렁반상회 모임에 청년들이 시간을 내고 꾸준히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른 이들과 만나 무언가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를 것이다. 특정한 몇몇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얻어 가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어슬렁반상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남겨준 후기다.

어슬렁반상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구들이랑 나눌 수 없는 고민을 나누기 좋고 대화가 통하는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로 어슬렁반상회 '사소약속'이 끝났다.
혼자서 하긴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소소한 것을 약속해서 지켜나가게 하고, 그로 인해 얻은 자신감이 끝끝내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되는 힘을 이끌어내리라는, 그런 기대였을 거란 이야기다.
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보다 모두와 했던 약속을 지킨 사람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나를 선택하고 싶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긍정적인 사람이게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다.
그러다보면 언젠간 내 안의 비관이 깨져나가지 않을까.

가장 힘들고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는 기간이었다. 하지만 어슬렁반상회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치유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한결 나아진 것 같아서 값진 기간이었다.

이들 청년들은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만나고 있다.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화하기 편한 사람들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커뮤니티가 지속되다 보면 서로의 고민을 알게 되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 같이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대가 비슷하다는 데서 오는 위안이 더 크다. 그렇다고 커뮤니티 모임이 심리적 휴식만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모임 안에서 역할을 맡아 일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어슬렁반상회의 '자취영화'라는 모임은 참여자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짧은 영화를 제작한다. 한 청년은 그 모임을 통해 우연히 연출을 처음 맡게 되었고, 영화 연출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다. 모임 안에서 자기 효능감을 크게 느낀 사례다. 어떤 형태든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이라면 참여하는 청년이 흥미를 느끼게 되고 시간을 내서 모임에 더욱 적

어슬렁반상회 '자취영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무언가를 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맛보고 자신의 일상을 재구조화하는 일도 소중하다. 그런 성과를 보인 모임도 많이 있다. 어떤 모임에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정한 작은 실천들(예를 들어, 8시 전에 일어나 아침밥 먹기,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기 등)을 꾸준히 실행에 옮겼다. 그 과정에서 불규칙한 생활로 좋지 않았던 몸 컨디션이 괜찮아지기도 하고, 소소한 성취감이 쌓여 긍정적인 자기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 어슬렁반상회 모임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겪었던 후기와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어슬렁반상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커뮤니티는 관계와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활발해질 수 있다. 청년들은 관계와 활동이 잘 어우러진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한다.

공동체라는 장벽

많은 청년들이 자기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청년들의 커뮤니티 모임 참여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이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커뮤니티 모임에 재미를 느끼고 효용성을 충분히 알고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들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 한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살아온 과정에서 남들과 대화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그 소중함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다. 관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첫 번째 미션이 '생존'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선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충분히 바쁘고 피곤한데, 다른 곳

에 에너지를 쓸 겨를이 없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소통을 위해 들이는 품과 시간은 살아남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여유로 해석될 수 있다. 당장 내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 성취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사치처럼 느껴진다. 다른 누구와의 관계 유지조차 힘든 상황에서, 공동체에 속하는 삶은 버겁게 느껴질 뿐이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10년 단위로 다르게 불리는 세대가 각각 가지고 있는 시대감각은 상이하다. 공동체가 익숙한 중장년 세대와 그렇지 않은 청년 세대는 향유하는 문화부터 차이가 있다. 지금은 트렌드 흐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향유되는 문화의 텀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급급하다. 중장년 세대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고 그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며 함께 향유했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체화하여 활용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온라인 상의 소통이 이들에게는 더 편한 툴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한 자신을 포장해서 대화하고 자기를 어필하는 말 걸기가 트렌디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이었다면, 요즘은 신경 끄기 기술이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거절하기 같은 기법이 트렌드이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빠르게,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없다. 공동체가 가진 힘이나 효과를 체득하지 못한 채 성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공동체는 고루하다는 이미지, 참견 받고 구속되는 느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년들은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고 스스로 느끼지만 그렇다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내 고민을 함께 들어줄 몇몇이 필요할 뿐 공동체라는 집단적 소속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공동체의 가능성

청년들이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더욱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맺음 없이 삶을 살아나가기 어렵다.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 소속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게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의 내 역할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오는 성취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것이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 맺음을 통해 채울 수 있다. 관계나 정보 등은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가령 이사를 해야 할 때 부동산 어플을 통하면 쉽고 빠르게 집을 구할 수 있지만, 시각적 정보 외의 다른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집주인의 성격, 주거지의 장단점, 동네의 안전 정도 등은 살아본 사람, 이미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다.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은 혼자가 익숙하다. 이들에게 공동체에 속해보라고 권유하는 것은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참견과 관심은 한끝 차이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서로를 얼마나 알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불편한 참견은 관심이 될 수 있다. 각자 다른 문화를 체득하고 향유하고 있는 다양한 세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함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열린 태도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상상해보았으면 좋겠다. 그 가능성은 청년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효능감에서 찾을 수 있다. 관계 맺음에 익숙지 않은 청년들이 다른 누군가와 공통 관심사로 시작한 커뮤니티 모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점차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경험을 하면서 공동체에 차츰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를 살아내기에도 벅

찬 청년들에게 왜 함께하지 않고 개별화되어 있는지 물을 것이 아니라, 포용적 사고로 청년들의 세대적 경험과 환경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이다. 공동체의 시작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이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 커먼즈의 위상

> 비물질 혹은 디지털 커먼즈는
> 결국 물질 커먼즈보단
> 조금은 느슨한 결속을 갖지만
> 커머너들 사이에 사회적 증여와
> 답례의 호혜성을 함께 가동하면서
> 비물질 공유 자원을 관리하는
> 협력의 네트워크이다.
> 또한 이 비물질 커먼즈는 증여 문화적
> 전통과 많은 부분 빼닮았지만
> 공통 자원의 영향력이나
> 가치 확산 능력에서 보자면
> 이전의 호혜의 선물경제 모델을
> 더 확장한다.

여는 글

오늘날 자본은 물질 형태의 부와 자원에 대한 배치뿐만 아니라 비물질 정보/지식 영역에까지 내밀하게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물질 영역만 보자면, 이미 토지와 도시 설계 공간의 구획은 잘 꾸며 차려진 전경과 구조적으로 꽉 짜여 있는 지배의 디자인 아래 있다. 대도시 속 막개발과 재개발, 도시 재생, 약탈 지대, 환경 파괴, 슬럼화와 식민지화, 젠트리피케이션, 국가 통치와 스펙터클의 도시 설계로 탄생한 정제되고 구획된 대도시, 체제의 도시, 자본의 도시 등 배제와 불평등의 공간 구상은 이미 과잉 상태다. 역사적으로 보면, 물질적 부로써 토지 등 자연자원을 호시탐탐 사유화해 이로부터 독점적 이득을 취하거나 통제하려는 내·외부의 약탈자와 침입자는 늘 득시글거렸다. 비자본주의적 삶을 이끌거나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던 경향이나 흐름들이 무차별적 사유화 논리인 '종획enclosure'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갔던 것이다.

물질 생태계의 사유화 논리는 또 한 번 비물질 형태의 자원과 인류 공통의 부에 대한 '종획'으로 확대해갔다. 무엇보다 무한 복제와 한계비용 0의 비경쟁적 재화의 특징을 지닌 정보와 지식에 대해 종획이 어려울 줄 알았지만, 현대 자본주의 권력은 주로 '지적재산권'(법)이나 '코드'(기술)를 갖고 강제화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분화되고 촘촘해지면서 비물질 공통 자원에 대한 재산권 강제를 수행하는 무기가 되었다. 더구나 정보와 지식의 재산권이 기술 코드라는 잠금장치와 함께 작동하면서 인간 고유의 창·제작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자본 종획의 구조적 흐름 속에서도 새로운 자율과 공생의 협력과 대항의 논리를 세우려는 '커먼즈'의 새로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비물질 혹은 디지털 커먼즈의 위상에 집중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정보와 지식 자원의 시민 공통재적 가치, 더 많은

공생공락共生共樂의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구성할 수 있는 비물질 커먼즈의 가능성과 역할을 짚어보고자 한다.

협력적 공생의 커먼즈

물질과 비물질의 종획 질서의 도래는 사실상 테크노-자본의 가치 확장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새로운 대안사회 구성의 논리를 키우는 계기도 됐다. '커먼즈' 개념은, 사유私有와 공유公有의 기존 지배적 소유 논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른 협력적 공유共有 관계 속에서 공생공락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의 상상력을 가능케 하고 있다.[1] 즉 민영화나 사유화에 대항한 공적 가치(공공성)에 대한 투쟁에 비해 여전히 미약하지만, 시민자산화에 의한 총유總有나 동료들 사이의 협력과 공동의 소유에 기반한 커먼즈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

'커먼즈the commons'는 원래 원시 태초 상태, 즉 인간의 노동이 투여되기 이전, 인간의 경작 이전, 상업경제 이전, 인간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 장치를 가지고 행하는 제도 이전의 원시적 상태를 뜻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 속 물질과 의식의 그린벨트 지대에 대한 막개발과 지식 사유화 과정은, 현실적으로 순백의 외딴 섬이나 밀림과 같은 진공의 순수 야생 상태의 것이란 거의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딘Garrett Hardin이 오판했던 주인 없는 '공유지의 비극'[2]을 막기 위해서라

1 국내에서 '커먼즈'는 '공유지' 그리고 '공통적인 것', '공통재(계)', '공동자원(론)', '시민자산', '공유자원', '사회연대경제' 등으로 번역되거나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고 있다. 가령, 하트와 네그리(2008, 『다중』, 조정환 외 옮김, 갈무리, 21쪽)는 '커먼즈'와 '공통적인 것'을 구분해보기도 한다. '커먼즈'가 전前자본주의적 문화인류학적 공유지들의 향수 속에서 논의되는 것을 비판하고 이들에 대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구성적 발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개념적으로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개념들 사이에 맥락 차이와 상관없이, 아직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관계로 '커먼즈'를 대표어로 쓰려 한다.

도, 오늘날 커먼즈 논의는 대개 지배 자본의 사적 이익이나 국가의 공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다원적 시민 구성원이 관리 유지하는 '공동자원론'[3]으로 쓰이고 있다.

문화인류학자 하이드Lewis Hyde는, 커먼즈를 '함께com-' '의무를 진다는 under obligation/ duty' 뜻의 '무니스munis' 혹은 '무너스munus'에서 온 '무니아munia'가 모여 이룬 말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다.[4] 커먼즈는 단순히 원시의 물리적 장소 혹은 텅 빈 데이터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미 그곳에 특정의 사회관계가 존재하고 그것의 이용을 조직하는 구성원 공동체의 '권리' 개념이 굳게 터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이드는 커먼즈란 말에 공통의 의무를 감수하고자 하는 소속 구성원들의 유·무형 자원 관리의 맥락이 이미 새겨 있다고 본다. 커먼즈는 인간의 작위를 기다리는 대상화된 순수 상태의 명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권리 행사의 동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커먼즈를 점유하는 이들은 단순히 내부 유·무형 재화와 자원의 소비자가 아닌 책임과 권리를 지닌 능동적 참여자일 수밖에 없고, 그 운영은 한 사람 이상이 참여해 함께 일구는 공동 관리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커먼즈는 이렇듯 딱히 주인이 없는 특정 자원을 단순히 지칭하기보다는, 이를 관리하는 사회적 관계이자 자원을 둘러싼 공생의 방법론에 가깝다.

커먼즈는 이를 꾸리는 커뮤니티 성원들, 즉 '커머너'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일련의 이용과 의무의 권한을 지정하여 유지하는 공유 자원의 관리 체계인 것이다. 커먼즈는 이렇게 한 사람 이상이 참여해 유·무형의 자원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협력 체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

2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Issue 3859. pp. 1243–1248. 그리고 하딘의 '공유의 비극'을 비판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1990)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윤홍근 · 안도경 옮김(2010), 랜덤하우스) 참고.

3 이노우에 마코토 편저 (2008). 『공동자원론의 도전』, 최현 · 정영신 · 김자경 옮김(2014). 경인문화사.

4 Hyde, Lewis (2010). *Common as Air : Revolution, Art, and Ownership*. Farrar, Straus and Giroux.

의를 따르다보면, 기존의 생산 조합 모델과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커먼즈는 동료끼리 부와 자원을 평등하게 재분배하고 커뮤니티를 재생산하는 행위를 넘어 그와 같은 협력 문화를 사회적 공생의 가치로 확산하는 지향성까지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돋보인다. 무엇보다 커먼즈의 사회적 가치 목록에는, 협력적 자원 생산의 민주적 재분배는 물론이고, 커먼즈들 사이 협력의 네트워크, 비자본주의적 혹은 대안사회적 공생의 미덕 등이 포함된다.

비물질 혹은 정보/지식 커먼즈

커먼즈의 현재 모습은, 꽤 종류가 다종다용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는 특수한 형태의 공통 자원들의 관리 방식인 경우가 흔하다. 일반적인 커먼즈의 유형 분류를 따르자면, 손쉽게는 자원의 속성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이를테면, 물질과 비물질 자원에 기댄 커먼즈가 그 기본일 것이다. 자율주의적 시각에서 하트M. Hardt와 네그리A. Negri는[5] 1) 지구와 에코 시스템 2) 비물질 자원 3) 물질재 4) 도시-지역 사회적 영토 5) 사회기관·서비스 자원으로 나눴다. 바우웬스Bauwens와 라모스Ramos(2018)에 의한 분류에서는[6] 전통적인 자연자원 커먼즈, 사회 커먼즈(사민주의 노동자 연대 등), 지식 커먼즈(인지자본주의 이후 급증), 도시 커먼즈(팹랩, 공동 작업 공간 등)를 들고 있다. 비슷한 논의를 주도하는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는, 원주민 자급의 토지나 어로 커먼즈, 디지털 커먼즈(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GPL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5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17). *Assembly*. Oxford University Press.

6 Bauwens, Michel and Jose Ramos (2018). Re-imagining the left through an ecology of the commons: towards a post-capitalist commons transition, *Global Discourse*. 8(2): 325-342.

CCL 등), 사회 커먼즈(시간은행, 혈액 및 장기기증 시스템 등), 국가 신탁 혹은 범지구적 커먼즈, 지각과 존재 방식으로서 커먼즈(세계관, 사회적 태도, 삶의 방식 등)로 좀 더 세분화해 나누고 있다.[7] 이 글에서는 커먼즈 자원 분류 틀에 크게 매달리지는 않지만, 정보 자본주의 국면 이래 아이디어, 이미지, 코드, 디지털, 정보, 정동, 창작 등을 기반으로 하는 비물질 커먼즈의 증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간단히 살피려 한다.

이미 오늘날 대부분의 실물 생태자원이 시장의 영역으로 흡수되고 편입되면서 물리적 커먼즈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히 힘든 일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는 막개발의 광풍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끊임없는 확대로 인해, 시민 자율의 대안적 공통 공간과 자원을 구성하는 일은 더욱 더 요원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시장 권력에 의한 커먼즈의 훼손 혹은 잠식을 막을 시민 자산과 공동 자원의 새로운 구성이 절실하다.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이미 피폐한 물질 공유지의 제2, 제3의 종획에 대항해 새로운 물질 커먼즈의 상상력을 발동하는 일, 다른 하나는 공유지 이론가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부차적 관심사'로만 취급했던 또 다른 정보와 지식 커먼즈를 좀 더 궁구하고 확장하는 일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존재했지만 신자유주의 국면 이래 자본에 점차 흡수되거나 외면되어왔던 "비시장적 사회 교환, 즉 선물(증여) 경제, 비공식적 협업, 새로운 형태의 집합행동"[8]을 발굴해 새로운 커먼즈의 생애사를 쓰는 일이다. 최근 사례로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경의선 공유지 코뮌,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 청년 주거공간 실험, 공동체 은행 빈고, 농지 살림 운동, 인천 배다리 공유지, 예술가 커뮤니티 자립의 공유성북원탁회의, 사회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서울혁신센터, 새로운 협동조합 실험, 특정

7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 2014). 『공유인으로 사고하라*Think Like a Commoner*』. 배수현 옮김(2015). 갈무리.

8 데이비드 볼리어, 앞의 책. 166쪽.

마을 공동체의 공동 토지 매입 후 공동 자산화하는 실험 등을 꼽을 수 있다. 처음부터 이들 운동들은 커먼즈 아래 '모여, 땅'하지 않았으나, 커먼즈의 결절점들이 되면서 생성적 방식으로 비자본주의적 가치들, 이를테면 자립, 자치, 공생공락, 생태, 호혜, 우정, 나눔, 선물 등을 실제로 하나둘 구현하고 있다.

비물질 커먼즈는 어떠한가? 물질 커먼즈의 사유화나 공적 통제에 비해 비물질적인 정보와 지식은 쉽게 재생산이 가능하고 나눌수록 그 효과가 점점 확장된다. 그 특성으로 인해 자본의 종획이 강제 개입하지 않는다면 쉽게 '공통적인 것'으로 가치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네그리와 하트는 이 점에서 비물질 커먼즈의 시민 공통 자원의 위상을 잘 내다보고 있다. 잘 알려진 한 대목을 옮겨보자.

> 정보·코드·지식·이미지·정동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배적 생산 형태에서는 생산자들이 공통적인 것—특히 그 사회적 형태인 소통네트워크들, 정보은행들, 문화적 회로들—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함께 더욱 많은 자유를 점점 더 필요로 한다. 예컨대 인터넷 테크놀로지의 혁신은 제한되지 않은 네트워크들 속에서 서로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에, 그리고 공통적인 코드와 정보자원에의 접근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탈중심화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의 모든 형태는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수반하든 아니든) 자유와 공통적인 것에의 접근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생산되는 것—아이디어, 이미지, 정동 등—의 내용은 쉽게 재생산(복제)되기 때문에 이를 사유화하거나 공적 통제 아래 두려는 모든 법적·경제적 노력에 강하게 저항하는 경향, 공통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9]

9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Antonio Negri · Michael Hardt, 2009). 『공통체*Commonwealth*』. 정남영 · 윤영광 옮김(2014). 사월의책. 19쪽.

"로고스가 모든 인간에게 공통의 것the logos being common to all"이란 오래된 명제처럼, 비물질 커먼즈는 인간에게 근원적인 공동의 지적 자원이자 새로운 문명 축적과 자유로운 의식 교환의 처소이다. 가령, 오래전부터 인류 사피엔스 종에게 의식, 정보, 지식을 함께 나누는 일, 그리고 이를 사회와 후대 인류로 전승하는 증여 행위는 가장 탁월한 문명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날 동료들 간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결과물의 나눔과 공유는 범지구적 규모로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와 의식의 공유와 증여 행위 또한 물질 커먼즈의 자본주의적 사유화, 종획 과정과 비슷해져간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의식 영역을 (빅)데이터 상품 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를 물질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체제 내 (지식)재산권으로 취급하는 불운의 역사적 과정이 급속히 진행된 지 오래다. 정보와 지식은 자유로이 서로 나누는 것에 그것의 사회적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더 내밀하게 기술적 장치와 코드 속에 가두고 특정의 추가 법제도의 규제 아래 이를 감금해오고 있다.

비물질계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70~80년대 극소전자혁명 이래 디지털 정보 가치 생산이 물질계 논리에 맞먹을 정도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노동과 비물질적 가치 모두를 강력하게 비상업화"하고 이용자 모두를 위한 공통의 자원이 되는 성격으로 인해, 비물질 커먼즈는 크게 확장했다.[10]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지적재산권은 과거 15세기 영국 종획의 폭거에 의해 무참히 커먼즈를 파괴했던 것처럼, 호혜성과 증여의 비물질 가치를 또 다른 '제2의 종획the second enclosure movement'의 틀 아래 가두려 했다. 비물질 자원들은 기술 코드와 각종 법을 통해 사적 재산권이 행

10 미셸 바우웬스 · 바실리스 코스타키스(Michel Bauwens · Vasilis Kostakis, 2014).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 윤자형 · 황규환 옮김(2018). 갈무리. 146쪽.

사되는 자본시장의 영역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 〈표1〉에서 오른쪽 열은 자본의 재산권 논리와 구별해 '카피레프트copyleft' 문화로 불리는 디지털계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카피레프트'의 전통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개해 때론 지배적 시장 논리를 빗겨가면서 인간 창·제작을 배양하는 중요한 출처가 됐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의 자유문화를 상징하는 공통의 자원들은 많은 부분에서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치 생산과 포획 체제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추세다. 가령,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해 일어나는 대중의 자유로운 (빅)데이터 활동은 많은 부분 자본의 시장 논리 아래서 변주하다가 이내 크라우드crowd 저 너머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한때 과도한 지식재산권에 대항해 지식 혁명과 다양성의 문화를 주도하던 복제 문화가 데이터 자본의 순환 기제로 포획되고 있다.

〈표1〉 주류문화와 자유문화[11]

자본 논리 (주류문화)	정보/지식 논리 (자유문화)
대량생산, 소비자본, 통제정치	반권위, 전복, 문화정치
오리지널, 진본, 원본	복제, 카피, 리믹스
진실, 근원, 진리, 창조(무), 불연속성, 단절	변화(형), 일시성, 연속성
기독교적, 창조, 혁명, 원형	불교적, 파괴(해탈), 반복(윤회), 모듈(재생산 가능한)
주관, 배제, 초월의 논리	개방, 포괄, 즉시성의 논리
기념, 박제, 보존, 격리	복제, 잡종, 재생산, 유포
지적재산권과 기술 코드	또래 간 협력 생산과 공동 소유

11 표의 개념들 일부는 한병철(Han ByungChul, 2011. *Shanzhai : Dekanstruktion auf Chinesisch*, Berlin : Merve Verlag / 2017. *Shanzhai : Deconstruction in Chinese*, tras. by Philippa Hurd, Boston, MA : The MIT Press)의 '산자이(山寨)' 문화에 관한 해석으로부터 가져왔다.

이젠 카피레프트 문화가 모든 이에게 득이 되고 지식 사유화의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메시지조차 통용되기 어렵게 됐다.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상황의 악화는 물질 재화만큼 비물질계의 구체적 커먼즈 비전 구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단순히 카피레프트의 전통에서 정보와 지식이 방어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을 넘어서서 사이버 시민 자신이 인류의 자유로운 의식의 자율적 커먼즈를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커먼즈 이론가 제임스 퀼리건James Quilligan이 언급했던, 이제 더 이상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공적'이란 말이 사회 생태적 요구를 표현하는 공동체적 활동이 아니라 국민이 통제권을 넘겨준 중앙관리 능력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보자면[12] 더욱 더 정보 커먼즈의 시민 자치와 자율에 기댄 자치 비전이 중요하다고 본다. 엄혹한 자본의 종획 아

〈표2〉 디지털계의 시민 공통적 자원들

기술혁신 디자인	패킷스위칭, 분산형 모델, 한계비용 0, API, 모질라 프로젝트, 애드호키즘, 토렌트, 메시네트워크, 블록체인, 리눅스커널, 아파치 웹서버, 우분투, …
복제 문화	복제, 산자이, 전유, 혼성모방(미메시스), 시뮬라크르, 문화번역, 전용, 패러디, 리믹스, 매시업, 콜라주, 브리콜라주, …
협력과 공유 문화	또래 협력(P2P) 생산, 쉐어링, 위키피디아 모델, 자유/오픈소스 운동, …
반(反)지적재산권 운동과 문화정치	카피레프트, 오픈 엑서스, 해커 행동주의, 해적당, 문화간섭(cultural jamming)과 문화행동, 전술미디어, 적정기술운동, DIY(자가제작) 문화, …

12 Quilligan, James B. (2013). Why Distinguish Common Goods from Public Goods?, David Bollier and Silke Helfrich (eds.). *The Wealth of the Commons : A World Beyond Market & State*. Levellers Press.

래 놓였지만 그 가운데 도모하는 물질 커먼즈의 최근 증가하는 실험들에서처럼, 국가 정책에 크게 기대하거나 자본의 논리 구도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카피레프트의 막연한 전망보다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정보와 지식 커먼즈의 위상을 다시 새롭게 구축해 나가려는 적극적 개입의 정서가 필요하다.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비물질 자원들은 이미 시장 자본의 기제로 포획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디지털계는 다양한 형태의 자유 문화적 자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커먼즈 생성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들 시민 공통의 비물질 자원은 자본에 의해 훼손되면서도 동시에 그 소유 관계에 저항하는 경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자본은 역설적으로 이 비물질 공통 자원들에 의존해 사적 축적을 증가하려 하지만, 비물질 자원 생산의 사회적이고 협력적 경향 또한 점점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13] 가령, 이와 같은 공통의 문화적 자원들에 기반한 정보와 지식 커먼즈의 사례들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 구텐베르그, 위키피디아, 지식저장소The Knowledge Conservancy, 인터넷 아카이브, 과학 퍼블릭 라이브러리, 사이언스 커먼즈, 뉴로커먼즈 프로젝트, 스노우든 아카이브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실상 이들 비물질 커먼즈는 물질 커먼즈에 비해 소속 커머너들의 물리적 결속력이 떨어진다. 가령, 물질 커먼즈는 호혜적인 방식의 공동 소유가 주요 기제이지만, 정보 커먼즈는 주로 구성원 사이 명예와 증여에 의해 작동한다. 즉 물리적으로 묶여 있지 않은 속성이 상대적으로 성원들의 내적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듯 보이지만, 비물질 커먼즈는 명예에 의해 지식을 재생산하고 이를 커먼즈 바깥에 퍼뜨리는 사회적 '증여gift' 효과 면에서 탁월

13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 2010). 「묵시록의 두 얼굴 : 코펜하겐에서 보내는 편지(Two Faces of Apocalypse : A Letter from Copenhagen)」,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위한 에세이』. 연구공간 L 엮음(2012). 난장. 146~147쪽.

하다. 물질재의 공유는 개별 커머너 구성원들 내부 자원의 평등하고 균형 잡힌 분배 등의 관심에 머무르는 경향이 크다. 물질 커먼즈에서는 자원의 이익이 내부에 머물러 그 성과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주로 물리적 장소성의 제약과 자원 희소성 때문이다. 반면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마치 물, 공기, 불과 같아서 플랫폼이나 저장소 등 지식 커먼즈 안에서 잘 관리된 무형의 자원이 바깥 익명의 제3 향유자와 창작자에게 확산되거나 파급력이 더욱 광대하다. 즉 공유지 내부는 물론이고, 바깥으로의 사회적 증여 효과에 좀 더 민감한 것이다.

인류학자 모스Marcel Mauss가 자본주의 경제의 예외 상황으로 봤던, 부족민들 사이의 증여 문화는 오늘날 비물질 커먼즈에 오히려 곧잘 들어맞는다.[14] 모스는 문화인류학적 '증여'의 과정이 주기, 받기, 답례라는 3중의 의무과 규칙에 의해 당시 커먼즈를 구성한다고 봤다. 즉 증여자는 인정, 명예, 권위, 신용, 자발성 등의 동기로 자신을 방문한 수증자에게 환대를 베푼다. 환대의 수증자는 언제든 증여자에게 감사와 답례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의무는 유대, 호혜, 사랑 등에 이끌린 감사와 답례를 동반할 때 그 둘의 상호 존중 관계가 완성된다. 이 같은 문화인류학적 증여 문화는 디지털계에서도 잘 작동한다. 오픈소스 공동체에서 누군가 명예를 위해서 코드를 짠다면 다른 커머너가 증여에 답례하는 방식은 소프트웨어의 개방과 자유 철학을 받아들여 그 호혜, 환대, 유대를 다른 오픈소스 소속원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확대해 나누는 일이다. 실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라이선스 규약 체계 GNU GPL을 보자. 우리는 자유·오픈소스FOSS 공동체의 커머너들이 자원을 관리하는 이 커먼즈 라이선스 모델에서 증여-수증-답례라는 선순환의 부족민 커먼즈와 꽤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공동체의 커머너들은 명예를 위해 자발적으로 코드를 짜고 수정하고 갱신하며, 최초 코드 작성의 개방과 호혜성을

14 마르셀 모스(Marcel Mauss, 1925). 『증여론*Essai sur le don*』. 이상률 옮김(2002). 한길사.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비물질 자원을 사용한다는 책무를 받아들인다. 더불어 커먼즈 바깥에 머무르는 누군가 또한 이 협력 생산의 철학과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정해 쓸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답례의 의무를 지는 사회적 환대와 증여의 커뮤니티 성원이 될 수 있다.

나오면서

종합해보면, 오늘날 정보와 지식의 공통 자원과 문화는 비물질 커먼즈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전제일 뿐이다. 언제든 이들 자원은 닷컴 자본의 종획이라는 폭력 앞에 재물이 될 공산이 크다. 집합적 주체들에 의한 자원 관리의 사회적 관계 구성과 협력 체제 없이는 혁명의 비물질 자원들은 쉽게 탈취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 커먼즈는 단순히 이와 같은 비물질 자원 혹은 "상품이 아니며 소유의 언어로 환원될 수 없다."[15] 즉 디지털 자원은 이를 협력적으로 운용하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 굳건히 서 있을 때만이 명실 공히 커먼즈라 불릴 수 있다. 비물질 혹은 디지털 커먼즈는 결국 물질 커먼즈보단 조금은 느슨한 결속을 갖지만 커머너들 사이에 사회적 증여와 답례의 호혜성을 함께 가동하면서 비물질 공유 자원을 관리하는 협력의 네트워크이다. 또한 이 비물질 커먼즈는 증여 문화적 전통과 많은 부분 빼닮았지만 공통 자원의 영향력이나 가치 확산 능력에서 보자면 이전의 호혜의 선물경제 모델을 더 확장한다.

여전히 아쉬운 지점은, 시장 주체들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감각과 달리 국내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물질 재화에 비해 무형의 디지털 혹은 비물질 자원을 부차적 관심사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실지 국내 커먼즈

15 피터 라인보우(Peter Linebaugh, 2008). 『마그나카르타 선언 :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The Magna Carta Manifesto :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정남영 옮김(2012). 갈무리. 22쪽.

운동의 경향도 도시 물질계의 농지, 토지, 빌딩, 주거, 임대, 빈민 생존권 문제 등에 상대적 쏠림 현상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첨예의 자본 지대地代 수탈지에서조차 물질 재화들이 비물질계와의 직·간접적 관계 속에 놓이거나 때론 비물질 자원의 영향 아래 현실 재화나 자원이 (재)배치되는 현실에 있다. 우리는 테크놀로지 사용자들이 블로그나 지도 혹은 모바일 앱에 매기는 별점, 평판, 후기, 댓글, 좋아요 등 스마트 장치들에 의해 부동산 시세나 가게 프리미엄 등락이 좌우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비물질계만 들여다봐서도 답이 나오지 않을 영역이다. 아마도 향후 분석은 물질계the physical와 디지털계the digital가 서로 교직하는 '피지털계the physital'의 상호 직조와 역학을 주로 봐야 할 듯싶다. 그렇지만, 이 영역은 물질과 비물질 생산과 재화가 지닌 고유의 논리 경계 밖에서 이 둘이 마주치거나 효과를 주고받는 지점이어서 여간해서 드러내기 어렵다. 향후에는 물질과 비물질의 두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배합되면서 출현한 이 새로운 피지털 국면의 동시대 자본 운동 기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요구된다.

특집

사회적경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느슨한 연대로 만드는 환대의 공간

좌담

참석 **박동광** 무중력지대 성북 센터장
송건 도봉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유한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혁신활동가
장인권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연구원/ 뉴스사천 시민기자
조완석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사회
조금득 『생협평론』 편집위원

때 2018년 11월 20일(화)

곳 NPO지원센터

사회 오늘 이 자리에는 시대의 변화와 청년들의 감수성 변화 등을 지역 활동 속에 각자의 방식으로 담아내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각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경험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송건 도봉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며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민간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에서 2년 전부터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이어서 설립 초기 설정한 사명이 '서로를 돌보는 지속가능한 마을'과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경제'입니다. 전자는 마을 활동을, 후자는 사회적경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개별 의제로 분리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를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관의 예산이 할당되다 보니 그에 따른 성과 요구에 대한 압박으로 본래 추구하려던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의 물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적인 성장이 이뤄진 거죠. 이제 막 마을과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분들은 개인의 관심과 흥미로 접근하곤 합니다. 이들이 건강한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점차 관심사를 확장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실제로 내 필요를 넘어 우리의, 지역의 필요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주민 손으

송건 도봉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개인과 공동체, 사회가 각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상호 존중하고 다양한 시도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숙한 개인주의는 분명 이기주의와 다릅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하죠. 공동체는 물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먼저 이런 닫힌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로 만든 마을학교 '도봉형 혁신교육'이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단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모임의 성장 단계를 씨앗기-새싹기-성장기로 구분해서 봅니다. 사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모임이 순차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아요. 현실과의 부대낌 속에서 점진적으로, 때론 어느 단계를 건너뛰면서 나아가기도 하죠.

얼마 전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멈춰보다'〉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사회, 교육, 마을주민자치, 청년으로 세션을 나누고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서 이야기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단위의 당사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펼쳐갈 수 있는 지점들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완석 30년 전 과천에서 한살림을 만난 이후 현재는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으로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생협 매장이 없었습니다. 생협 물품을 공급받으려면 다섯 가구가 모여야 했어요. 요즘 그때를 종종 떠올립니다.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한살림 활동의 기초 단위는 마을모임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을모임이 존재하지만 4~5년 전부터 모임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을모임에 함께 모여 한살림 물품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이죠.

마을모임 참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에는 마을모임보다는 소모임, 동아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살림성남용인에서는 어르신 대상의 아카데미 프로그램(모여라! 60+, 꽃보다 시니어) 진행 후 꽃살림마을모임, 영유아 어머니들의 모임 등 개인의 특성이나 취향에 따른 모임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한살림이라는 전체 공동체 차원의 논의가 훨씬 더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그런

특징은 옅어지고 있어요. 개인의 성향에 기반한 모임이 훨씬 다양하죠.

그리고 한살림의 모임이 어느 순간 한살림 조합원들끼리의 모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마을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한살림의 모임이 한살림만의 모임이 된 것은 아닐까 싶은 거죠. 지역과의 밀착성이 갖는 중요성을 몇 년 전부터 깨닫고 꾸준히 한살림의 문턱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어요. 지역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만들려는 거죠. 우리 지역의 여러 가게들 중 하나로 한살림이 인식되도록, 지역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적경제 운동이 막 활성화되던 5~6년 전에는 지역에서 맏형, 맏언니 역할을 한살림이 해주길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한살림이 먼저, 더 가까이 지역에 다가가야죠.

요즘에는 생협에서 준비한 강좌에 왜 조합원들이 오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동안 매장 사업이 확장되고 규모화되면서 조합원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만 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한살림 안에서 자율과 자치를 어떻게 실

조완석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환대의 정서로 지역에 다가가야 합니다. 커뮤니티 안의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을 인정해야 커뮤니티 안에서 혼자 또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장인권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연구원
뉴스사천 시민기자

'개인이 변하면 조직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개인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사회적경제 조직이 연결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공동체, 선물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요. 한살림 매장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물어봤는데 어떤 조합원이 '내 또 다른 부엌'이라고 이야길 하더군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한살림의 매장과 활동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합원이 단순히 매장을 찾는 고객이 아니라 매장 운영의 주체가 되고, 또 매장은 지역 활동의 소통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살림성남용인 전체 조합원이 약 5만 7,000명인데요, 매장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조합원 수를 살펴보니 약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매장에 따라 조합원들을 나눠보니 22개 지역으로 구분이 됐어요. 이제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물품 선정, 행사 진행, 매장 운영,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인권 지역 자활센터에서 15년간 일을 하면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복원하거나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공동체는 선물을 공유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선물이라는 개념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부를 묻고 서로 인사하고 왕래하는 무형의 것을 포함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활센터에서 서민,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소외된 이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몇 년간 운영했는데요, 이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유·무형의 선물을 제공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천은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아직은 혈연, 지연 같은 연결고리가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비교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편으론 공동체를 잘 꾸릴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10년 전 시민 주주들의 참여로 '뉴스사천'이라는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공동체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지요.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3년 전부터는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사회적경제사업단이 꾸려지면서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상실한 공동체의 결속을 가져올 수 있는 매개체로 역할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변하면 조직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개인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사회적경제 조직이 연결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공동체, 선물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개인도 아니고 단순히 부분의 합도 아니며, 전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

한다면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조금득 『생협평론』 편집위원

사회 박동광 님은 성북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무중력지대 성북'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며 지역과 청년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계신데요, 요즘 만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동광 청년 공간을 청년 당사자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무중력지대 성북[1]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태어난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그들의 감수성과 제가 갖고 있는 감수성은 또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 다양한 프로젝트로 알게 되는 파트너들을 통해 시대정신이 무엇일지 해석해 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세대의 시대정신은 '그런 것 따위 없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고 이를 균질화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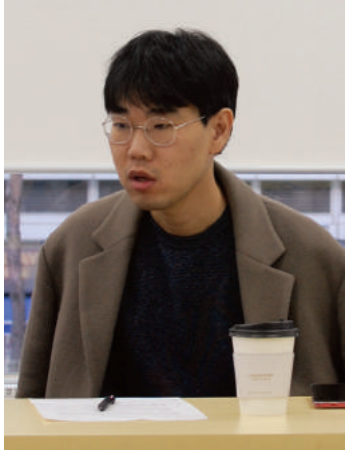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시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질서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 입장에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

1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장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무중력지대 성북은 올해 6월 개관했다.(출처 : 무중력지대 홈페이지 https://youthzone.kr)

가기 어려운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취약하죠. '나 혼자 산다'는 TV 프로그램 속의 사람들은 자유롭고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립된 개인이고 싶지만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30대인데요, 저희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도,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것에 욕심내기보다 일상을 즐기고, 만족하며 사는 기술에 대한 학습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그 어느 시점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또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대의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처럼 어느 한 곳에 정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절약하면 30~40대에는 내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 안착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보니 어찌 보면 이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니멀리즘이라기보다는 생존 전략으로, 가볍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는 거죠.

요즘의 커뮤니티는 마음과 생각을 가깝게



박동광 무중력지대 성북 센터장

사회적경제나 공동체 담론이 이제는 일종의 라이프스타일로 접근되지 않는다면 추후 생명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가치에 먼저 동참하여 모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가치를 발견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가져가는 곳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한창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자주 찾았어요. 서로의 '삽질'을 나누고 위로하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일하면서 겪는 고뇌를 자유롭게 글로 남기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는 동네에서 나눌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론 더 깊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저는 성북에서 일하면서 여기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부르게 됐고, 20~30대 동네 친구들이 많아졌죠. 마음이 가까운 커뮤니티가 몸까지 가까워지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 생존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명에 따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요.

무중력지대 성북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성북 권역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한두 시간 거리에 거주함에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런 분들이 핵심 구성원으로 남게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청년들이 동네살이를 맛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동네살이의 즐거움을 알아갈 기회를 사회적경제에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학교, 직장 공동체 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면 쉽게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지역 안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겪는 고통을 줄이면서 일부 비용을 상쇄하고, 또 퇴근 후 마음 맞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얻는 즐거움으로 일부 비용을 상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셜 비즈니스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유한밀 저는 왜 공동체여야 하고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과연 당연한 것인지를 묻게 된 거죠. 강한 연대로 묶여 개인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공동체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요즘 많은 분들이 '느슨한 연대'라는 이야기를 종종 꺼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가 갖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인의 자유가 인정받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민달팽이주거협동조합의 대안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는 동시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에 대한 욕구가 함께 모여 사는 것에 대한 제 필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주거권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는데, 개인이 존중되는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자생적인 커뮤니티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야 사회적경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적경제를 만들면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만들어진다고

유한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혁신활동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며 커뮤니티를 확장해가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모여야 하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음을 각자가 체감하고 인식해야 지역으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말이죠.

서대문구와 포스코가 함께 협력해서 서대문구 안에 '청년누리[2]'라는 청년쉐어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뒤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나눔카 주차 공간을 두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거나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며 커뮤니티를 확장해가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모여야 하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음을 각자가 체감하고 인식해야 지역으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나눠 주신 이야기들 속에 '가치'라는 공통의 이슈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가치에 대해 세대별로 서로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어떠신가요?

조완석 요즘 조합원들은 한살림에서 진행하는 조합원 활동을 사업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을 사업화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자율성과 자치권에 대한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부터 이런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왔지요. 그러다 올해 정책적으로 풀어가야겠다는 이야기까지 전개됐습니다. 조합원의 핵심 활동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다른 고민도 있어요. 한살림 안의 다양한 조합원들과 어떻

2 공공(서대문구청)과 민간(포스코1%나눔재단) 그리고 시민사회(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만들었다. 올해 6월 입주자를 모집했다.

게 소통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조합원 성장 모델을 구상했었어요. 작업물 초안을 조합원 그룹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누군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성장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요. 어느 순간 조합원들을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송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꼰대가 되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제 안에 계몽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찰하게 됩니다. 지역에는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분절된 의제로의 접근이 아니라 융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의 연대도 그런 맥락에서 전개되어야죠.

사회적경제와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흔히 스페인 몬드라곤 모델, 이탈리아 볼로냐 모델, 캐나다 퀘벡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유형을 그동안 관심 있게 살펴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추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성과 사회적경제가 맞물리는 지점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풀어내기에는 당사자의 상황이나 지역의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자꾸 그것을 쫓아가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요.

도봉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주체 역량이 높다고 평가되는 지역입니다만 내부에서는 무리한 속도 내기와 하향식 접근에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을 풀어가면서 청년들에게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변화에 대한 요구에 비해 아직은 주체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의 욕구, 정치적 지형의

변화 등 변화가 너무 빨라요. 아래가 탄탄해야 하는데 위에서 자꾸 영향을 주면서 사회적경제가 일종의 트렌드처럼 취급되는 것에 우려가 있습니다.

장인권 한 달 후면 50세가 되는데 제 스스로는 중간세대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선 이야기에서 청년들의 고민에도 공감이 됩니다. 20년 동안 제가 갖고 있던 고민 역시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함께 가져가는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방법이 사회적경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저는 관계의 가치, 역설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학습해온 가치 모델은 이분법적인 논리였습니다. 개인 아니면 집단, 증여 아니면 교환 이런 식이죠. 두 가지를 결합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전체를 위하고, 돈도 벌면서 사회도 변화시키는 것 말이죠.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일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동체가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을 외면했다기보다 시대적 요구 속에 깊이 있게 조명해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존중에 대한 이슈가 지난 촛불혁명과 미투Me Too운동에서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사회적경제 영역에 건강한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공동체의 관계의 가치, 역설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고요.

저는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니 5단계로 나뉘더군요. 공동체주의–결사체주의–연대주의–협동조합주의–사회연대경제가 그것입니다. 최근 이야기되는 사회연대경제는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기반해서 만들

어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해주셨지만 마음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 훨씬 더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서로 조화롭게 구체적인 공동체를 꾸려가는 모습을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개인의 행복과 사회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이야기를 들으니 개인의 욕구나 가치가 실현되면서 동시에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양한 필요를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유한밀 저는 쉽게 모이고 쉽게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모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 되면 흩어져서 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TF팀이 흩어지지 않고 다른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여 있지 않고 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하나는 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에 대해서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 협업하고 협력해서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개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요.

송건 개인과 공동체, 사회가 각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상호 존중하고 다양한 시도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숙한 개인주의는 분명 이기주의와 다릅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위와 책임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해

석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하죠.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는 것에 우리 사회 구조가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는 물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먼저 이런 닫힌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자유로운 개인이면서 사회적 연대와 책임에 무관심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봐요. 저는 지역에서 여전히 사람을 키우고 이들이 잘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쑥 개입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새로운 태도를 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공동체를 통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방식은 변화된 흐름에 맞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인권 기존의 목적지향적이거나 결정론적인 태도가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역효과를 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가 깊게 뿌리내린 수직적 모델보다는 잔가지를 여럿 뻗어 확장하는 수평적인 모델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분명 풍성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걱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접어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목적지향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한편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꾸려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퀘벡의 대표적인 민간 거버넌스 기관에는 지역공동체개발공사CDEC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간지원 조직에 시민사회 단체가 결합된 형태로 지역의 협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직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곳인데

요, 지역 공동체의 누구나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있어야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이 공생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두 가지 형태의 조직 모두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페미니즘, 생태주의 관점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지금 세대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삶을 살려는 이들이 만드는 새로운 조직이야말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이고 활동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박동광 저는 최근에 대안적인 소유 구조를 공부하면서 생협에 가입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거리 운동 관점에서 시작한 생협이지만 제 또래 친구들이 생협이나 공정무역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먹거리와 생산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나 공동체 담론이 이제는 일종의 라이프스타일로 접근되지 않는다면 추후 생명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가치에 먼저 동참하여 모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가치를 발견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즐거움을 느낀 뒤에 농촌과 사람을 살린다는 가치가 따라오는 것이죠.

무중력지대 성북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는 개인 트랙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 누구든지 모여서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구조였는데요, 3명 이상 누구든지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혼자서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그래서 시작한 혼자 시작하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진행 과정이 꽤 재밌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는, 혼자 시작한 참여자들이 또 혼자 참여한 누군가와 접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동료들을 만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서 확인된 이야기들을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로 어떻게 전이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무중력지대 성북은 공간이지만 그 역할은 미디어와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소식을 듣고 나누며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삶의 답안이 오지선다형 안에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50개, 100개로 늘어나야 합니다. 주관식의 삶은 복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50개, 100개가 넘는 많은 선택지 중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인한다면, 나 역시도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인턴을 하거나 우리 동네에 위치한 생협 매장에서 자원 활동을 하며, 나에게 매력적인 삶을 찾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트렌드처럼 취급되어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 내린 사람들의 시도로 쌓여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따로 또 같이’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좌담회에 관한 소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건 도봉구의 경우 연대와 협력이 생협 단위에서도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이더군요. 역사와 규모를 갖춘 단위에서 숙의와 연대의 지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쇄된 공동체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을의 관점에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연대의 경제, 협동사회 경제를 어떻게 일궈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조완석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이해하기에 앞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서 와, 함께 살자'라고 환대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이러한 환대의 정서로 지역에 다가가야 합니다. 커뮤니티 안의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을 인정해야 커뮤니티 안에서 혼자 또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유한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고, 함께 무언가 도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는 거죠.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평등, 민주적 운영 등의 기본적인 가치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연하지만 놓치고 있는 요소들이 나에게,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광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네에 살기 시작하면서 흠 있는 상품이지만 이를 만든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소비하는 것의 즐거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부대끼며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나니 '손해를 봐도 괜찮다'에서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손해라는 것이 존재할까'라고 생각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확장시켜 생각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장인권 협동조합에 관한 인상적인 정의 중 하나가 『몬드라곤에서 배우

자』라는 책의 저자인 윌리엄 푸트 화이트William Foote Whyte가 내린 '인간 내면으로부터의 절규가 만들어낸 사회적 발명social invention'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애써 사람들이 발명해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경제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있어, 주어진 자본주의 모델에 저항하는 것, 또 저항에 끝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주류 모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지만 진정한 발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생의 가치에 대한 의미 부여, 행동하고 느끼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사회적 발명과 실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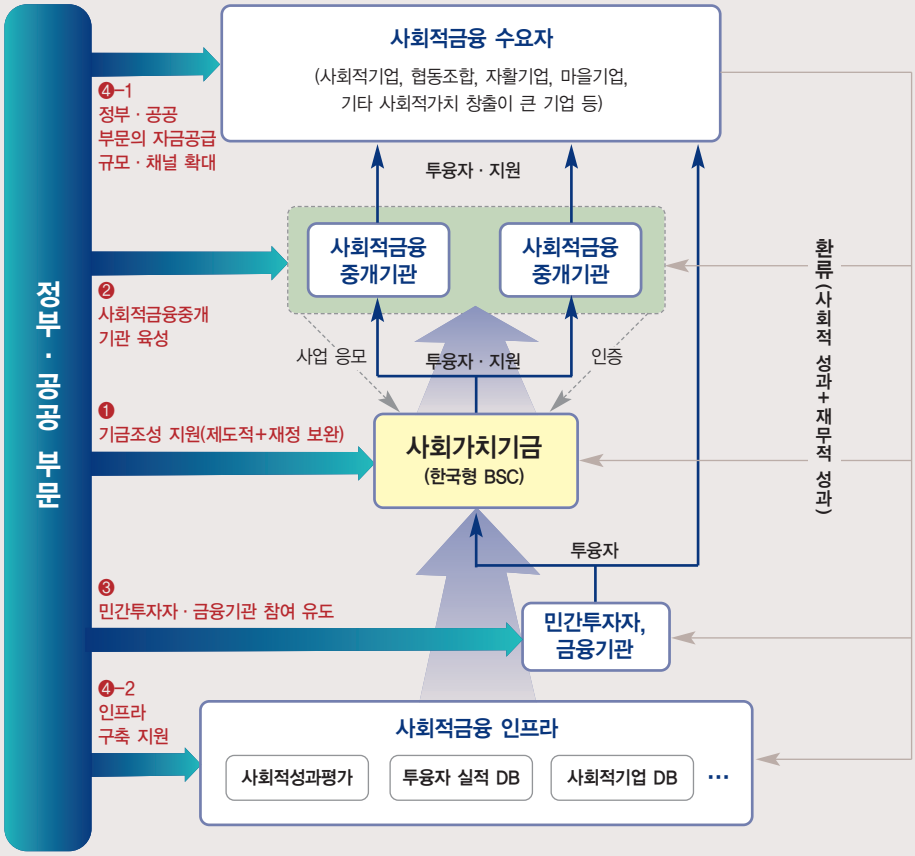
사회 다양한 논의를 앞으로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슈

닻을 올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출처 :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2018. 2.)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1] 출범

정부는 지난 2월 최종 확정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매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2월 말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립한 이후 10개월 만인 올해 12월에는 도매기금이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인가를 마칠 예정이다. 기금운용 주체의 법인격, 이사회 구성, 사업 방향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추천자,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전문가 등이 추진단에 참여하여 매달 논의를 진행해온 산물이다. 과연 출범할 도매기금은 어떤 모습일까?

1) 자금 조달 및 운용 측면에서 장단점

추진단은 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자금 조달 및 운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 형태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재단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과 기부로 주요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금융 중개기관[2](이하 중개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을 경감해주는 것이 도매기금의 역할이라면, 출연과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도매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다.

반면, 재단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및 공공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참고

1 영문명은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2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2.8.)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직접 심사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소매금융회사를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으로 표현하고 있음.

로 출자와 출연은 다른 개념이다. 출자는 돈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고, 출연은 돈만 지원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자금 10억 원, 출연금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면 출자금 1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며, 출연금은 그냥 주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소유권은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본 기금에 참여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재단이 중개기관, 프로젝트에 직접투자 시 의결권 주식 5%를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펀드투자나 무의결권부 우선주 등은 제한이 없으며, 일정한 조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조항)을 갖출 경우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는 유관 부서의 해석이 있다. 결론적으로 도매기금에 민간 자금이 출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내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업 법제화를 통해 새로운 법적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 재단법인의 이사회 구성 현황

일반적으로 재단은 설립 시에는 재산출연자(설립자)의 의사를 따르나 설립 이후에는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가 된다. 따라서 재단 이사진 구성은 기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초기 이사진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 3인, 사회적경제 전문가 1인, 금융 전문가 1인, 준비 과정을 총괄해왔던 추진단장 1인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도매기금이 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기금에 출연하게 될 상호금융회사 관계자 1~2인을 포함하여 출연금 확보 과정에서 출연기관들이 희망하는 경우 이사회 참여가 열려 있다. 민·관이 공동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정부 대표 이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노동

계와 시민사회계도 참여시키고자 하는 포부도 있다. 다만, 도매기금과 사업적으로 협력하게 될 중개기관은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도매기금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3) 도매기금 핵심 사업

첫째, 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인내자본을 공급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지역, 업종 등의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을 포괄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다양한 중개기관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개기관이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도매기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참고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의 경우, 손실 발생 시 후순위-선순위 출자자 순으로 분담한다.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지분율에 따라 우선 손실을 분담하고, 후순위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 시, 선순위 출자자가

3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한다. 도매기금은 후순위 출자자로 사회적금융 시장에 참여하여 인내자본을 유연하게 공급하도록 한다는 원칙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별 균형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역 밀착형 중개기관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협업을 추진한다는 방향성도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에 중개기관과 협력하여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금융 시장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 자금 조달력이 우수한 중개기관이 부재하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중개기관이 단독으로 투자자금을 모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도매기금이 직접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다만, 도매기금과 소매금융기관(중개기관)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의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예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사업을 민간자본으로 먼저 수행하고, 사회성과 목표 달성 시 정부가 민간 투자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호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②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제공하거나 지역공동체들이 연대를 통해 공유자산을 매입(지역 자산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금융 시장의 실핏줄 역할을 할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시장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의 영세한 중개기관이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적정한 운영 수수료를 지원한다. 사회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금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사회적금융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사회적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조만간 사무국이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 1월이면 출범식을 개최하여 사회적경제인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도매기금이 널리 소개될 것이고, 사회적공감대를 얻으면서 출연금도 쌓여갈 것이다. 도매기금이 만들어갈 새로운 변화는 무엇일까?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시장을 구성하는 도매기금과 중개기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적금융 시장의 동맥, 도매기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도매기금이 언급되면서, 한국의 BSC라고 표현되었다. 사회적금융에서 도매기금을 언급할 때면 영국의 도매은행Big Society Capital(이하 BSC)이 거론되곤 한다. BSC가 중개기관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시장에 대해 이해해 보자.

1) 도매기금을 통한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변화

2012년 영국 정부는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BSC을 설립했다. 이들은 민간자금과 매칭투자를 전제로 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해갔다. 그 결과 BSC 설립 6년 만에 영국 사회

투자에 유입된 투자액이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회투자 생태계는 매년 평균 20%씩 성장하고 있다. 또한, 시장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기관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면서 중개기관의 수가 8배 이상 증가했다.

2) 중개기관의 자금조달 용이성 확보로 실질적인 자금 유입 지원

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융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자금조달 역량이 부족하여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적다면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가령, 중개기관이 10억 원을 마련하여 연 이율 2%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대출을 하고 있다면 연간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수익으로는 한 사람의 인건비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BSC는 중개기관에게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자본 확충과 투자금 재대출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트리오도스 뱅크Triodos Bank, 채리티 뱅크Charity Bank 같은 소매금융은행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무상으로 신용을 공여하지 않았다.

3) 중개기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금융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중개기관은 조달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만든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성장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 기간 동안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수익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신용 위험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만약, 10억 원을 가지고 5,000만 원씩 20개 기업에게 2%로 대출을 해주는

중개기관이 있다고 하자. 매년 열심히 심사하고 운영하여 2년간 4,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만기가 도래하는 3년차에 1개 기업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5,000만 원의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중개기관은 자본잠식이 되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BSC는 중개기관 및 사회책임투자 전문집단과의 협업으로 사회적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사회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다. 특히, BSC가 인수보증이나 후순위 채권보증 등을 통해 중개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 위험을 덜어줌으로써 중개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4) 중개기관의 관계금융 강화를 위한 운영 지원

중개기관이 자금조달, 상품 개발, 위험 관리를 잘하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일반기업과 다른 성공 요인과 성장 경로를 보이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결론적으로 중개기관은 수익도 적고, 위험도 높은데 인건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산 규모가 충분히 커질 때까지 위탁 및 용역 등을 통해 운영비를 보전해야 한다. 전업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보니 전문성을 쌓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일쑤다. BSC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개기관에 운영 수수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투자자 관심을 촉발하고 사회적 성과 측정을 가이드하기 위한 제반 요소(시장 인프라)에 투자하여 개별 중개기관의 금융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도매기금은 동맥이고 중개기관은 모세혈관이다. 몸속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조성되고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매기금이 중개기관들에게 혈액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새로운 중개

기관들이 설립되어 사회적경제 구석구석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기존 중개기관은 동맥과 모세혈관을 연결하는 세동맥 역할을 하면서 연대와 경쟁 속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간 주도 도매기금 조성의 의미

사회적금융 시장에서 도매기금의 역할 및 의의를 이해했다면, 민간 주도로 도매기금을 만들고 운영한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간의 리더십의 필요

영국은 BSC 설립 후 6년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민간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거래소 같은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시장 효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BSC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시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또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운용 주체의 기금 운용 원칙과 소유·지배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도매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기금 준비에서 조성,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걸쳐 민주적으로 논의하면서 리더십을 세워가야 한다. 초기부터 현장 조직으로 대변되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도적으로 의제를 생산해야 한다. 특히 도매기금의 사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경로를 이해하고 이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현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숙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 속에서 발견하는 성찰

하지만 올해 안에 도매기금이 출범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롭지 못해서일까? 도매기금은 출범 과정에서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 2월 현장 조직, 중개기관, (잠재)출연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달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민간과 충분히 소통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했다. 따라서 장외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번외 경기가 자주 열리곤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현장 조직,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 TF를 구성하여 도매기금 설립 및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숙의를 진행하면서 연구팀과 법인격, 사업 방향,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임팩트투자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Board도 영국의 사회적금융 선진 사례를 기반으로 도매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場을 여러 차례 만들어갔다. 추진단 내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정하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획위원회도 다수 열렸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구팀 혹은 상호간에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갈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살아온 궤적의 차이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할 뿐 도매기금을 통해 사회적금융 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염원은 별반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간의 소중한 경험들은 향후 도매기금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운영 원리에 잘 스며들어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시장을 위해 고려할 점

요즘 대구, 부산, 강원 등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도매기금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

될지 주목하며, 새로운 중개기관을 만들어서 도매기금과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생각해볼 문제는 무엇일까?

1) 도매기금에 바란다

건전한 사회적금융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가 참여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많은 금융 거래가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신협, 농협, 수협과 같은 민간 상호금융기관, 잠재적인 기관투자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매기금을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이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다. 향후 도매기금은 다양한 투자자와 협업하는 방식(손실 발생 시 우선순위, 이익배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도매기금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금융기관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명분을 팔아야 하고, 금융기관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응하는 합리적인 거래가 필요하다. 가령,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일반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미명하에 주민들과 도매기금(후순위 투자)의 위험이 상업투자자(선순위투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매기금을 이끌어가는 실무 조직(사무국)은 금융을 잘 아는 기술자보다 사회적경제를 잘 이해하는 전략가가 이끌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임금, 채용, 배치, 인사, 조직 문화 등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금융과 사회적경제의 관점은 물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도매기금이 인내자본으로서 사회적경제의 동반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현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인재들이 조직 내에서 존중받기를 바란다. 이런 실행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서는 도매기금

의 멋진 전략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

2) 사회적경제 조직, 중개기관에 바란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투·융자 대상에 대한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거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한다. 합리적인 위험 평가를 위해서는 정보 축적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경우엔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다. 투자자에게 돈을 조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면서 그 대가(운용 수수료, 예대마진 등)를 받는 금융인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금융은 언제나 보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적금융도 똑같아야 하는가? 사회적금융은 연대와 혁신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겐 참으로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다. 길이란 것이 어디 처음부터 있겠는가.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걷다보면 길이 생기는 것이다. 함께 걸어가야 한다. 도매기금이 홀로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중개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사회적경제 방식이 참여와 연대라고 했던가. 이를 통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자.

이슈

GSEF 2018 빌바오 포럼

: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곽은경
GSEF 사무총장

© 차유미, 아이쿱활동연합회

사회적경제의 유일한 국제 네트워킹 플랫폼

2013년 11월, 서울에는 100여 명의 세계 지방정부와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 세계가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다시 서울에 모여 '변화를 향한 연대'라는 슬로건 아래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이라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를 만들었다. 2014년 창립 이후 GSEF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유일한 국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도시정부와 민간 조직들을 연결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을 연구, 공유하고 협력해왔다. 2016 몬트리올 총회를 거쳐 이번 빌바오 총회까지, GSEF의 회원 도시와 단체는 더욱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뜻을 같이하고자 하는 도시도 늘어 2018년 11월 현재 48개의 도시, 단체,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스페인 바스크주의 빌바오에서 열린 제4차 글로벌 사회적경제 포럼(이하 GSEF)은 "사회적경제와 도시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회적경제 태동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유럽에서 GSEF 포럼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모와 속도 면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실패한 21세기 자본주의 경제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현재, GSEF 포럼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과와 아이디어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로 모아냈다. 이번 포럼에는 뉴욕,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파리, 서울, 몬트리올, 도쿄, 타이페이 등 84개국에서 온 1,700명이 넘는 도시정부 대표들과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체 세션은 물론 동시에 진행된 각 주제별 워크숍 세션까지 줄을 서서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고, 밤늦게까지 토론과 네트워킹을 하기

도 했다.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낸 혁신에 대한 기대와 연대가 갖고 있는 힘을 확인시켜준 포럼이었다.

이번 포럼에서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들은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는 물론이고 경제적 수익까지 충분히 창출 가능함을 증명했다. 포럼이 열린 바스크주의 산업 분야에 진출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다. 특히 바스크주에 자리 잡은 103개 노동자협동조합과 125개 자회사로 이루어진, 스페인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몬드라곤 그룹은 사회 정의와 노동권 존중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 적절한 사업 전략의 실행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가 꿈꾸는 연대와 협력의 지구적 공동체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GSEF 2018, 빌바오

: 사회적경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새로운 운동의 물결

행사 첫날인 10월 1일 오전 9시, 스페인 빌바오 에우스깔두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SEF 2018 개회식에서는 스페인 주요 인사들과 조직위가 참석한 국내외 내빈들을 환대했다. 포럼 개회식을 연 후안 마리 아부르토Juan Mari Aburto 빌바오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쇠락했던 철강업과 조선업의 도시 빌바오는 문화와 사회적경제로 되살아나 올해 유럽 최고 도시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빌바오에는 약 5만 4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1,700여개의 협동조합을 포함해 5천여 개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들"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발전"과 "청년들을 위한 미래 가치를 지향하는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년, 200년 된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2007년 이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서울이 제안한 GSEF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메시지와 실천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부르또 시장은 또 "서울, 몬트리올에 이어 유럽 최초로 세계적인 사회적경제 포럼인 GSEF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재차 소감을 밝혔다.

GSEF 공동의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저성장, 불평등, 양극화, 실업 문제라는 공통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UN과 EU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들이 기존 발전 모델의 한계를 깨닫고, 전 세계가 처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사회적경제'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새로운 운동의 물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그 혁신은 기술 발달에 국한된 것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의 규칙을 바꾸고", "1%가 독점하는 정치, 문화를 바꾸고", "99%의 시민을 위한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연대와 협력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GSEF 2018 역시 "사회적경제와 도시"를 주제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운동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더 많은 도시 정부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행사에 이어 GSEF 2018에 참여한 각 도시 대표들이 각자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히는 '시장단 포디움Mayor's Podium'이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함께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함께하는 협동과 연대를 통해 1%대 99%의 사회, 즉 극소수에게 부가 독점된 불평등 사회를 종식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민 개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

가되었던 삶의 무게를 공공이 함께 나눠지는 '사회적 우정'을 언급했다. 한편, 더 큰 변화, 더 깊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GSEF의 의장도시 서울이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한 도시'
: 사회적경제가 품은 협력, 협동, 연대, 평등의 가치

GSEF 2018이 주목한 것은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한 도시'였다. GSEF가 기존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러 국제 네트워크나 국제회의들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특징은 도시를 기반으로 민간과 도시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문제를 공동체 방식으로 직접 풀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포용적이고 참여적으로 만들어간다는 데 있다. 5개의 전체 세션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단위의 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개막식과 시장단 포디움에 이어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원 : 일시적 유행인가, 진정한 의지의 표현인가"라는 주제로 전체세션 1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4개 도시 시장과 사회적경제 단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가해 사회·경제 개발 원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지원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헤라르도 삐사레오Gerardo Pisarello 바르셀로나 제1부시장, 후안 마리 아부르토 빌바오 시장, 크리스토프 이띠에Christophe Itier 프랑스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고등판무관 등이 도시에서 사회·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서의 사회적경제와 이를 정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간 사회연대경제를 위해 힘써온 데 특별한 동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반세기 만에 압축 성장을

이룬 만큼 많은 불평등과 불균형의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실업률도 높고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였기에 많은 고민 끝에 사회적경제를 통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방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크리스토프 이띠에 프랑스 사회적경제 고등판무관은 프랑스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10억 유로(우리돈 약 1조 3,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 정부가 기존의 행정과 제도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겪은 행정상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기존의 법적인 틀과 제도로는 막히는 경우가 많아 각 부처에 '해커'라 불리는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 기존 행정과 제도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도시 중심 시대에서의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전체세션 2가 진행됐다. 전체세션 2에서는 크리스티안 부샤르Christiane Bouchart 릴 부시장 겸 RTES프랑스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Réseau des Territoires pour l'Économie Solidaire 회장, 지멜 에짐Simel Esim ILO 협동조합부장, 루르데스 베네리아Lourdes Benería 코넬대학교 명예교수, 마틴 반 덴 보레Martin Van den Borre C.I.T.I.E.S사회연대경제 국제지식전수센터 상임이사, 에밀리아 사이쓰Emilia Saiz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사무총장 등이 도시에서의 개발과 발전이 어떻게 사회적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릴시의 부시장이자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의장이기도 한 크리스티안 부샤르는 "이 시대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가치와 정신의 위기로,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 사람 중심의 경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우리는 GDP로만 삶의 질을 측정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그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

적경제가 사회복지의 실천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라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보육, 환경, 교육 등 전반적인 시 정책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안 경제'를 지향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표를 작성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홍보하고, 사회적경제 주체(각 기관과 사업 주체)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릴시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고용율이 무려 12%(프랑스 전체 평균 8.7%)에 이른다.

둘째 날에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약속 : 다양한 대륙별 시도"를 주제로 전체세션 3이 진행됐다. 전체세션 3에는 마리아 헤수스 산 호세María Jesús San José 바스크 주정부 고용정의부장관, 슬라보미르 투카르스키Slawomir Tokarski 유럽집행위원회 DG GROW 혁신과 제조산업의 선진화부장, 폴린 아이베 에파Pauline Eyebe Effa 프랑스-아프리카 공동개발협력PFAC 사무국장, 라틴아메리카 고용과 사회적경제연구소의 레안드로 모라이스Leandro Morais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사회적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도시와 협력"을 주제로 전체세션 4가 진행됐다. 필 톰슨J. Phillip Thompson 뉴욕시 부시장,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RIPESS대륙 간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제이슨 나르디Jason Nardi, 리버풀 공정사회정의 자문위원회의 릴 콜린스Lynn Collins, 티에리 장테Thierry Jeantet SSE International Forum 회장 등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도시의 노력과 성공 요인에 대해 소개했다. 뉴욕, 타이페이 등 여러 도시가 함께 모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지방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에서 이은애 센터장은 서울이 무조건 잘했다기보다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바탕으로 더 단단한 민관 협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함께 모여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마지막 세션이 진행됐다. 초민 가르시아Txomin García 라보랄 쿠차

Laboral Kutxa 대표 겸 UNACC National Union of Credit Cooperatives 부회장, 폴 라드Paul Ladd UNRISD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소장, 마르쿠 마르쿨라Markku Markkula EU 지역위원회 부회장, 안토넬라 노야Antonella Noya OECD 사회적기업 및 사회혁신 국장, 마가렛 멘델Marguerite Mendell 콩코르디아대학 교수 겸 칼폴라니 국제연구소 소장, 프랑츠 볼프마이어Franz Wolfmayr EASPD유럽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공급자연합회, European Association of Service Provid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전 회장 등이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지역 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틀 동안 42개 세션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민관 협력, 교육과 청년, 공공정책, 사회혁신, 일자리와 노동,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구매, 공정무역 등 '모두를 위한 사회', 그리고 청년 세션과 아프리카 세션 등 모두를 위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또한 다양한 비공식 모임도 열렸다. GSEF 2018 참가자들은 유럽의 연구자 네트워크, 여성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금융 네트워크 등에서 마련한 행사에 참여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협업을 모색할 수 있었다.

경험의 교류로 확인한 사회혁신의 가능성

이번 포럼을 통해 GSEF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고 배우는 명실상부한 사회적경제의 국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은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빌바오 포럼은 양질의 노동, 사회 보장,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와 지역사회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더 큰 참여 속에 정책 혁신을 가져가야 한다는 필요를 확인했다. 브라질에서 온 도시 정부 대표들은 요즘처럼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앙, 지방정부, 사회적기업 및 단체들과 교류

GSEF 2018에 모인 세계 도시 시장들 © 차유미, 아이쿱활동연합회

를 나눈 것 자체가 큰 치유와 격려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빌바오 포럼은 수많은 고민에서 나온 세계 각국 사회적경제 분야의 혁신 성과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우리가 걷고 있는 변화의 여정이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더 강화되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사회·경제 문제와 도시 문제는 더 이상 하나의 기관이나 도시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사회적경제가 곳곳에서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탄력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참여하려는 청년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그들의 노력으로 사회적경제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누며 새로

운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한 포럼이기도 하다.

빌바오 포럼은 공공경제 및 사회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가 갖는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사회적경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사회적경제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경제" 또는 "가난한 이들의 경제"가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며 혁신과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경제, 도시의 상생과 혁신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GSEF 2020, 멕시코로 가는 길

10월 2일 오후에 열린 GSEF 빌바오 총회에서는 GSEF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의장도시 및 운영위원 선출, 차기 총회 개최 도시 선정, 헌장의 수정 등 GSEF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했다. GSEF 회원들의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국제기구로서의 GSEF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헌장 개정을 논의했다. 빌바오 포럼 이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번 총회는 2020 포럼을 개최할 차기 개최 도시로 멕시코를, 그리고 2020년까지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연임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멕시코는 지난 7월 1일 열린 총선과 대선으로 89년 만에 지정학적 변혁을 예고하는 정치 변화를 겪고 있다. 극심한 빈부 격차는 물론 안전과 보안 문제, 증가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미국과 외교 분쟁까지 겪고 있는 멕시코에서 치러질 2020 포럼은,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조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OECD의 회원국이 된 멕시코에서, 계층 간 빈부 격차 해소와 시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한 혁신적 공공정책으로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020 멕시코 포럼은 2016년 몬트리올 선언과 2018 빌바오 선언문에서 약속했듯이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그 네트워크 및 지역, 도시와 지방

정부들이 사회적경제의 공공 정책 공동 구축, 공동 개발을 계속하고 수행함으로써 우리 도시와 공동체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유럽과는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게 될 것이다. 유럽과 달리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 이들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려는 도시 및 중앙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 경험들을 나누는 교류를 통해 GSEF 국제포럼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많은 도시 및 정부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파악하고, 여기서 나아가 그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GSEF는 계속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적, 정책적 틀과 지원을 촉구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윤리적, 대안적, 연대적 사회금융제도를 보급하고 지역 저축은행 등을 장려하여 지역 간(도시와 농촌) 연계 개발을 모색하고, 모든 정부(지방, 지역, 국가, 국제)에서 더 큰 정책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향후 2년간 GSEF는 사회적경제의 유일한 국제 네트워크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점을 활용하여 GSEF가 명실상부한 국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러 파트너, 국제 전문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가 인정받고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GSEF가 앞으로도 전 세계의 도시정부와 민간 조직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더 많은 도시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와 함께할 수 있도록 GSEF의 여러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이슈

생태적 사고와 문명적 전환을 위한 첫 발걸음

한윤정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과정사상연구소 연구원

‘생태문명’으로 연결된 세 개의 컨퍼런스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세 개의 컨퍼런스가 잇달아 열렸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2018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문명전환과 도시의 실험〉(11일, 서울시청), 지구와사람, 미국 생태문명연구원Institute for Ecological Civilization, 서울대–한신대 포스트휴먼연구단, 경희대 미래문명원, 사단법인 선이 공동 주최한 ‘**생태문명 국제 컨퍼런스** 2018’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 전환〉(12~14일, 파주출판도시),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와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이 주최한 〈2018 서울시 **동북4구 생태적 도시재생 국제포럼**〉(15일, 플랫폼창동61)이다. (이하 굵은 글씨의 약칭으로 표기함) 주최와 초점이 서로 다른 세 컨퍼런스는 서로 연결돼 있으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태문명’이다.

컨퍼런스의 배경은 201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환경사상가인 존 캅John B. Cobb, Jr., 1925~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명예교수는 90세가 되던 이 해에 사재를 털어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시의 포모나대학에서 ‘대안 잡기 : 생태문명을 향해Seizing an Alternative : Toward Ecological Civilization’라는 제목의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후변화, 멸종 등 환경 위기, 저성장, 불평등, 실업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이 회의는 70개 주제에 걸쳐 1,500여 명의 참가자를 끌어들였다. 이 회의의 성과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생태문명연구원(대표 필립 클레이튼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교수)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생태문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전 세계 조직의 연계를 제안한다.

2016년 안식년을 맞아 클레어몬트에 머물던 정건화 한신대 교수(경제학)와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방문학자이던 필자(문화연구)는 ‘대안 잡기 : 생태문명을 향해’가 추구한 통합적 비전과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에서도 같은 시도가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2017년 11월

클레어몬트에서 '한국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여기에 '생태문명을 모색하는 지식공동체'를 표방하며 지구와사람을 설립한 강금실 변호사와 강 변호사의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지도교수였던 가톨릭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이재돈 신부, 이 단체의 생태대연구회장 송기원 연세대 교수(합성생물학), 한신대와 서울대가 함께 만든 포스트휴먼연구단 소속의 이경민 서울대 교수(뇌과학)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 전철 한신대 교수(신학),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신지예 서울녹색당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올해 열린 세 개의 컨퍼런스 가운데 지난해 클레어몬트 컨퍼런스와의 연계성이 강한 '생태문명 국제 컨퍼런스'는 지난해 참가 단체인 지구와사람, 포스트휴먼연구단, 미국 생태문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준비했다. 또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와 '동북4구 생태적 도시재생 국제포럼'은 원전 하나 줄이기,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 등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서울시 정책이 생태적 전환이란 큰 방향으로 수렴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협치를 통한 생태적 지역 발전을 목표로 동북4구(강북·성북·도봉·노원)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해 초대 센터장을 맡았던 정건화 한신대 교수가 중심이 되어 꾸려졌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연결된 세 개의 컨퍼런스는 철학과 비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거 환경이나 도시 정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는 차이가 있다. 철학은 행동과 결정의 바탕에 깔린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며, 비전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미래의 모습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학술회의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실무회의에서 철학이나 비전은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쓸모없는 거대담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과 비전을 검토하고 공유함으로써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방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세 컨퍼런스가 공유한 '생태문명'이란 비전은 환경 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 즉 지구와 사람을 동시에 고통으로 몰아넣은 산업문명의 폐해를 진

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현재 기후변화는 변곡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끝없는 개발과 공해로 인해 대규모 멸종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또 최상위 부자 6명의 금융 자산이 지구 인구의 절반인 38억 명의 자산 규모를 합한 액수와 같을 만큼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전 세계에 걸친 산업화, 자본화, 금융화가 낳은 결과물이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생태'적 사고이며, 어느 한 분야의 각성과 변화만으로는 근본적 방향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전면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게 '문명'적 전환이다. 따라서 생태문명은 미래에 완성될 유토피아의 모습이라기보다 협동, 공존, 공유를 바탕으로 현재의 불안과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생태문명 논의의 시작

담론적 논의가 중심이 된 '생태문명 국제 컨퍼런스'부터 살펴보자. 이 회의를 주관한 지구와사람은 강금실 변호사가 만든 독서 모임을 모태로 2016년 출범했다. 2008년 서울시장 출마 이후 현실 정치에서 물러난 강 변호사는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에서 문명사학자이자 생태론자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2009의 사상을 접하게 되고 그가 주창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구법이란 인권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편의를 위한 법인권을 보장하는 현행 법체계를 넘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권리의 근거는 우주와 지구, 자연과 인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우주론에서 나오며, 지난해 인도 법원이 갠지즈강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이런 사고 전환의 사례다. 지구와사람은 지구법연구회, 생태대연구회, 기후문화연구회 등 공부 모임을 운영하면서 생태 담론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하면서 지구와사람이 내건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지구환경 보호,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도시 등 여러 영역에서 그간 이룬 노력을 생태문명이라는 큰 숲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목표를 공유하여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는 것, 둘째는 최근 대전환의 징후를 보이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변화를 이 생태문명의 가치와 실천 방향에 접속시켜 국제사회에서 지구 시민들의 연대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현실화된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을 수렴한 생태문명 담론을 제기하고, 이를 한국과 동아시아의 맥락에 맞춰 새로운 실천 방향으로 확산하자는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 초대된 주요 연사는 앞서 소개한 존 캅 교수 외에 글로벌 자본주의를 극복한 지구시스템경제를 주창해온 경영학자 데이비드 코튼David Korten 박사, 농업·농민·농촌(삼농)이 중심이 된 신향촌 건설운동을 벌이는 원테쥔溫鐵軍 중국 런민대 교수(농경제학)였다. 이들은 앞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가해 두 컨퍼런스 사이의 연속성을 담보했다. 존 캅 교수는 유기체철학 혹은 과정철학으로 불리는 앨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의 철학을 연구한 신학자로, 1971년 생태신학 분야의 첫 저서로 꼽히는 『너무 늦은 걸까? : 생태론의 신학*Is It Too Late? : A Theology of Ecology*』을 발표한 이후 50년 가까이 생태사상을 전파해왔다. 그의 주장은 현대 과학기술과 산업문명의 바탕이 된 근대철학의 실체적·기계적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 한 생태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 교육, 경제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생태사상은 2007년 이후 생태문명을 핵심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중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데이비드 코튼 박사는 존 캅 교수와 뜻을 함께하는 오랜 동료이자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반대론자다. 젊은 시절 그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미국 대외원조처 소속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의 경제 건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식된 서구 경제체제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원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대안은 국가와 정치가 중심이 되어 철저한 자본 논리로 움직이는 초국적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원테쥔 교수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겪게 된 경기불황의 영향을 흡수하고 안정된 경제를 일구기 위해 농촌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고 실천해왔다. 그의 정책 제안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적극 수용되면서 전통 농법에 의거한 동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자본주의의 대안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세 연사의 구도는 생태문명을 위해서는 지구를 자원이자 이용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제주의를 넘어서 생태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체와 지역 경제로의 개편이 요구되며, 서구 중심적 개발론에서 벗어나 지역성이 고려된 이론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지구를 파괴하는 산업문명의 대안으로서 생태문명과 유사한 생태대ecozoic era를 제시했던 토마스 베리의 이론은 현대 생태사상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가톨릭 신부였던 그는 고생물학자이자 신학자인 테이야르 드 샤르뎅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55의 영향을 받았는데, 샤르뎅과 화이트헤드는 20세기 초반 진화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에 따른 형이상학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오늘날 영성적 생태사상의 근간을 제공했다. 이번 '생태문명 국제 컨퍼런스'에서 존 캅 교수와 "우주의 한 점 지구, 그리고 인간"이란 주제로 대담을 가진 이재돈 신부는 토마스 베리의 사상을 연구한 생태신학자이다. 명시적이지 않았지만, 컨퍼런스의 철학이 화이트헤드—존 캅으로 이어지는 유기체철학과 샤르뎅—토마스 베리로 이어지는 우주론에 근간을 두게 되었다. 이런 점은 일부 참가자로부터 서구 이론의 비판적 수용과 한국적 생태사상의 전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컨퍼런스의 세션 구성은 과학, 생태경제학, 지구법, 문화와 교육 분야를 아울렀으며 당초 취지대로 국제 협력을 위해 미국, 중국, UN, 그리고 한국

NGO 활동가들의 제안을 들었다. 생태문명 논의에서 과학의 역할은 중요하다. 문명의 근간이 과학기술이며 과학적 사고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클레어몬트, 올해 파주 컨퍼런스에 계속 참여한 서울대-한신대 포스트휴먼연구단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확장이란 점에서 포스트휴먼 논의는 제4차 산업혁명론의 핵심인 인공지능이나 로봇뿐 아니라 환경 논의에서도 중요하다.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이야말로 우월한 인간 주체가 자연을 이용과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본 현재 산업문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인간 이외의 생물, 자연, 지구, 우주 전체를 생명이 관통하는 연속체로 바라보는 철학으로의 전환이 생태문명의 초석이라고 할 때 과학적 논의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지능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는 이경민 서울대 교수(뇌과학), 과학기술과 사회의 접점을 연구하는 홍성욱 서울대 교수(과학기술학), 근대과학의 자연 인식에 담긴 몰가치성을 극복한 생태과학을 제안한 필립 클레이튼Philip Clayton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교수(종교철학)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 위기와 글로벌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과제는 종단, 횡단의 사고를 동시에 요구한다. 생태문명 논의는 세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철학적 질문으로부터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까지 걸쳐 있다. 또 전면적 변화를 위해 세계적 협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미국 생태문명연구원 부원장인 앤드류 슈왈츠Andrew Schwartz 박사는 목표를 공유하되 각자 맥락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단체들의 유기적 연대를 제안했다. 중국 후현대발전연구원의 공동 디렉터인 왕쩌허, 판메이준 박사는 존 캅 교수와 함께 2000년대 중반 이후 과정철학을 중심으로 중국 생태문명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들은 중국 안팎에서 생태문명을 주제로 100회가 넘는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36개의 연계 연구소를 탄생시켰다. UN과 협력하는 일본 출신 활동가 켄 기타타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2030의 수립에 참여하고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UN 인증 NGO들의 활동을 소개했다.

컨퍼런스의 대미는 6개 참여 기관이 서명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 전환 선언(파주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포괄하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꿈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는 전문을 시작으로 생태문명의 세계관, 지구 시민의 책임, 생태 경제와 협력 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의 생태 적합적 방향 재설정, 지구법의 가치와 지구적 거버넌스의 필요, 교육 기관의 혁명적 전환, 한반도의 생태적 전환과 전 지구적 캠페인, 자기 성찰의 부단한 성숙 과정, 미래세대의 참여 촉구, 창의적 조직과 생태적 네트워크의 창출 등 10개 항에 걸쳐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생태문명과 도시, 마을의 삶

존 캅 교수와 데이비드 코튼 박사, 원테쥔 교수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여했다. 세계의 도시 거주 비율은 50%, 한국은 80%를 넘어선 가운데 도시는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 존 캅 교수는 유기체로서 상상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제안하기 위해 자신의 동료였던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파올로 솔레리Paolo Soleri, 1919~2013가 1970년대부터 미국 아리조나주에 건설하기 시작한 생태건축 도시 아르코산티Arcosanti를 소개했다. 아르코산티는 노동과 휴식, 여가생활을 동시에 해결하는 공간으로, 구상 당시 교외를 향해 무한 확장하던 도시의 형태를 비판하면서 건축 밀도를 높이고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획기적 구상을 담았다. 원테쥔 교수는 공정 거래를 토대로 한 농촌과 도시의 통합, 공동체 지원을 통한 농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해외 도시의 전환 사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올해 지구의 날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샌프란시스코시의 노력이었다. 찰스 쉬한Charles Sheehan 환경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전기, 건물, 교통 3개 부문에서 100% 재생에너지로의 연료 전환을 시도하는 동시에 쓰레기 배출 제로, 토양의 퇴비 비옥화 정책으로 탄소 격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와 태양도시 정책 역시 기존의 소극적 에너지 정책을 넘어선 야심 찬 계획이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보행도시, 공유도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도 서울시가 향하는 생태적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동북4구 생태적 도시재생 국제포럼'은 앞선 두 개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생태문명이 지역과 마을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는지 생각해보는 자리였다. 이 행사까지 참여한 데이비드 코튼 박사는 기조강연에서 지금이 지역 단위의 독립적이고 생물학적인 경제를 위한 선택의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동북4구는 녹지율이 48%에 이를 만큼 자연환경이 수려하면서도 도시 쇠퇴도가 서울 평균을 웃도는 86%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이다. 현재 생태적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지역순환형 자족경제, 도시 간 협력을 원칙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1998년 강북구에 초등 과정의 삼각산재미난학교가 생기면서 시작된 삼각산재미난마을 이야기, 서울시의 마을만들기와 민관 거버넌스 실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012년 이후 7년째인 마을만들기는 협동의 경험과 호혜적 관계로부터 주민 자치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와 해외 도시들의 에너지, 환경 정책이나 동북4구의 도시재생 현안을 함께 논의한 두 개 컨퍼런스에서 생태문명이라는 단어를 접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신선함과 어색함이 공존했고, 더러 무관심도 드러냈다. 자원을 아끼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주민 협력을 끌어내고 지역 단위의 돌봄과 순환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무슨 거창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 시대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

문제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비해 차후의 과제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적 대안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 생업과 공동체는 분리돼 있고 스스로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여기는 관성적 사고가 강하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과 비전이다. 철학은 우리가 어떤 전제에서 삶을 바라보고 선택하는지, 비전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협력하게 만든다.

생태문명이라는 사고가 배경에 깔린 3개의 컨퍼런스는 하나의 실험이었다. 과학, 경제학, 법학, 철학이라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학문들이 환경 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였으며, 신학자와 농경제학자가 도시계획가, 정책 담당자와 대화하는 자리였다. 신자유주의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마을 활동가들의 열정과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원론적 수준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의 연구나 실무에 도움이 되기보다 관심과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과 지구를 함께 생각한 기회, 철학과 정책을 연결한 기회, 영역과 관심이 다른 이들이 기쁘게 만나는 기회였으리라 기대한다. 분명한 것은 변화, 혁신, 전환이라는 요구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이제 생태적 사고와 문명적 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돌발논문

협동조합
회계기준
②

유종오
공인회계사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방향 2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특징을 반영한
회계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사항을 현실 제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주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주된 내용

1) 협동조합 회계의 목적과 기준, 주된 거래

협동조합의 회계는 조합원과 지역사회 등 주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 필요한 재무 정보의 제공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투자자, 정부, 직원 등 2차적인 이해관계자의 필요도 함께 고려한다.

한편 협동조합 회계에는 국제회계기준의 회계공준 등[1]을 수용하되, 지난 첫 번째 글에서 언급한 '사회적 회계social account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가격 거래가 아닌 다양한 거래(자원봉사 활동, 총회, 이사회, 기타 다양한 위원회 및 조합 활동)를 반영하는 기준도 포함한다. 협동조합은 그 본성상 조합원과의 거래, 즉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자기거래[2](공동구매, 공동판매, 자기고용 등)를 통한 조합원 복리후생 및 지역사회 기여에 그 존립 목적이 있고 투자이익 추구, 즉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거래를 비조합원 거래분과 구분하여 표시하는 재무 정보가 필요하다.[3]

이와 같은 협동조합 회계의 목적에 맞는 재무 정보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2) 재무상태표(자산과 부채, 순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재무상태표 요소 중 자산과 부채의 인식 기준은 현행 두 회계기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자본(또는 순자산)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협동조합의 고유

1 회계공준은 기업이 그 목적과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청도로 충분한 기간동안 존속한다는 계속기업의 가정이며, 이외 재무제표의 질적특성 및 요소의 인식 정의 등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구매 대행, 생산자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판매 대행(조합원 사업체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생산자협동조합 자체는 영리 추구에 목적이 있지 않음),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의 고용 안정 확보에 주된 목적이 있을 뿐 회사 자체의 투자 수익이 존립 목적이 아니다.

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

(1) 출자금, 회전출자금 등에 대한 회계 처리

우선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을 조합원 자격의 필요적 조건으로 하고 있다. 출자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출자금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약정 출자금과 함께 미납 출자금도 표시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즉, 약정한 출자금을 전액 출자금으로 표시하고, 그 중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 출자금으로 하여 출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순자산

출자금	10,000
미납 출자금	(2,000) 8,000

회전출자금[4]이란 주식회사의 주식배당과 유사하게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면서 해당 금액을 출자금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사업체에 유보한다. 이는 협동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회전출자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데, 그 잉여금이 나중에 설명할 조합원 거래분일 경우라면 그 성격상 이용배당과 동일하다. 출자배당금을 출자금화하는 경우에도 회전출자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다.

3 유럽 협동조합법 공통 원칙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사업의 소비자, 공급자 또는 노동자인 조합원의 이익에 주로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영리' 추구(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보너스의 지급을 통해 주로 생겨나는 이윤 창출 등)가 아닌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인으로 정의된다.

4 회전출자금이란 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 회전출자금은 출자배당의 대상이 아니다.

회전출자 배당할 때

차변) 잉여금 _____원　　대변) 회전출자금 _____원

출자금 전환할 때

차변) 회전출자금 _____원　　대변) 출자금 _____원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같은 투자금이 아니라 조합원의 인격과 함께 조합에 투입된 종잣돈 성격의 자금이다.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제명당할 때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금 또는 지분환급 청구권을 가진다. 탈퇴자 또는 제명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취소 절차와 시점 및 환급 대상 출자금 및 지분의 범위와 계산 방식, 그에 대한 회계 처리도 정관과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탈퇴 및 제명에 따라 결산을 할 때 지분환급금 계산이 이뤄진 경우 결산서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조합원별 지분 계산 시 임의적립금 또는 잉여금, 결손금을 결산에 반영할 때

차변) 출자금 _____원　　대변) 미지급 지분환급금 _____원
임의적립금 _____원　　결손금 _____원
잉여금 _____원

한편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한 최대 기준보다 높은 출자금을 보유할 수 없다(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은 총 출자금의 30% 이내 한도).

(2) 자본잉여금(출자 초과금 또는 가입금)에 대한 회계 처리

자본 잉여금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 중 재화와 용역 거래가 아닌 가입이나 탈퇴, 감자 등과 관련한 잉여금을 처리한다. 출자 초과금(또는 가입

금)은 신규 가입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할 때 기존 조합원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출자금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 초과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출자 초과금(또는 가입금)은 협동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이상의 지분 환급을 하는 경우, 가입 시점의 기존 조합원의 환급 지분 해당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즉, 신규조합원은 출자좌수에 따른 액면 출자 금액에 가입 당시 기존 조합원이 탈퇴할 때 받게 될 지분환급액 중 출자금 초과분(출자 초과금)을 더한 금액을 납입한다. 그래서 신규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할 때, 그 시점의 기존조합원의 지분환급액 총액을 납입하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 즉 출자금 환급 손실이 예상될 때에는 출자금 할인이 없으므로 출자금 액면으로 출자하되 지분 환급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차변) 예금 _____원	대변) 출자금 _____원
	가입금(또는 출자 초과금) _____원

감자차익은 조합의 결손 보전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감액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처리한다.

(3) 잉여금과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협동조합 회계에서는 잉여금을 조합원 거래분과 비조합원 거래분(또는 조합 자체 사업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운영성과표의 하단(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표시 부분)에 잉여금을 표시하되 괄호 안에 비조합원 거래분 이익을 따로 표시한다.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조합원이 조합과 거래하면서 조합에 기여한 금액이다. 그런 점에서 조합원 거래분 잉여금은 주식회사의 이익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식회사의 이익은 주주가 아닌 소

비자와의 거래에서 나온 이익인 만큼 투자 이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곧 소비자(또는 이용자)이므로 잉여의 원천이 조합원의 주머니돈인 셈으로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 조합과의 거래가 많은 조합원일수록 잉여 발생에 대한 기여가 커서 이용배당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비조합원 거래(또는 조합 자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는 조합원의 기여와는 다른 것으로, 이는 이용배당이나 출자배당의 원천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비조합원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당이나 지분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분배적립금[5]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일반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 특례도 주장할 수 있다. 기타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적립금의 종류와 사용 제한을 정할 수 있다.

이용배당은 해당 회계연도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실적(구매, 판매 등 수량이나 가액 등)에 따른 배당으로 반드시 출자배당보다 커야 한다. 출자배당은 회계연도 말 현재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하되, 이자의 성격으로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정한다. 이 때 투자 수익의 성격이 되지 않도록 이자율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현행 10%) 출자배당은 현금 수령하지 않고 회전출자와 같이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기타 자본 조정은 이외의 거래(유형자산 재평가, 매도가능 증권평가 등)로 인해 발생하는 미실현 평가 차·손익을 처리한다.

앞에서 설명한 협동조합의 자본(순자산) 계정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5 흔히 비분할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indivisible reserve를 번역한 용어로서, dividend(배당)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살려 비분배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합 순자산

I. 출자금

1. 조합원출자금
   (미납출자금)
2. 회전출자금

II. 자본잉여금

1. 가입금(또는 출자초과금)
2. 감자차익 : 조합의 결손보전 목적으로 출자금을 감액할 때 발생하는 차익

III. 자본조정

1. 유형자산재평가차손익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IV. 이익잉여금

1.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3. 차기이월이익잉여금

(4) 지분환급금 계산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결손보전 목적으로 적립된 법정적립금 또는 비배분적립금을 제외하고 항목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납입출자금은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되,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 총액보다 감소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회전출자금은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하되,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결손 보전 목적이 아닌 임의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용배당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하되, 해당 금액이 감소되었을 때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운영성과표의 구성 등

현행 국제회계기준의 (포괄)손익계산서(Comprehensive)Income Statement/ Profit & Loss Statement라는 명칭은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이익 추구 관점에서 투자 이익 또는 손실 여부를 계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위탁한 자산의 운영보고서(자원사용보고서) 또는 조합원과의 거래 보고서가 중심이므로 비영리 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운영성과표'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으로 사용되는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의 용어를 대신해 운영성과표에서는 사업 수익, 사업 원가, 일반 관리비로 한다. 구체적 세부 항목에 따라 조합원 공급액, 조합원 공급원가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사업 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한 순차액은 잉여금surplus으로 표시하고, 비조합원 거래분(또는 조합 자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이익profit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동조합 운영성과표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I. 사업 수익	II. 사업 원가
1. 조합원에 대한 공급액 (비조합원에 대한 공급액 포함)	1. 제품 및 상품, 용역 매입 원가
2. 외부 공급액	2. 조합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원가 (비조합으로부터 매입 원가 포함)
3. 수탁사업 수수료 4. 기타 조합원 수수료	-
5. 교육 지원사업 등 수익	3. 교육 지원사업 등 원가
III. 일반 관리비 1. 인건비 (임원, 직원,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퇴직연금불입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 관리비	

(조사연구비, 회의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대사업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보험료, 수도광열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잡비 등)

VI. 사업 잉여금

V. 사업외수익

1.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환산차수익, 가입수수료수익, 조합비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잡이익 등

VI. 사업외비용

1. 이자비용, 환산차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기부금, 잡손실 등

VII. 세전순잉여금

VIII. 법인세 비용

IX. 당기잉여금(비조합원거래분 이익 000 포함)

조합원 공급액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처럼 조합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구입한 뒤 이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공동구매 사업과 관련한 수익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비조합원에게 판매한 금액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조합원 공급액과 관련된 원가는 보통 시장구매원가 금액을 말한다.

외부 매출액은 사업자협동조합처럼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뒤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공동판매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다. 이와 관련된 원가는 조합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원가 금액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비조합원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따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수탁사업 수수료는 조합이 사업자조합원의 재화를 수탁받아 판매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기타 수수료는 조합원과 외부사업자 또는 비조합원 최종소비자 간의 거래를 조합이 알선 중개하여 조합원에게 받는 수수료로 공동구매 알선수수료, 공동판매 알선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 수익은 협동조합이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을 행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그와 관련된 원가는 교육지원사업 비용으로 처리한다.

사업 수익에서 사업 원가 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 잉여금으로 하고, 사업 잉여금이 (−)금액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조합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기타 사업외수익과 사업외비용은 앞선 표에 예시한 계정 과목을 이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운영성과표의 하단에 표시한 당기잉여금은 조합원거래분과 비조합원거래분이 포함된 총 잉여금이며, 여기에는 비조합원거래분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법인세 비용 차감 후 금액)을 별도로 표시한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 세법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도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개별법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당기순이익과세'라는 한시적인 특례를 두고 있다. 즉, 동일한 성격의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세 특례마저 없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잉여금은 본질적으로 조합원의 자기거래를 대행하는 사업, 즉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자기고용 등에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와 같은 투자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과세보다 더 큰 특례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일반협동조합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용배당 또한 자기가 부담한 것을 자기가 환급해 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이라 할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의 구성 등

현행 국제회계기준에서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발생한 이익(손실)의 처분(유보 또는 배당) 계산안을 표시하는 것으로, 투자자들로서는 배당 여부를 살펴봄에 있어 중요한 재무 정보이다. 협동조합에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합원과의 거래분에 대한 잉여금의 이용배당과 출자배당 등의 정보 그리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분 및 결손보전 목적의 비분배적립금 처분(법정적립금 적립) 내역을 표시한다.

협동조합 잉여금 처분 계산서 구성은 아래와 같다.

I.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미처리결손금)
2.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3. 전기오류 수정손익
4. 당기잉여금(당기손실금, 비조합원거래분 이익/손실 포함)

II. 임의적립금 또는 법정적립금 전입액

III. 잉여금처분액(결손금처리액)

1. 법정적립금
   (비조합원거래분에 의한 이익과 결손보전 목적의 일정 비율의 비분배적립금)
2. 임의적립금
   (특정 사업 준비 또는 확장적립금 등, 감가상각충당적립금 등)
3. 배당
   1) 이용배당
   2) 출자배당

IV. 차기이월이익잉여금(차기이월결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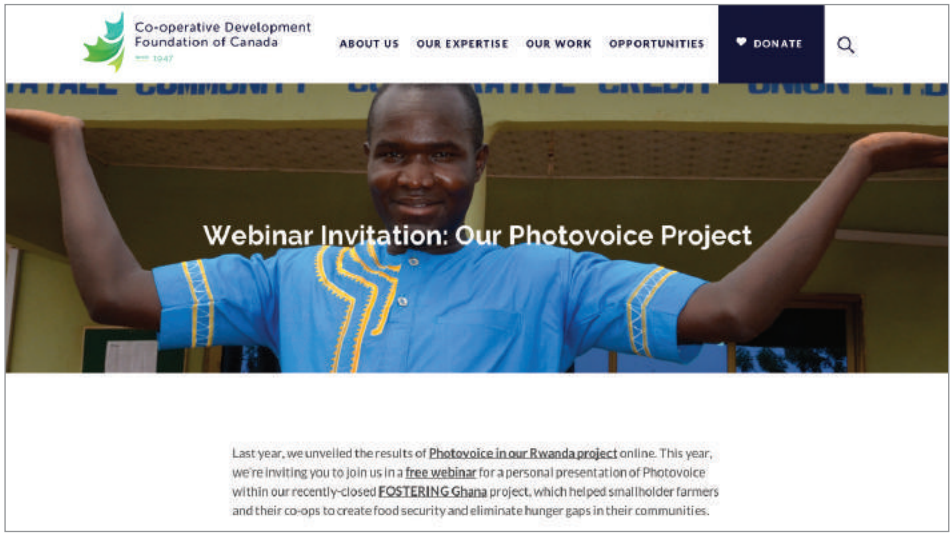
이상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령에 근거한 대표적인 회계기준과 협동조합 회계기준을 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표에서 협동조합 회계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회계기준이 제정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한 것임에 유의)

국제회계기준(IFRS), 협동조합 회계기준, 공익법인 회계기준 비교표

구분	국제회계기준(IFRS)	협동조합 회계기준	공익법인 회계기준
목적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	<협동조합기본법> <농협법> 등 기타 개별법 협동조합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
기준의 성격	주식회사에 특정한 내용을 정함	협동조합에 특정한 내용을 정함	공익법인에 특정한 내용을 정함
적용 대상	상장회사 등 특정 주식회사	협동조합	공익법인
법적 근거 (향후 포함)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기본법> <농협법> 등 기타 개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고유목적사업 구분 표시	없음	고유목적사업(조합원거래)과 비조합원 거래의 구분	고유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투자자산평가 손익 인식	평가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	평가손익은 순자산 내 자본조정에 반영	평가손익은 순자산조정에 반영
유형자산 재평가	재평가 차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	재평가 차손익은 자본 조정에 반영	재평가 차손익은 순자산 조정에 반영
순자산의 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조합원출자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이익잉여금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순자산 조정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자산의 차감계정, 해당 비용과 상쇄	부채, 자산의 차감계정, 사업외수익, 해당 비용 상계	제약 있을 경우 기본 순자산, 없을 경우 사업외수익, 해당 비용 상계
사업(영업)비용 표시 방법	성격별 구분 표시 후 기능별은 주석으로	성격별 구분 표시 후 기능별 주석 표시	기능별 구분 표시 후 성격별 주석 표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인식	금지	조합원 거래분(비영리분)에 대해 선택	의무
주석 필수 기재 사항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등	조합원 거래, 비조합원 거래분, 사회적 영향 보고 관련 내용	현물 기부,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등

조수미
CDF Canada Project Officer,
쿠피협동조합 조합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캐나다 CDF의 협동조합 국제개발



최근 국제개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SDGs'와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경제적 자립 등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하 ICA)은 SDGs와 협동조합의 원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고[1], 협동조합 관련 학회나 연구 저널에서도 SDGs와 협동조합에 대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

국내 협동조합들은 ICA 활동이나 공정무역 혹은 민중교역을 통해 해외 협동조합 활동과 제3세계 협동조합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재단과 성공회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참여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ve Agency(이하 KOICA) 연구 사업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국내 협동조합 개발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 제3세계 협동조합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 보고서는 한국의 경험과 자원이 다른 국가의 협동조합을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한국의 협동조합이 국제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의 모습은 어떠할까? 왜 협동조합은 해외 협동조합을 도와야 하고 그들과 함께 발전해야 할까? 기존의 국제개발협력과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은 무엇이 다를까?

이 글에서는 캐나다 협동조합개발재단Co-operative Development Foundation(이하 CDF)의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 활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에는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국제개발 사업을 하는 3개의 단체가 있는데, 퀘백 데잘뎅 그룹의 국제개발부Desjardins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퀘백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설립했으며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협동조합을 지

1 ICA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ica.coop/en/our-work/sustainable-development-goals

2 지역재단 · 성공회대학교 (2016). 『협동조합 분야(2개 사업) 통합 사업기획 조사 및 ODA 모델 개발』. 한국국제협력단.

원하는 SOCODEVI Société de coopération pour le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그리고 CDF가 있다. CDF는 퀘백 외 캐나다 지역의 협동조합연합회였던 캐나다 협동조합연합회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이하 CCA)의 활동을 이어 영어권 국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CDF의 사례를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 협동조합 국제개발 협력단체, C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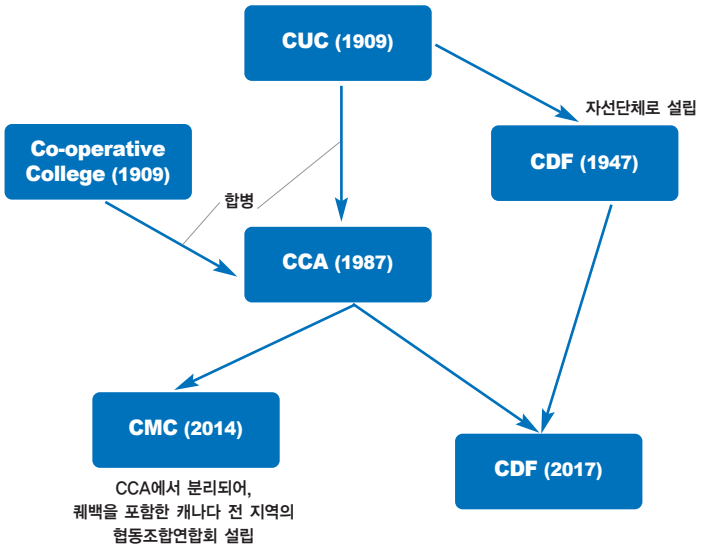
캐나다 협동조합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게 된 것은 여러 사건과 사람들에 의해서였다. 그 시작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퀘백을 제외한 캐나다 전 지역의 협동조합연합회였던 CUC Co-operative Union of Canada의 리더들은 국제 정서에 민감한 세대였다. 이들은 캐나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실천하는 한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여러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1947년 CUC는 협동조합 개발 및 연구, 교육을 위해 CDF를 자선단체로 설립한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레이들로 Alexander Fraser Laidlaw 박사가 CUC의 리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협동조합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레이들로 박사는 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안티고니쉬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CUC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캐나다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국제개발 참여는 1970~1980년대 당시 캐나다 국제개발청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이하 CIDA)의 국제개발 원조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확대되어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캐나다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과 지역개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가진 힘을 알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CDF 전체 사업의 60%는 캐나다 글로벌부 Global

Affairs Canada(이하 GAC[3])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협동조합의 국제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캐나다 현지의 협동조합 전문가들이었다. CDF는 캐나다 북부지역 원주민(소수민족)의 협동조합을 개발하고 그들이 지속가능한 삶과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캐나다 협동조합은 지역별, 분야별 연합회를 구성하여 캐나다 전역에 협동조합운동을 확산시키고 지역

〈그림〉 캐나다 협동조합 연합회 변화에 따른 CDF의 위치 변화



3 1968년에 설립된 캐나다 국제개발청(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은 캐나다 ODA를 전담하는 기구로 무상원조 사업과 다자간기구(다자개발은행, 유엔 및 지역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2013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캐나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긴밀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캐나다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DFAIT)와 CIDA를 통합하여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DFATD)를 설치하였고, 그 뒤 해당 업무를 캐나다 글로벌부(Global Affairs Canada, GAC)에서 진행하고 있다. GAC는 캐나다 외교 · 영사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편집자 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협동조합 리더, 실무자, 활동가, 조합원들이 길러졌다. 이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해외로 확산시켰다. 해외에서도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의 발전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CDF는 캐나다 협동조합이 국제개발에 참여한 역사와 같이 해왔다. 최근 퀘백 지역을 포함해 캐나다 전역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연합회 CMC Co-operatives and Mutuals Canada 설립 과정에서 CCA에서 담당해온 국제개발 사업은 CDF 조직의 이름 아래 통합되었다. 그래서 CDF의 직원 25명이 12개국에서 11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 국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CDF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접근 1
: 개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발전

국제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업 이후의 지속가능성과 개발효과성이다. 외부 지원이 끝난 뒤 현지에 얼마만큼의 개발 효과가 남아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적게는 몇 만 불에서 많게는 몇 천만 불이 해당 지역의 프로젝트에 투입된 후, 그 자원이 지역과 대상에 의미 있는 발전을 가져왔는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은 공여기관에서 요구하는 성과 평가를 통해 점검 및 정리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 사업에 참여한 수많은 실무자와 협동조합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전달될 수도 있다. CDF는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해왔을까? CDF의 사업은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핵심 목표로 한다. 즉, 지역 주민 또는 경제적 약자의 연합체인 협동조합의 발전이 개발사업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CDF는 스스로를 국제개발 사업의 주인공이 아닌 파트너이며, 공여자

가 아닌 '현지 협동조합과 함께 일하는 팀'이라고 소개한다. 공여 단체가 아닌 사업 수행자 혹은 사업 책임자이지만, 모든 논의와 실행은 현지 협동조합 파트너들과 함께한다. CDF는 많은 자원이 있는 공여 기관도 아니고, 여러 개발도상국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규모 조직도 아니다. 때문에 모든 사업은 현지 파트너를 찾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현지 파트너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협동조합연합회 혹은 지역의 협동조합 전문가들이다. 물론 해당 국가에서 전문가를 찾는 일이나 해당 국가의 협동조합연합회와 박자를 잘 맞춰 일하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CDF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협동조합 현황을 당사자들보다 잘 알 수 없으며, 현지의 개발협력 수요는 현지 협동조합과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연합회는 단위 협동조합들이 모인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대부분의 개발협력 NGO들이 그렇듯 CDF도 현지 사업 종료후 계속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 없다. 3~5년이라는 시간은 협동조합의 충분한 발전에는 부족한 시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라도 협동조합의 가치를 경험하고, 참여한 현지 주민들 스스로 협동조합의 의미로부터 미래를 위한 자기학습과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개발협력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캐나다 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간 경험이 CDF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에 반영되어 있다.

가나의 신용협동조합연합회 CUA와 페루의 생산자협동조합연합회 NORANDINO의 경우, CDF와 15년 이상을 함께 일해 왔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현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CDF는 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리더십과 협동조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DF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에 특정한 방향을 제

시하거나, 정답을 주지 않는다. 조합원들과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당면한 과제들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캐나다의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해당 지역의 협동조합 리더, 실무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서로의 만남을 통해 보다 긴밀하게 과제를 들여다보며 각 협동조합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CDF의 전략인 셈이다.

협동조합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CDF가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캐나다 협동조합과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CDF는 여성 멘토십 프로그램[4]으로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연합회와 캐나다 협동조합 리더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역량구축을 도모한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협동조합의 여성 리더들을 캐나다로 초청해 캐나다 신협 여성 리더들과의 교류는 물론 리더십 훈련, 캐나다 신협의 일상적인 운영과 경영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말한 가나의 신협연합회 CUA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십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가나 협동조합 리더십의 47%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5].

CDF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접근 2
: 개발도상국 협동조합의 역할

CDF와 함께하는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들은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지역과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모든 사업은 '협동조합이 조합

4 Women's Mentorship Program,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개국의 239명의 개발도상국 신협 여성 리더들과 200개 이상의 캐나다 신협이 참여해왔다.

5 CDF 내부 자료.

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산-시장-자금조달이라는 3가지 요소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시작한다. 개발도상국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생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시장으로 연결시켜 조합원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과 판매 활동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금조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DF는 이 순환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통해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 선순환이 될 때, 외부 자원의 의존없이 자생할 수 있으며, 회복력resilience을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근 CDF가 가나에서 진행한 식량안전FOSTERING사업[6]은 협동조합을 통해 빈곤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사업이 진행된 가나 북부지역은 가나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수확철이 아닌 때에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농업에 대한 이해가 낮았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도 취약했다. CDF는 캐나다 글로벌부GAC의 지원을 받아 소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농민들의 생산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지원을 받은 농민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한편, 농작물의 저장 및 시장 수요에 맞춰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가나 신협연합회인 CUA와 함께 농민들의 생산 및 마케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가나 북부지역의 130개 마을에 거주하는 5만 명의 소농민들은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중 3만 명의 소농민은 신협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6 가나 북부지역의 협동조합을 통한 식량안전 사업(Fostering : Food Security Through Co-operatives in Northern GHANA),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

협동조합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는 없다. CDF는 하나의 사업으로 지역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사업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의 파트너를 찾아 연결시키고, 협동조합의 리더들과 조합원들을 교육한다. 지금도 진행 중인 미얀마의 농촌 지역 금융 서비스 확대 사업MyFINANCE 사업[7]은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소액대출 및 저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얀마 주민들은 장기적인 정치 불안정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현금을 모아 '금'을 사고, 그 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CDF는 이 사업을 통해 현지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 경영과 금융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목표와 주된 내용은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을 보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이들의 생산품을 시장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자신은 물론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게 됐으며, 협동조합의 리더들 역시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보험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 농민들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소규모 사업자는 자연재해로 사업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CDF는 그동안 일반 금융기관의 보험상품에 접근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신협, 농협을 통한 보험상품을 제공해왔다. 필리핀의 여성 소기업가를 위한 소액보험 사

7 미얀마 농촌지역의 금융 서비스 확대 사업(Finance Inclusion Myanmar–Expanding Financial Services in Rural Myanmar),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업Premium[8]은 '사리사리Sari-Sari Store[9]'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들을 위한 소액보험Micro Insurance을 지원한다. 태풍 하이옌Hyiyan 이후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한 필리핀의 여성 소규모 사업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보험에 가입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을 통한 보험은 일반 금융기관의 보험과 달리 조합원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익과 각종 혜택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에게 적합하다.

CDF의 변화와 미래

2014년부터 CDF는 캐나다 협동조합 내 네트워크 조직의 변화로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퀘백을 제외한 캐나다 전역의 협동조합연합회였던 CCA가 진행한 국제개발 사업들이 퀘백을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협동조합연합회인 CMC가 따로 설립·분리되면서, CDF의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조직의 위치가 변하자 CDF가 당면한 환경이 변화한 것이다.

70여 년이 넘는 CDF의 협동조합 국제개발 경험은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변화하더라도 그들 사업의 중요한 암묵지로 남아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다양한 사업기회를 포착해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낼 때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CDF는 모든 개발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님을 알고 있고 있으나,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데 있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가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간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믿고 있다.

8 필리핀의 여성 소기업가들을 위한 소액보험 사업(Bagong Araw Philippines : Rebuilding Through Microinsurance and Women's Micro-Enterprises),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9 마을에서 각종 식료품부터 생활용품 등 다양한 것을 판매하는 매점을 말한다.

최근 국제개발 섹터 내의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 상황에 대해 CDF의 직원들은 '언제나 어려움은 있었으며, 우리는 이를 또 헤쳐나가면 된다'고 말한다. 최근의 변화는 기회일 수도 혹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CDF는 캐나다 협동조합연합체로 일하던 CCA 때와는 분명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캐나다 협동조합들 외 다양한 외부 후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은 오히려 CDF의 리더, 실무자들에게 그동안 CDF에서 추진해온 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동안 무엇을 했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 공여기관에 보고하는 성과 평가를 넘어 CDF의 일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할 단계가 온 것이다.

한국 협동조합의 국제개발 참여에 대한 기대

이 글의 목적은 캐나다 CDF의 사례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국제개발을 실행하는데 완벽한 사례라고 알리는 것에 있지 않다. CDF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지의 여러 컨설턴트와 전문가들, 그리고 협동조합연합회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을 통해 현지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지역의 협동조합이, CDF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공여기관에 이를 제안하는 전달자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CDF의 사업과 사업 실행의 주된 관점을 그대로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다른 협동조합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갖고 있는 역량과 자원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해 1991년 KOICA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국제개발협

력 분야에서 떠오르는 원조국가로 소개되고 있다[10]. 일부 국내 협동조합은 해외 원조 자금과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해외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운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제개발과 협동조합을 연결함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이라는 원칙은 국제개발 분야에서 공여자-수여자의 관계를 넘어 파트너십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CDF가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과 다음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기대를 보여준다. 국내 생협들은 공정무역 혹은 민중교역을 통해 제3세계 협동조합과 협력·연대하는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다. 아이쿱생협의 공정무역기금,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PTCoop, 피티쿱의 아시아민중기금은 국제개발협력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다. 한편, 개발도상국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과 인재가 필요하다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 이슈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 그리고 조합원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그대로 국제개발협력 현

10 'Funding Report: Emerging Donors 2.0', DEVEX (https://pgs.devex.com/emerging-donors-report/)

장에도 적용된다. CDF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많은 수가 캐나다 협동조합의 실무자 혹은 경영자들이다. 협동조합 경영에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동조합 실무에서 경험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현지 협동조합으로 전해진다. 자원봉사자들은 몇 개월 이상을 현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한편,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 자원봉사의 경험을 실무에서 활용한다. CDF가 지금까지 협동조합 국제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협동조합의 리더, 실무자, 활동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여기관의 사업비만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해외 생산자협동조합을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다. 아이쿱생협과 두레생협은 지난 10여간 생산자-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생협에서 진행하는 공정무역 캠페인은 생산자협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조합원들이 그 곳에서 학습하고 체험한 것들이 다시 일상에 돌아온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읽히고 반영되어 소비자의 역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국제개발협력과 협동조합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있어 국내 상황은 결코 척박하지 않다. 우리에게도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쌓은 역량과 재원이 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은 국제개발의 전문가들이 있고, 협동조합에서 잔뼈가 굵은 활동가들이 있다. 생협의 조합원들은 공정무역을 통한 우리의 소비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힘이 되고, 생산자협동조합과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제는 국내 협동조합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논의해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돌발 논문

김 대 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한국 생협,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한국 생협이 일구어낸 성취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에 봉착한다. 날마다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고 해결하고 극복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정면으로 돌파해 새로운 국면을 여는 방식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덤덤히 받아들이고 순응하기도 한다. 또는 우회하거나 회피하여 혹시라도 겪을 피해나 상심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 생협의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10여 년에 걸쳐 연평균 생협의 조합원 증가 추세, 공급액의 성장률이 국가 경제성장률의 4~5배 이상에 달하는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조선,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생협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과거에 비해 조합원 증가 추세가 감소되고, 매출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이도 있고 반대로 너무 커져서 문제라는 이도 있다.

현재 4대 생협연합회(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에 가입되어 있는 생협 조합원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115만 가구를 넘었고, 사업 규모도 1조 1,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전국의 스무 가구 중 한 가구는 생협 조합원이라는 이야기다. 조합원들 중에는 2개, 3개 생협에 중복 가입하여 각 생협의 장점을 고루 이용하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다. 최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아이쿱 조합원의 34.3%는 타 생협 조합원이기도 하고, 21.3%는 현재도 아이쿱과 타 생협을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유럽의 나라들처럼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이 전 국민의 1/2, 1/3에 달하는 나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생협 조직들의 성취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유럽과 같이 협동조합이 초기 소매유통 산업의 단계에

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영리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확장해온 상태에서 한국의 생협이 시작되었고 그 틈바구니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크다.

그동안 생협이 이룬 성취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요인이 주로 언급된다. 첫 번째는 신뢰성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 먹을거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은 있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기업)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화시기에 급속하게 확산된 관행 농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유기농업으로 회귀한 선도적 생산자들과 협력하여 소비자들은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생산과 소비가 서로를 지지하는 가운데 신뢰의 기초를 구축했다. 두 번째는 희소성이다. 생산 규모나 유통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친환경·유기 또는 국산 농산물은 일반 관행 농식품에 비해 가격이 높았고, 이는 생협의 대중화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영리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친환경·유기 농식품 시장은 틈새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1990~2000년대 생협이 성장할 수 있었던 사회적 요인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결사의 자유가 확보되었던 때에, 전업주부들이 일상 속에서 참여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기혼 여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전업주부를 남성 세대주 중심의 고용 관행을 뒷받침하는, 가사와 가정 내 돌봄 전담자로 설정했던 것이 경제성장기 한국의 노동 및 복지 서비스의 실태였다. 전업주부들은 협동적이며 윤리적인 소비로 생산 체계를 바꾸는 경제운동을 생협을 통해 실천하면서 사회와 연결되었다. 영리와 명예를 바라지 않는 이들의 헌신적인 조합원 활동으로 조직운동과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이러한 생협 활동가, 운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은 불가능할 것 같던 그 모든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생존과 성공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변하고 있고 그

여파는 최근 수년간 생협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생협의 성공과 친환경·유기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영리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유통 채널이 속속 등장하면서 생협이 가진 기존의 희소성은 취약해졌다. 친환경 인증의 남발, 부실한 관리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예전만 못하다. 여기에 인구구조의 변화는 거의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생협에도 그 여파가 매우 크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 구성 형태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전업주부층은 해체되고 있다. 독신가구, 자녀 없는 부부세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생협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집에서 밥을 해 먹기보다는 외식을 하거나 배달 식품을 이용하는 등 식탁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어느 산업, 업종과 비교해봐도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며 외견상 중견기업의 수준으로 성장한 생협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상으로 심층적이다. 그러나 아직 심층적 진단과 대응 전략의 구상, 도전은 생협계에서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생협계에 생협의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식생활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생협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협의 '본원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원적 경쟁력이란 생협 조합원들이 본래 생협에 바라는 요구에 집중하여 기존의 영리기업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과 혁신, 실험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희소성, 차별성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생협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대표 식품,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 몇 가지 시도와 도전에 대해 살펴보자.

1) 더불어식품 사건으로 인한 신뢰의 위기와 극복

2004년은 생협의 역사에서 매우 큰 사건이 있었던 해였다. 가공식품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던 당시 더불어식품이 혼입 사건을 일으켰고 그 경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 사건의 요체다. 당시 더불어식품과 거래하던 생협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과, 거래를 중단했을 때 다른 대안이 없고 그동안 함께 동반해왔는데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입장을 취한 아이쿱생협은 혼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후속 조치를 강구했다. 물품의 이용자인 조합이 참여한 친환경유기식품인증협회(현재의 아이쿱인증센터)를 설립해 생산 인증뿐 아니라 유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협력 기업들과 손잡고 원·부재료의 입고, 전처리, 가공, 생산, 물류 연결을 한 거점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구례와 괴산에 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하는 일까지 추진했다. 방문하는 소비자와 조합원에게 모든 생산 과정을 공개하는 자연드림파크 내 각각의 공방은 그 자체로 신뢰와 안심의 상징이 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활동과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1차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의 문화·교육·복지 인프라의 확충, 농촌지역의 재생과 회생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독자 인증 시스템을 통한 신뢰 구축과 친환경 식품 클러스터를 통한 생협의 상품, 서비스 경쟁력의 제고는 2004년 더불어식품 사건 이후 약 15년간 아이쿱생협이 줄기차게 도전해온 일이다.

2) 필요의 지속적인 실현, 논지엠오 압착유

국내에서는 식용유를 생산하기 위한 유지 작물이 거의 재배되지 않는다. 양념으로 주로 쓰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그럭저럭 자급을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산이다. 시중의 식용유는 수입산일 뿐 아니라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거나 화학적인 정제 방식을 통해 생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은 논지엠오Non-GMO 압착 유채유를 개발해보자는 논의를 했고, 괴산 자연드림파크에 생산시설을 지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가공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식용유와 전국의 조합원이 개별 소비하는 식용유를 생산할 수 있었다. 다른 생협도 이런 시도와 도전에 나서고 있다. 행복중심생협은 자체 생산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콩기름을 수입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가 하면 최근 한살림도 기존의 압착 방식으로 생산하는 논지엠오 콩기름을 개발·공급하기 시작했다. 두레생협 역시 논지엠오 유채유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 국산밀 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

국내산 취급을 우선하는 생협들은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산밀 생산의 최대 지지 기반이다. 그러나 그 이상 확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격 문제도 있지만 국산밀의 품종이 다양하지 못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쿱생협은 국산밀에서 글루텐과 전분을 분리하는 공방을 지어 생산 품목에 적합하게 글루텐과 전분의 함량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국산밀 품종의 한계를 극복했다. 생협이 공급하는 라면 등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는 식품에도 수입산 글루텐이 여전히 쓰이고 있지만, 아이쿱생협은 이를 모두 국내산 밀로 만든 글루텐으로 대체했다. 빵류, 과자류, 면류 등의 제품을 각각의 물품 특성에 맞게 생산하고 조합원의 만족

도를 크게 높임으로써 국산밀 이용·소비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4) 새로운 도전, 논지엠오 사료로의 전환

국내산 농식품을 취급하는 생협에서 가장 난제는 축산 문제였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식품은 논지엠오지만 축산에서의 사료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뾰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사료를 논지엠오로 하기도 했지만 전 품목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또한 축종별로 한계가 많았다. 조합원들의 문의와 건의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축산 문제였다. 원료 확보에서 사료의 생산,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쿱생협은 본격적으로 축산 사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전 축종 논지엠오 사료로의 전환을 완성할 수 있었다. 또한 전용 사료공장의 건립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시도들은 단기의 수지, 이익만 생각하면 시도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협도 마찬가지다. 당장의 경영 어려움에 골몰하면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큰 규모의 투자와 장기간의 인내를 선택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는 매우 빠르고 투자의 효과, 혁신의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순간 단기적인 대응과 새로운 진입을 제한하려는 문지기 방식gate keeping의 대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당장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이다.

20년 전 과거를 돌이켜보자. 1998년 생협법을 제정할 때 전국의 슈퍼마켓 연합조직이 들고 일어나 반대 시위를 했다. 생협이 제도화되어 확산되면 동네 슈퍼마켓의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결과 생협은 조합원만 사업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취합할 수 있는 품목에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동네 슈퍼마켓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형 할인마트와 SSM, 동네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과의 경쟁에 밀려 도태되고 있는 현실이다. 생협과는 아무런 상관없던 시장 참여자들과의 경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런 징조는 지금 현재도 여러 경제활동 영역[1]에서 목격되고 있다.

생협의 미래, 본원적 경쟁력의 회복으로부터

사회구조와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생협의 위기를 감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구상해야 할까? 과거 90년대 생협과 슈퍼마켓 간의 갈등 전개와 현재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다른 주체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제약함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과 발상으로는 당장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거나 심리적 위안을 얻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미래로 나아가는 힘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 위기의 본질과 실체를 제대로 읽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많은 시민들에게 생협이 어떤 메시지와 협동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조합원과 함께 깊게 고민하고 결의하고 도전해야 미래로 가는 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역 주민을 생협에 참여하게 하고, 생협을 내 집처럼 편안히 여기며 드나들고 서로를 만나며 함께 살게 만들 것인가? 과거 생협의 성공과 성장의 요인이었던 신뢰와 기대, 시장 내에서의 차별성과 희소성, 활동가의 헌신을 대신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현 시기에 필요한 생협의 '본원적 경쟁력'은 무엇일까? 이를 새롭게 규명하고 재구축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야말로 실체가 불명확한 생협의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 숙박업소와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 공유 서비스의 경합과 갈등이 대표적이다.

생협 줌 인 zoom in

김성광
flysg2@hani.co.kr

내 마음속
〈세한도〉

제주도 중산간 눈보라 속에서 상록활엽수를 마주하자 〈세한도歲寒圖〉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 그 광경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세한도〉는 조선 중기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추사 김정희가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그린 그림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눈과 서리에도 꿋꿋하고 싶습니다. 늘 푸르고 싶습니다.

기획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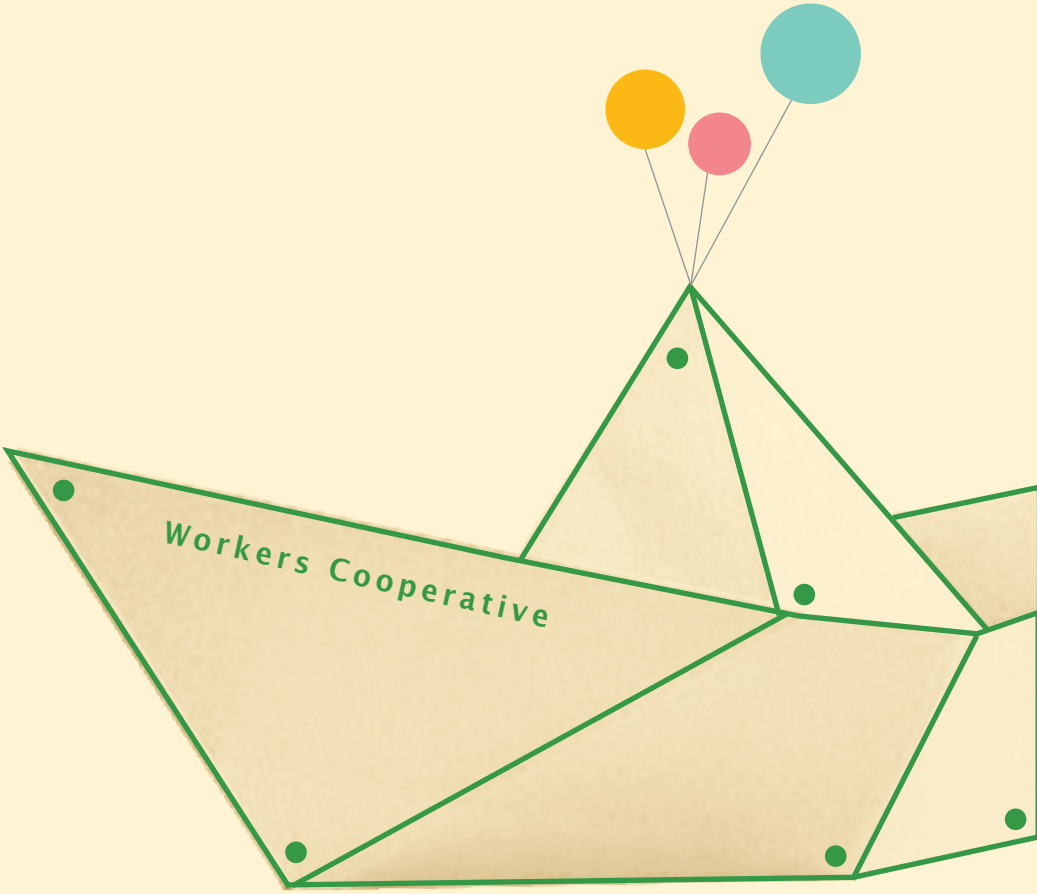
유형별 협동조합 비즈니스 첫걸음

3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

김현하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책기획부문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노동자가 직접 주인이 되어 고용의 질과 노동조건을 높이는 경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주춤하던 노동자협동조합이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주인 되기를 선택한 노동자 조직 형태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주인이다'라는 구호를 어떻게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막연하기만 합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면 월급이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까요? 막연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출발한 새로운 시도는 안타까운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드는 모호한 생각들을 구체적인 고민으로 옮겨보려 합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공짜가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추구만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없고, 사업적 성취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결과물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 Decent work'는 적정임금, 다양한 사회보험,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적정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에 더 가깝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월 212만 원입니다. 5명이 함께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이라면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노동자 조합원에게 다양한 사회보험과 매달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산업도 있지만, 특별히 유리한 산업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

기 때문에 자본집약적인 설비와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유리합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이 진입하려는 산업에서 '자본'이 경쟁의 결정적 요인이라면, 출구 전략을 빨리 찾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등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은 현재의 제도상 출자금 외 마땅한 자본 조달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노동의 질적 개선을 소비자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협동조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나 가사 서비스, 방문돌봄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산업에서 노동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서비스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노동자가 어떻게 다른지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재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높은 신뢰는 매출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동자협동조합인 CHCA[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는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협동조합으로서 약 2,000여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노동집약산업은 노동 의존도가 높지만, 흔히 몸 쓰는 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그러하듯 구성원들의 노동이 저평가받거나 저임금으로 소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주주가 없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주인'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 실질임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임금 저부가가치 노동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협동조합도 노동자의 자발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동집약산업의 저부가가치 모델을 고부가가치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괜찮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직 운영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성 자체가 조직 혁신이 되어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위해서는 사업적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많은 곳에서 리빙랩[Living Lab]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 분야와 연결한 다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교육 훈련 모습
출처 : CHCA 홈페이지(http://www.chcany.org/)

양한 생활 속 실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도 R&D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더해 ICT, IoT 등 새로운 기술을 노동집약 서비스에 적용해 사업을 고도화하고 확장해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한 가전업체가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냉장고를 출시했습니다. 12시간 동안 냉장고 문을 열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이 가는데요, 이런 인텔리젠트 가상 어시스턴트Intelligent Virtual Assistant를 활용한 사회안전망을 노동자협동조합과 융합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동자협동조합은 주인의식을 보장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협동조합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즉 통제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자는 했지만 협동조합의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혹은 결정할 수는 있지만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말뿐인 주인에 불과합니다. 작게는 업무 스케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일부터 정기총회에서 노동자가 중요한 안건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도 적극 개입해야 주인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노동자협동조합 대표들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종업원 소유기업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총회마다 우선순위 기입 용지를 배분해 직원들이 올해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내용들을 써서 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때론 무엇을 새롭게 하기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노동을 요구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자기 일처럼 일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과연 노동자, 알바생만의 탓일까요? 재밌는 실험이 있어 하나 소개합니다.

> 아누비스개코원숭이는 독재 체제인 위계질서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자주 싸움을 벌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 구경꾼을 때리기도 한다. 암컷 서열은 세습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다. 1980년대 초 이들 원숭이는 밤이 되면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장으로 몰려들었는데 이들 원숭이들이 음식을 차지하려고 호전적인 다른 곳의 아누비스개코원숭이들과 자주 싸우곤 했다. 1983년 어느 날 한 원숭이가 쓰레기장에서 결핵균에 감염된 고기를 먹으면서 쓰레기장을 지키던 많은 원숭이들이 죽었고 주변의 공격적인 아누비스개코원숭이들도 이들 쓰레기들을 먹으면서 집단적으로 죽었다. 그러자 변화가 생겨났다. 호전적인 원숭이들이 죽자 높은 서열의 수컷 원숭이가 낮은 서열의 원숭이를 공격하는 일들이 줄었고 구경만 하는 암컷 원숭이를 때리는 일도 줄어들었다. 암컷과 사이좋게

털을 고르는 행동도 늘어났다. 변화는 또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입 아누비스 개코원숭이가 무리에 들어오면 60일 정도 지나야 암컷과 교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새로워진 원숭이 무리에서는 그 기간이 18일로 줄어들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초의 자상한(?) 원숭이들이 모두 죽은 뒤에도 이런 우호적인 생활방식이 유산으로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처음의 위계적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영원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브라이언 M. 카니·아이작 게츠 (2009). 『자유주식회사 : 사람을 기꺼이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의 힘』

무엇을 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관행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규칙을 만들면 규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또 잘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상벌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처음 의도와는 다른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책 속 사례는 새로운 원숭이의 등장이 아니라 서열 높은 원숭이들이 사라져서 변화가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대표의 말 한마디로 뒤집혀버리는 의사결정, 피라미드식 위계, 관료주의, 보신주의에 빠진 조직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원숭이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대표가 먼저 나서서 규칙과 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태도로 직원들을 대하면 직원들도 평등을 보장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에 원숭이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원한다면 무엇을 새롭게 실행하기보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잘못된 관행과 문화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만약 그런 관행과 문화가 존재한다면, 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상호작용을 하기가 용이하지만,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직접 관계하는 일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는 더 일하고 누구는 덜 일한다는 문제로 쌓인 조합원 간의 갈등이 큰 내홍으로 번지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함께 일하며 같은 공간에서 보내기 때문에 익명성을 가지고 무임승차를 해도 쉽게 발견됩니다. 흔히 무임승차는 비배제성非排除性, non-excludability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짜로 기차에 승차하려고 할 때, 누가 그랬는지 가려낼(배제할) 방법이 없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노동자협동조합처럼 일터에서 대면이 빈번한 경우에는 무임승차를 하려 해도 다른 동료가 이를 쉽게 알아 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은 없는지, 왜 그러는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언과 경고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더 큰 문제는 높은 자발성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했지만, 이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기여도가 큰 조합원에게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어야겠지만, 문제는 측정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협동조합에서는 선임자의 평가와 동료의 평가, 자신의 평가를 각각 3:3:3으로 구분하여 기여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때론 구성원 모두에게 성과를 1/n로 단일하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협동조합에서 일한 조합원의 기여를 인정해 연공서열에 가중치를 두어 성과를 배분하는 곳도 있습니다.

핵심은 기계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각자가 원하는 만큼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여에 따른 보상을 물질적 보상 외에도 인정과 존경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꼭 돈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물질적 보상이 없는 경우가 나올 때도 있습

니다. 즐겁기 때문에 그 일에 열중한 사람에게는 물질적 보상이 제공될 때 오히려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은연중에 행동과 보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인과관계로 인해 애초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행동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성과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구성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보상, 즉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존중과 존경을 통한 보상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한 회사는 1년에 한 번, 회사 동료와 가족들을 초청해 공로가 큰 직원을 선정해 기사 작위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선정된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나름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진행된 많은 실험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관찰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협력적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 나에게 더 좋은 대접이 되돌아올 것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평판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합원이 겪는 이중의 위험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노동자가 회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출자마저도 충분하게 모이지 않습니다. 미미한 수준의 자본은 회사에 의미 있는 자본금이 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출자에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회사가 잘못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출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노동자는 회사가 잘못된다면 일자리를 잃는 것이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출자금도 잃게 되는 이중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출자를 회피하는 것은 개인에게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정책,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 협력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원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다른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을 만들어 만일에 있을 회사의 위기, 조합원의 실업에 대비한다면 노동자들이 출자금을 회피할 위험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조합원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이 구조적,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영 위기에 연대로 만든 공제조합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갖는 출자 부담도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상당한 수준의 출자를 했더라도 어제의 임금노동자가 오늘의 주인으로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원의 주인의식이 실제 직무 수행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거치듯 전이transfer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천해보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스스로 개선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주인의식이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바로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조직부터 사내 성희롱 및 안전 관련 교육 기획, 사내 식당 운영, 사보 제작, 학습 공동체 운영 등 조합원의 역량에 맞는 비기업 활동에서 시작해 기업의 리더 역할과 비전을 찾는 일로 확장하며 주인 노동을 구현해볼 수 있습니다. 노를 젓는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으로 너무 힘을 많이 주는 사람, 노를 물에 넣었다가 빼기만 하는 사람, 다른 방향으로 젓는 사람이 함께 노를 저으면 물만 요란하게 튈 뿐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의 자율성과 역량을 키워야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인의식과 자발적 기여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서평

연대와 협동으로 마을의 삶을 바꾸는 실천서

『마을에서 함께 읽는 지역관리기업 이야기』
김신양 지음, 착한책가게, 2018
『지역관리기업, 사회관계를 엮다』
마르끄 하쯔펠트 지음, 엄형식·김신양 옮김, 착한책가게, 2018

오창호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지금의 지식정보화사회에 이르기까지 마을이라는 공간 및 사회관계가 가지는 의미와 형태는 변해왔지만, 여전히 마을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터이자 거의 모든 해결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그러한 삶의 공간인 마을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사회관계가 끊어지고 지역문화의 창출과 공유가 멈추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공동체성까지 옅어지면서 이제 마을이 제공해주던 많은 가치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도 더 힘들어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이자 해결책인 마을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공동체성을 키우면서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사회적 통합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마을'을 이야기하고, '현장'을 살피며, '주민 참여'를 고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구자들은 도시빈민운동, 자활과 자립을 위한 공동체 운영, 지역 내 연대와 협력 활동 등의 실험을 거듭해왔고, 생산 공동체,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여러 조직 형태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작은 마을 단위에서의 성공 사례는 다수 나왔지만 이를 체계화해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 점에서 마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 이야기는 단번에 우리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지역관리기업은 프랑스의 '아픈' 지역,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갈등이 누적되어 지역 구성원 간 분열과 책임 회피가 만연한 곳에서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관계를 엮어냄'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다. 1980년부터 시작되어 40여 년 가까이 제 모습을 갖추어온 지역관리기업은 2015년 시점에 125개(추가로 14개가 설립 준비 중) 마을 단위 지역관리기업과 14개의 광역 단위 지역관리기업이 320개 마을에서 300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을에서 함께 읽는 지역관리기업 이야기』는 프랑스 유학시절 저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지역관리기업 현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사회적 맥락, 그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외면하는 마을과 마을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프랑스 실천가들의 고민과 모색, 실험과 노력을 오롯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경제가 외면한 곳, 정치도 어쩌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보란 듯이 결과를 만들어낸 지역관리기업의 모습을 상세히 그려낸다.

지역관리기업이 마을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시각과 접근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역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개별적 측면이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은 부동산과 인프라만으로 구성된, 재산과 소유주와 행정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 사람이 살고 있고 일상과 기억이 있고, 이웃 관계와 교육과 문화가 있다. 지역 재생이나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관계·정치 관계·직업 관계를 모두 함께 엮고 있는 사회적·정치적·직업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 문제의 해결은(즉, 지역관리기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관리기업, 사회관계를 엮다 *Topo-guide des régies de quartier : tisser le lien social*(1998)』의 저자 마르끄 하쯔펠트Marc Hatzfeld는 지역관리기업의 성격을 '책임감 있는 민중의 결사체'로 정의하고 있다. 사실 지역 구성원인 주민의 참여와 책임감 있는 활동을 확보하는 것은 현장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지역관리기업은 주민들이 가진 지혜와 잠재력을 믿고 이들을 도와 역량을 키우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주민들의 사연에 기반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만나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주민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같이 어울리고 친해지면서 신뢰를 쌓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관리기업 실무자의 역할을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지혜를 드러나게 해주고, 그것이 잘 쓰이도록 하는' 일로 정의하거나, 가장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는 교육훈련 사업을 '주민 자신이 처한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는 자세를 기르는' 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관리기업의 마을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결국 사회관계를 엮어내는 것,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 간에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래야만 협동의 토대가 생기고, 협동의 힘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관계 속에 있어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지역 일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곳이 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과 접근 방법은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동해온 활동

가들 역시 깨닫고 실천해온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관리기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지역 자활, 마을공동체 운동에 던지는 의미와 시사점이 크고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더구나 지역관리기업의 설립과 운영 매뉴얼인 『지역관리기업, 사회관계를 엮다』가 같이 출간됨으로서 개념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현장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친절함까지 제공하고 있다. 실천서에는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경험을 아주 세밀하게 단계별, 분야별, 주체별로 서술하고 주요 문제와 이슈, 대응 방안들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초점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조직 형태 자체보다도 지역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시각과 다각적인 문제 해결 방식, 주민 참여와 주도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해관계 주체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에 두어야 한다. 이 책은 '생활 공간인 마을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마을을 어떻게 유지하고 아름답게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지금도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복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등 다양한 정책과 실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지혜를 제공한다.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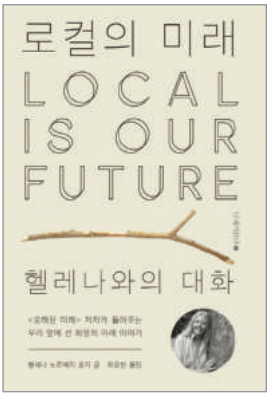
‘나쁜 선배들’이 꿈꾸는 미래

『로컬의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최요한 옮김, 남해의봄날, 2018

이주희

더이음 운영위원



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에서 지역운동가로 살았다. 누구나 그렇듯이 평생 지역운동가로 살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또 누구나 그렇듯이 활동의 시작은 나쁜 선배(?)를 만난 탓이었다. 그 선배들에게 속았다. 우리가 하는 작디작은 활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비효과가 될 거라고 했다.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예쁜 동화처럼 들려주었다. 『로컬의 미래 : 헬레나와의 대화』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그 선배들을 닮은 책이라고 생각했다.

참 열심히 활동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걱정스럽게 변해간다. 며칠의 이벤트를 위해 수백 년 된 나무를 자르는 가리왕산, 더 넓은 도로를 위해 사라진 비자림, 플라스틱과의 전쟁, 예상치 못한 폭염, 내 방과 비슷한 고시원의 화재 그리고 막을 수 없었던 죽음,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무표정…. 사회는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와는 정반대로 급주행하고 있다.

선배들과 이 책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는 그 원인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했다. 믿지 못하겠다. 지금 지하철에서 신경질적으로 나를 밀쳐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원인이 있다니. 세계는 이미 대기업과,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는 정부만 있다. 그들은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 역시 훌륭하게 만들어놓았다. 우리는 허울 좋은 세계화 속에서 단지 소모품일 뿐이다. 소모품들에게 인생의 즐거움이나 안락함 따위는 사치라고 했다.

지역화를 세계화하다

하지만 더 믿지 못하겠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역시 나쁜 선배들이다. 이 무자비한 세계화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지역화라고 한다. '지역화를 세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위기에는 공통의 원인이 있고, 그 공통의 원인을 찾아 큰 그림을 보고 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지역화, 풀뿌리운동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99%의 연대와 시위가 일어나면서 정부와 대기업들이 몰래 맺으려던 조약들이 공개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저항들이 일어나야 하며, 여기에 함께 연대하고 싸울 것을 강조한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지역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제도의 변화라고 했다. 또 다양한 풀뿌리운동이 자생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풀뿌리운동이 존재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많이 생겨났다. 덕분에 지역운동을 하면서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자원과 지원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맞다. 가끔 이런 변화들이 당황스럽기도 하다. 지역운동을 하면서 함께 협업하자고 애원(?)을 해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는 제 발로 찾아온다. 우리를 좋은 사례라며 칭찬해주더니 어느새 우리 이야기가 성과라며 문서로 정리해서 내어놓으라고 말한다. 많은 지원이 들어오는 대신 활동가들은 영수증 결산하느라 정신이 없어졌다.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익숙한 단어가 될 줄은 몰랐다. 저자가 이야기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의 변화가 이런 것일까.

사실 지역화,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그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무엇이 변화일까? 동네에 있으면 어제가 오늘 같고, 작년이 올해 같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역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경제성장은 그 나라의 GDP로 측정한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지표들이 존재하는데 지역의 변화는 무엇으로 측정하면 좋을까? 우리가 변화하기는 한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제일 힘이 빠지는 순간이다. 저자의 말처럼 실질진보지표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나 부탄의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등 이제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지표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 같다.

지역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지역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역운동 하자고 나를 꾀었던 그 선배들처럼 저자도 지역화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다.

참 탐나는 미래, 달동네의 재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싶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듣고 있자면 게임오버다! 그 꾐에 넘어가 또 한 번 속아보고 싶다. 그 미래가 참 탐나기 때문이다.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믿으며,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지금-여기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물건을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는 작은 규모의 동네를 꿈꾼다.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익을 위해 생산한 것들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건강한 과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만드는 것이다. 자연과 생태계를 일회용품처럼 휘저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숲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에 동네 안에 존재하는 나 자신이 안심되는 것이다.

나는 달동네에서 자랐다. 어디서든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 동네 곳곳에 인사하고 다녀야 할 어른들이 있었다. 각자가 지닌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돕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다. 모두 가난했기에 특별히 가난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서 내 존재가 안심되는 것이 무엇인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체득하며 자랐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세계화의 영향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나는 살던 집과 이웃을 잃었다. 내 이웃들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 시절과 그 동네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 달동네를 재현해내는 것이 지역운동이라고 믿는다. 나와 이웃, 나와 골목의 관계에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나온다고 믿는다. 우리 동네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작은 모임을 만드셨다. 서로 가진 돈을 모았다. 필요한 돈이 은행에서 대출되지 않거나 너무 소액일 경우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았다. 작은 신용협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지역 금융을 스스로 만들고 계신다. 특별한 것도 없다. 은행의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어간다.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지켜가고 싶다. 더 많은 모습으로 증명하고 싶다. 나를 꾀었던 그 선배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 저자가 전해주는 응원과 그 힘을 또 한 번 믿어보고 싶다.

공간에서 만드는 공동체의 힘

이주희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코워킹 스페이스로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가 강화되다

캐나다 퀘벡Quebec주에 자리한 원주민들을 위한 학교는 학생 70% 이상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곳 퀘벡 남서부 도시 가티노Gatineau에 위치한 FPIC First Peoples Innovation Center 내의 팹랩FabLab[1]은 15~25세까지의 원주민 학생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임파워먼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팹랩의 일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원주민들의 교육, 학습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라고 FPIC의 창립자인 셀린느 오클레르Céline Auclair는 말한다. 그는 "이곳의 교육은 강의실에 앉아 강사에게 주입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시도해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라고 팹랩의 운영 방식을 이야기한다. 팹랩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 중심의 협업 작업 공간 운동 중 하나이다. 센터 설립을 위해 협력한 사람들은 팹랩이나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현대적인 방식의 운동이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협동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부 원주민들은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캐나다 최초의 원주민 중심 코워킹 스페이스로 2017년 초부터 FPIC, 위니펙Winnipeg의 지원으로 설립된 카누 코워킹Canoe Coworking, 토론토Toronto의 도시기금으로 마련된 사회혁신가 및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원주민센터, 그리고 빅토리아Victoria의 SIC 혁신센터Songhees Innovation Centre가 그런 움직임에 따라 차례로 오픈했다. SIC의 공동 창업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인 제프 와드Jeff Ward는 최근 몇 년간 북미에서 많은 코워킹 스페이스가 등장했으나 원주민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운동이 원주민 커뮤니티에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만날 기회가 없었던 다른 분야의 원주민 동료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이점을 갖는다. 그 공간 안에서 구성원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단순히 사무실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SIC는 이미 지역의 원주민 조직과 개인들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제프 와드는 "이 지역을 혁신적인 원주민들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 가치를 말한다. 그는 향후 커뮤니티를 위한 창업 공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자신들의 문화를 끊임없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서로가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원주민 기업가와 비원주민 기업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www.shareable.net

1 '팹랩'(Fablab, fabrication+laboratory)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처음 시작된 창작 지원 공간을 일컫는 용어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같은 고가의 제작 장비를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소규모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영국 커뮤니티 펍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모색

●●● 영국에는 현재 커뮤니티가 소유한 펍pub 6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운영 중인 펍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커뮤니티 사업을 위한 조언 및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19년부터 농촌 커뮤니티를 지원해온 플런켓 재단Plunkett Foundation은 영국 커뮤니티 사업을 지원하는 독립 트러스트인 '파워 투 체인지Power To Change'의 지원을 받아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려 한다. 네트워크는 플런켓 재단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펍의 대표자들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플런켓 재단은 기존 자문 서비스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한 이들을 지원하는 한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나아가 커뮤니티 소유의 펍 모델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플런켓 재단은 네트워크가 커뮤니티 펍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지속가능성과 사업적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트워크의 핵심 목표는 커뮤니티 펍의 일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지역에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 해리엇 잉글리시Harriet English는 "소비자 단체 CAMRACampaign for the Maintenance of Real Ale에 따르면 일주일마다 각 지역에서 18개의 펍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커뮤니티 펍의 생존율은 100%입니다. 펍을 지역 소유로 만들고,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모어 댄 어 펍More Than A Pub 프로그램의 매니저 제니 샌섬Jenny Sansom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21개의 펍이 커뮤니티 소유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펍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3년간의 프로그

램으로 플런켓 재단, 지역사회·지방행정부MHCLG와 파워 투 체인지가 공동으로 385만 파운드의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커뮤니티 소유 펍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역 안의 사회적 허브로서 역할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사례 조사를 진행해 온 플런켓 재단의 담당자는 "협동조합 펍은 모든 연령대, 배경,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상호 교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막 지역을 자리잡은 새로운 거주자, 자녀 양육으로 집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젊은 부모, 일과 삶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배우기 원하는 청(소)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은퇴자, 그리고 혼자 살거나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 모두 상호 교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커뮤니티 펍은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클래스, 치매 치유 카페를 운영하여 지역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클럽을 운영하거나 커뮤니티 펍에서 자원봉사하는 실업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소규모 상점이나 카페, 우체국 등의 역할을 지역에서 소화하거나 공간 내의 회의실을 무료개방하여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다.

www.thenews.coop
https://plunkett.co.uk/more-than-a-pub/

생활 속
사회적경제

'우리동네'라는 말이 낯설게 여겨질 만큼 요즘 세대는 자주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정주(定住)하려는 의사도 높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줄고 있으니까요(나는 현재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앞으로도 쭉 살고 싶다 : 2016년 44.8%→2017년 46.5%→2018년 38.5%[1]). 주변의 이웃과 교류하는 비중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나는 내 주변의 이웃들과 인사를 하고 지낸다 : 2016년 56.9%→2017년 57.2%→2018년 55.1%). 혼자 조용히 보내는 나만의 시간이 트렌드로 언급된 것이 최근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느낌은 점점 희소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고, 우리동네라는 개념도 희미해지는 요즘,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갖는 중요성이 자꾸 언급되며 다시 우리동네 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가 의미 있게 해석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만남의 기회를 동네 안에서 꾸준히 만들며 동네 안에서 놀고, 쉬고, 나누는 활동을 이끌고 있는 이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신효진
편집위원회

우리는 동네에서 놀아요

문화예술 커뮤니티 '동네형들'

청년 문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커다랗고 다소 무거운 목적보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바람

1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

에서 시작한 '동네형들'. 2014년부터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네형들은 스스로를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현장에서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싸우는 단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동네형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전, 구성원들이 수유동으로 이사 와서 2년여간 주민들과 만나며 친밀성을 높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대신 당면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관련 이슈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시민사회, 문화예술, 청년활동 등 다양한 생태계 안에서 청년들이 여러 단체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청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연대의 경험이나 함께 변화를 만들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 당사자성을 요구하는 것은 때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경쟁의 연속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2박 3일 동안 청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청년약국〉, '사람책'의 형태로 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현장 활동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인권 라이브러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펼쳐지는 동네에서 만나고 나누는 것, 그 과정에서 현재 내가 겪는 문제나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겪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네형들 홈페이지 (http://www.dongnebrothers.org/)를 참고하세요.

놀며 일하는 공간 '무브노드'

강원도 태백에서 지역사회 청년들과 디지털 노마드가 함께 소통하며 문화를 생산하고 확산하려는 공간 '무브노드'를 오픈한 널티NULL-TEA는 소셜벤처입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NULL을 새롭게 우려내어TEA 의미를 더한다"는 뜻을 가진 널티는 게임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젝트, 보드게임 디자인 등의 활동을 하다가 2017년 9월부터 강원도 폐광 지역에 무브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무브노드는 '움직이다가move 만나게 되는node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느린 시간이 조용히 흐르는 태백에서 움직이고 만난 사람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단단히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무브노드는 폐광으로 지역사회의 활기가 줄어든 태백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가져오려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은 원격 근무를 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값비싼 주거비용과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티는 태백만의 지역 색깔과 문화를 담은 공간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한편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했던 태백에 영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이끌어가려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태백에서 살고 있는 이들과 또 살아갈 이들을 위해 지역의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켜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원하는 일을 해나갈 자유를 만들어가는 널티의 시도가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브노드 홈페이지 (http://null-tea.com/)를 참고하세요.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창간 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 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생협평론 2011 봄(2호)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헌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율(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오항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박제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생협평론 2012 봄(6호)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생협평론 2012 여름(7호)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특별기고]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 C. Richardson,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좌담]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억, 조성돈,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가을(8호)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 의 만남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겨울(9호)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댕신협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좌담]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앵, 조향숙, 김아영

생협평론 2013 봄(10호)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아이쿱생협 쿱서비스 경영이사)

[좌담]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생협평론 2013 여름(11호)

특집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좌담]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생협평론 2013 가을(12호)

특집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좌담]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생협평론 2014 봄(14호)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좌담]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생협평론 2014 여름(15호)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좌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생협평론 2014 가을(16호)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군포e비지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좌담]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생협평론 2014 겨울(17호)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윤주일(쿠피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강민수(쿱비즈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생협평론 2015 봄(18호)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좌담]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롱(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좌담]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회,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례자연드림파크 사례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좌담]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좌담]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박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생협평론 2016 봄(22호)

특집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좌담]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흠

생협평론 2016 여름(23호)

특집 **협동조합과 혁신**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김활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좌담]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생협평론 2016 가을(24호)

특집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천(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좌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생협평론 2016 겨울(25호)

특집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생협평론 2017 봄(26호)

특집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조합원)

[좌담]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생협평론 2017 여름(27호)

특집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좌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김대훈, 김영배, 김인선, 송경용, 서형수

생협평론 2017 가을(28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벡의 사례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

—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 편집장)

평화시장의 모범업체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좌담]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박강태, 이회수, 조준호, 한석호, 송경용

생협평론 2017 겨울(29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곽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투명하나 충만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좌담]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김기민, 김수화, 민선영, 박준구, 손홍택, 박범용

생협평론 2018 봄(30호)

특집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문재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
—편용우(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
—임남희(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힐링센터0416쉼과힘 사무국장)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박선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
—김현대(한겨레 기자)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생협평론 2018 여름(31호)

특집 **순환과 회복의 경제**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지구 환경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생의 관계 맺기
—윤숙희(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이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실천
—유현실(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김경하(더나은미래 부편집장)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기
—강양구(지식큐레이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한걸음
: 시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김성경, 김신범, 오창길, 윤성미, 이경재, 김형미

특집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톺아보기
—서종식(의연협동노동센터 소장)

결사체 운동으로서 주민운동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김성훈(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 사회적경제 대전플랜 상임대표)

현장 기반 학습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사회적경제 연구자 육성 현황과 전략
—장승권(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

한살림과 한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7가지 방법
—서동재(한살림연합 인사지원팀)

같이 성장하고, 가치를 성장시키는 협동조합 사람들
—김아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좌담]

5인 5색, 사회적경제 인재를 말하다
—김하나, 신철호, 신현상, 원종호, 정찬필, 박범용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단행본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_일본 21세기코프연구센터 저 | 한국생협연합회 역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_iCOOP생협연대 저
3	2008	『일본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_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_오사와 마리 저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_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_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 김형미·김영미 옮김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_김형미 외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_에드가 파넬 저 | 염찬희 옮김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_일본생협연합회 엮음 | 이은선 옮김
11	2012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_오리토이사오와카니시 케이코 저 | 이은선 옮김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_사이토 요시아키 저 | 다나카 히로시 옮김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_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 이은선 옮김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_니시무라 이치로 저 |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15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_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 정광민 옮김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_서울특별시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_김창진 편저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_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____A.F. 레이들로 저 | 염찬희 옮김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_G.D.H. 코울 저 | 정광민 옮김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8 2017 『로버트 오언 :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____G.D.H. 콜 저 | 홍기빈 옮김

29 2017 『기업 소유권의 진화』
____헨리 한스만 저 | 박주희 옮김

30 2018 『스무살 아이쿱 : 협동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실천』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연구보고서(일반)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7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_김주숙·김성오·정원각
2	2009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_김아영·정원각·이향숙
3	2010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____염찬희·엄은희·이선옥
4	2010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____장원봉·하승우·임동현
5	2010	연구보고 2010-3	『생협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_김찬호
6	2010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협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염찬희
7	2011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____정해진

8	2011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____장종익·김아영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생협—의 동향』 _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_장종익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_장상환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염찬희·손범규·지민진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지민진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_지민진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_손범규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____지민진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_손범규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_서진선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엄은희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 · 이문희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지민진·서진선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이예나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_지민진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_지민진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_장재봉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_윤길순·최은주·서진선
34	2016	흐름을 읽다 1-02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____지민진
35	2017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____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36	2017	흐름을 읽다 2-01	『소비, 그리고 쉼(休)』 ____지민진
37	2017	흐름을 읽다 2-02	『생활동향연구, 2017. 6』 ____지민진
38	2017	흐름을 읽다 2-03	『생활동향연구, 2017. 7』 ____지민진
39	2017	흐름을 읽다 2-04	『생활동향연구, 2017. 8』 ____지민진
40	2017	흐름을 읽다 2-05	『생활동향연구, 2017. 9·10』 ____지민진
41	2017	흐름을 읽다 2-06	『생활동향연구, 2017. 11·12』 ____지민진
42	2017	기획연구과제 2017-2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를 중심으로』 ____이향숙
43	2017	흐름을 읽다 2-07	『경기와 일상의 괴리 : '나'를 찾는 소비』 ____지민진
44	2017	기획연구과제 2017-3	『아이쿱생협의 공급망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____박상선·권영기

45	2018	I.B 2018-01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1 : 한국 GMO 보급 및 표시제 현황』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46	2018	I.B 2018-02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47	2018	I.B 2018-03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3 : Non-GMO 표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48	2018	I.B 2018-04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4 :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 필요성—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의 관점에서』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49	2018	I.B 2018-05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5 : BT와 GM 시대, 농업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서(수행연구)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연구자
1	2014	연구원 리포트	『홋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_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_지민진·최은주
3	2015	기획연구과제 2015-6	『고양파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신효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_이향숙·김경아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No.	발행년도	시리즈 번호	제목/ 편역자
1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_이경수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_이경수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_이경수
4	2013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_이경수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_이경수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_이경수
7	2014	2014-13	『이론』『사례』『거버넌스』 ____이경수
8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_이경수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_이경수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_이경수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_이경수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_이경수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16	2017	2017-09	『사람 중심의 일터 : 사회 혁신 생태계 몬드라곤 사례연구 :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5』 ____윤길순
17	2017	2018-01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모음집』 ____윤길순
18	2018	2018-02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____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19	2018	2018-03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2』 ____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생협평론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공론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청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구독료

· 1년 구독료 : 10,000원

입금안내

·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 주세요.

· 낱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